중편소설

너와 나

리 준 호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6(2017)

중편소설

너와 나

리 준 호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6(2017)

차 례



제 1 장. 중학시절

리철민고급중학교 음악교원 류옥련은 40대에 들어선 중년기의 녀인이다. 그는 15년전 리철민영웅의 담임교원이였다.

내가 리철민영웅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한다고 하자 그는 어딘가 이상한 눈길로 나를 마주보았다.

나는 그의 심리를 나름대로 넘겨짚었다.

《별스럽게 생각될수 있습니다. 영웅이 희생된지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무슨 글을 쓰겠다고 하니…》

류옥련은 머리를 저었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를 형상한 어느 한 예술작품을 작가선생님도 보셨을것입니다. 거기에는 그의 중학시절이 없었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늘 그것이 맺혀있습니다. 영웅적위훈의 기초는 중학시절에 형성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영웅이 희생된 후에 인차 뒤따라 나온 그 작품을 나도 보았었다. 등장인물의 뒤생활을 일일이 보여줄수 없는 화면예술의 제한성을 부정하는듯싶은 류옥련의 표정에서 나는 선뜻 다음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도 영웅의 중학시절이야기를 꼭 쓰자고 작정한것은 아니였다. 취재를 갓 시작한 지금은 아무것도 장담하기 어려웠다. 소설을 쓰려면 원형인물의 모든 생활을 알아야겠기에 학교에도 찾아온것이였다. 그런데 류옥련은 그 대답부터 듣고싶어하는것이다.

《좋습니다. 나는 영웅의 중학시절부터 소설을 시작하겠

습니다.》
망설일것도, 깊이 생각해볼것도 없었다. 그는 론의할 여지 없이 정당한것을 토설한것이다.
나의 확고한 어조에 류옥련의 낯빛은 밝아졌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 살아있는, 생동한 철민이를 다시 보고싶습니다.》
살아있는, 생동한 철민이를 보고싶다는 류옥련의 말에 나는 영웅과 담임선생은 평범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였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나를 흥분시켰다.
《나는 이미 영웅에 대해서 소개한 신문과 잡지들의 글을 다 보았습니다. 될수록이면 거기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의 리철민이를 아는것이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이면 이야기하기가 더 편안합니다. 철민이와 함께 공부한 애들도 불러올수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아직도 련계가 깊습니까?》
《물론이지요.》
머리우에 잎이 무성한 감나무가지가 드리운 교재림에서 류옥련은 밑둥이 굵은 여러 그루의 감나무를 가리키며 철민이네가 심은 나무들이라고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리 깊고 다감한 녀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전혀 40을 넘긴 녀성같지 않게 젊어보였다. 처녀시절에는 무척 도고하고 웬만한 남자에게는 곁을 주지 않았을것만 같았다. 내가 그 녀자와 어슷비슷한 나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
그날은 수업이 맞물려있어서 품놓고 이야기를 들을수 없었다.
다음번에는 과외시간에 마주앉기로 약속하고 헤여졌다.
며칠후 나는 류옥련과 전화련계를 하고 영웅의 모교를 다시 찾았다. 퇴근시간이 지난 조용한 때였다. 교원실에서 류옥련과 30살안팎의 다른 한 녀성이 나를 맞이하였다.

류옥련이 그 녀자의 어깨를 끌어다 자기곁에 붙여세우며 소개했다.

《철민이랑 함께 공부한 최선희동무입니다. 지금은 인민봉사총국 부원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늘씬한 키에 어울리게 시원스럽게 생긴 녀자였다. 크고 검은 눈에 수심이 낀것은 대뜸 알렸다.

자리를 권하고나서 류옥련은 말했다.

《선희는 철민이와 다툼질을 자주 한 유일한 녀동무였습니다. 초급단체위원장이였으니까요. 철민인 학급장이구…

둘이가 다 자존심이 보통아니였답니다. …》

1. 류별난 성격

선희는 요즈음 거칠어졌다. 때없이 짜증을 내고 별찮은 일에도 감정을 앞세웠다.

선희가 일반 청년동맹원이였다면 그것이 그닥 눈에 뜨이지 않았을것이다.

그는 학급의 얼굴인 초급단체위원장이였다. 다른 땐 몰라도 모임장소에서만은 자신을 다잡아야 했다.

그날도 그렇게까지는 성을 낼 일이 아니였다.

과외체육이 끝난 후 책임지도원선생님에게 불리워갔던 그는 5학년 4반 (당시) 이 규률없다는 추궁을 받고 교실에 들어섰다. 하루사업총화를 지어야겠는데 남동무들 태반이 들어오지 않았다. 무심결에 창밖을 내다보니 남동무들이 운동장구석에 빙 둘러서서 누군가의 태권도시범동작을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었다. 3층이여서 그 주인공의 얼굴이 똑똑히 내려다보였다.

선희는 신경질적으로 창문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창문짬에

서 찍 하고 종이떨어지는 소리가 나서야 선희는 문풍지를 바른 창문을 아직은 열수 없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초급단체위원장이 팩하면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것을 알고있는 누군가가 얼른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남동무들을 불러들였다. 10여명의 남동무들이 줄레줄레 들어와 빈자리를 메꾸었다.

선희의 눈총은 모임시간을 지연시킨 그 장본인인 《태권도사범》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맨 뒤자리인 자기 의자에 제빠듬히 앉아 활 열어제낀 운동복앞자락으로 부채질을 하는것을 보고 주저없이 내쏘았다.

《리철민동무, 옷차림을 바로하고 앉으십시오!》

그는 전혀 바빠하는 기색이 없이 운동복쟈크를 채웠다. 그리고는 약간 삐뚤서 앉은 자세에서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선희를 마주보았다. 선희는 그 표정을 비웃음으로 판단했다. 낯이 화끈했다. 그를 곤경에 몰아넣을 좋은 수가 제꺽 생각난것은 참 다행이였다.

선희는 코웃음을 치며 자기 자리에 가서 영어교과서를 가지고 나와 교탁우에 올려놓았다. 책장을 소리가 나게 발칵발칵 뒤져 어느 한 대목을 펼쳤다.

《이제부터 다음시간에 배울 제7과의 단어를 다 외운 동무들만 검열을 하고 보내겠습니다.》

교실이 웅성웅성했다.

초급단체위원장의 비위를 거슬린 장본인에게 모두의 눈총이 쏠렸다.

선희는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낯이 서서히 숙어지는것을 깨고소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영어실력이 시원치 않다는것은 온 학급이 다 아는 사실이였다. 그러니 초급단체위원장이 지금 누구에게 앙갚음을 하고있다는것도 다 알고있을것이다.

선희는 그가 마지못해 가방에서 영어교과서를 꺼내놓는것을 보고야 그에게서 눈총을 거두었다.

별안간 그의 입에서 《스트레윈 쥐－ (이상한) 》하는 영어발음소리가 튀여나왔다. 그리 큰소리는 아니였지만 그 반발적인 음성은 교실의 소음을 눌러버리고도 남았다.

와하하－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때 담임선생이 앞문으로 들어섰다.

《아니, 왜 아직 가지 않고들 있어요?》

거의 울가망이 되였던 선희는 황급히 제자리에 들어가 낯을 구겨박았다. 인차 자신을 수습하고 일어나서 담임선생님에게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쳤다.

선희는 담임선생님이 적어도 장본인인 리철민이만은 남게해서 혼내줄줄 알았다. 그런데 옥련선생은 추궁 한마디 없었다. 리철민은 비웃는듯 한 표정을 선희에게 던지며 동무들속에 섞여 교실을 나가고…

얼마후 선희는 옥련선생과 거리에 나섰다.

학급장인 영성이가 급성페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담임선생님과 병문안을 가기로 약속했던것이다.

선희는 교실에서 거꾸로 입은 창피감을 아직 삭이지 못하고있었다.

《선생님, 철민동무 가만두면 안됩니다. 〈망나니〉 같습니다. 남동무들을 자기 주위에 그러모아서 싸움패를 만들려는것 같기두 하구…》

옥련선생은 그저 소리없이 웃기만 했다.

선희는 안이 달아서 덧붙였다.

《우리 학급이 규률이 없다는 말을 듣는것도 그 동무때문에…》

옥련선생은 선희의 샐쭉해진 낯을 곁눈질로 내려다보며 정색해서 물었다.

《선흰 학급의 규률이 문란해진것을 정말로 철민동무탓이라고 생각해요?》

선희는 《예》하려고 했으나 옥련선생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난 그렇게 보지 않는데…》하고 부정하자 혀가 들어가고말았다.

선희도 꼭 철민이탓이라고 찍어 말하기 어려웠다. 그 원인은 지금 병원생활을 하고있는 학급장 영성이가 통솔능력이 없는데서 찾아야 할것이다. 영성이는 마음이 지내 착하고 자기 공부밖에 몰랐다. 그 누구에게 싫은소리 한마디 할줄 몰랐다.

문제는 선희가 영성이의 그 약점을 나빠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무엇이나 제 고집대로 하고싶어하는 초급단체위원장 최선희의 성격에는 오히려 참한 학급장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급의 초급위원들속에서 영성이가 학급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선희는 영성이를 두둔해나섰었다. 그런데 소년단때까지는 고분고분하던 남동무들이 청년동맹원이 된지 한해가 지나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리철민이가 전학해온 다음부터 더해졌다고 선희는 생각하고있었다.

구역병원의 어느 한 입원실에 들어선 선희와 옥련선생은 놀랐다. 남동무들 5명이 먼저 와서 영성이를 에워싸고있었던것이다.

옥련선생은 누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는가고 물었다.

키가 머쓱한 상국이가 설명했다.

《철민동무가 먼저 오자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빵이랑 과자랑 다 철민동무가…》

옥련선생이 철민이의 팔을 끌어당겨 각별히 칭찬해주려 했다. 철민은 팔목을 슬며시 뽑으며 《선생님, 이러지 마십시오. 동무가 아파할 때 찾아와보는거야 응당한 일이 아닙니까.》하는것이였다.

영성이는 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이 나타나자 너무 좋아서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아직 열이 내리지 않고 병색이 도는데

도 래일이라도 당장 퇴원해서 동무들과 어울리고싶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병원문을 나왔을 때에는 어둠이 깃든 거리에 불빛이 환했다.

입원실에서부터 남동무들한테 밀려 영성이와 말도 변변히 나누지 못했던 선희는 밖에 나서자 외토리가 되고말았다. 남동무들한테 선생님을 떼웠던것이다. 남동무들에게 에워싸인 선생님은 자기를 뒤에 떨구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선희는 또다시 기분이 심란해졌다.

얼마전에 선희는 30여년간의 교원경력을 가지고있는 할머니에게 불만을 내비친적이 있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은 왜 남동무들만 고와할가요?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 녀동무들은 더 심하게 욕을 해요.》

할머니는 말했다.

《그건 너희 선생이 처녀이기때문이란다. 처녀선생은 사내애들에게 너그러운 법이다.》

《그건 왜 그렇나요?》

할머니는 선희의 이마빡을 튕겨주며 《그건 네가 좀더 크면 알게 돼.》하고 웃어넘겼다.

선희는 할머니의 말이 알쏭달쏭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빴다. 선희에게 옥련선생은 담임교원이기 전에 자기를 비쳐보는 거울이였다. 우선 옥련선생은 학교의 그 어느 녀교원보다 인물이 뛰여났다. 음악교원이지만 문학, 수학, 외국어 막히는데가 없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너그럽다. 학급의 남자아이들이 제멋대로 놀면서 규률을 문란시키는 원인중의 하나가 담임선생님의 그 지나친 《너그러움》때문인지 모른다. 어느날 저녁 선희는 거리에서 옥련선생이 키가 후리후리한 웬 남자와 거니는것을 훔쳐보았었다. 선희는 그만 가슴이 덜컥했다. 우리 선생님이 시집가려는게 아닐가, 우리를, 나를 버리고.

남몰래 속을 썩였다. 선생님이 시집가면 자기는 다른 학교에 전학하고말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선희는 안도의 숨을 쉬였다. 안타까운것은 선생님이 자기의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것이였다.

지금도 자기 같은것은 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 남동무들과 어울려 가고있지 않는가. 자기가 미워하는 철민이는 선생님곁에 딱 붙어서 무슨 말인가 신이 나게 하고있다. 그 모양을 보자 속이 더 꼬였다.

선희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발걸음을 늦추었다. 어느 정도 멀어지면 선생님이 곁에 없는 자기를 찾을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선희는 지하건늠길어구에서 그들과 떨어지고말았다.

집에 들어서니 할머니가 어디에 갔다가 늦었느냐고 야단을 했다.

선희의 아버지, 어머니는 대표부성원으로 외국에 나가 생활하고있다. 소학교 학생인 남동생만 데리고간 까닭에 큰아버지네 집에서 살고있던 할머니가 옮겨와 선희를 돌봐주고 있었다.

너렁청한 집안에서 선희는 제왕이였다. 할머니는 교원출신이여서 엄격하지만 선희의 고집을 한번도 굽혀본적이 없었다.

선희는 할머니가 챙겨주는 저녁밥을 먹는둥마는둥하고 자기 방으로 가서 침대에 펴있는 이불속으로 들어가버렸다. 할머니가 따라들어와 이불속을 들치고 선희의 이마를 만져보며 근심스레 물었다.

《너 어디 아픈게 아니냐?》

《아니요.》

《헌데 왜 인상이 그렇니, 밥두 다 안 먹구.》

선희는 할머니를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성가시게 굴것 같아 발딱 일어나서 할머니의 목을 그러안았다. 쪼글쪼글한 볼

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어주자 할머니는 《원, 계집애두.》하고 호함지게 웃으며 물러나는것이였다.

다시 누우려던 선희는 며칠후에 학교적인 외국어학과경연이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옷을 주어입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영어교과서를 꺼내놓자 리철민의 얼굴이 떠오르고 불쾌한 오늘 하루의 일이 돌이켜졌다.

선희는 영어교과서우에 손을 포개얹고 턱이 뾰족하고 눈매가 만만치 않은 철민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가 처음으로 선희의 감정을 건드린것은 지난해 가을 룡악산에 등산갔을 때였다. 점심시간이였다. 남학생들과 녀학생들이 서로 등을 돌려대고 따로 모여앉아 밥곽들을 펴놓았다. 어딘가 잠간 자리를 떴던 철민이가 그 광경을 보고 큰일이나 난것처럼 떠들었다.

《아니, 이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밥을 먹는것 같구나!》

사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야외에 나가서는 남학생과 녀학생들이 따로 식사를 하군 했었다. 그런데 철민은 그런 광경을 처음 본다는듯 놀라와하는것이였다. 모두 눈만 마주보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하자 철민은 학급장 영성이부터 일궈세웠다.

《학급장동무, 우리 남자들이 먼저 분계선을 허물어야겠어.》

주대가 없고 소심한 영성이는 말이 떨어지자 얼른 자기부터 사이를 열어놓고 돌아앉았다. 남학생들을 손쉽게 돌려앉힌 철민은 까딱않고있는 녀학생들을 둘러보다가 선희와 눈길이 마주쳤다.

《초급단체위원장동문 〈통일〉이 싫은게구만.》

철민의 그 시까스름에 선희는 코웃음쳤다.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살다가 중앙으로 소환된 아버지를 따

라 평양으로 올라온 철민은 전학한지 한달남짓밖에 안되였다. 푸접이 웬만큼 없어가지고는 아직 낯을 채 익히지 못한 동무들앞에서 그런 언행이 쉽게 나오지 않을것이다.

선희는 철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것으로 그에게 무안을 주어야겠다는 얄궂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펼쳐졌다. 철민이가 자기의 등산배낭아구리를 열고 그안의것들을 남동무들과 녀동무들사이에 짜르르 쏟아놓았던것이다. 빵봉지, 사탕봉지, 과일 등이 와그르 굴러나와 《분계선》을 허물어버렸다. 아이들이 와하하 웃었다. 그렇게 되여 《분계선》은 자연히 없어지고 식사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거기까지는 철민에 대한 고까움이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어성버성한 전례를 깨뜨려버린 철민의 행동이 옳게 여겨졌다. 식사가 거의 끝날무렵 철민이가 일어나서 《자 동무들, 우리 먹는건 그만하고 노래두 부릅시다.》 했다. 그다음 자칭 오락회책임자가 되여 먼저 노래를 불렀다. 그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노래를 썩 잘 부른다는, 그래서 일부러 오락회방향으로 유도했다는 추측이 들었다. 철민은 노래를 마치고는 곧바로 선희에게로 다가왔다.

《오락회책임자의 권한으로 초급단체위원장 최선희동무를 지명합니다.》

선희는 곤경에 빠졌다. 그는 음치이다. 학급동무들은 지금껏 그런 마당에는 초급단체위원장의 위신을 고려하여 끌어내지 않았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철민이였다. 선희는 우물쭈물하다가는 더 큰 무안을 당할것 같아 일어났다. 동무들이 모두 놀라와했다. 무슨 노래인지 겨우 1절을 부르고는 앉아버렸다. 하지만 철민은 그를 다시 일궈세워 끝내 2절까지 부르게 하고야말았다. 노래가 끝난 다음 철민의 평가가 선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초급단체위원장동무가 언변은 괜찮은데 노래는 겨우 보

통수준이구만.》

그날 저녁 선희는 한아빠트에 살고있는 소년궁전성악지도교원을 찾아갔다.

그는 한때 이름난 예술단의 녀가수였다.

풋낯이나 알고있는 그에게 짬짬이 성악지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동안 지도교원의 집을 찾아다녔으나 인차 열은 식어졌다. 자기가 지방에서 전학해온 하찮은 남동무에게 잘 보이려고 전혀 소질도 없는데 시간을 랑비하고있다는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럴수록 철민이가 괘씸했다.

그때부터 철민이를 바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늘 일도 아마 그런 토라진 감정의 연장인지 몰랐다.

선희는 영어교과서의 어느 한 페지를 펼치고 단어를 암송하느라고 한동안 중얼거렸다. 그런데 단어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학과경연이 진행되면 시험장에서 끙끙 갑자르며 진땀을 뽑게 될 철민의 얼굴만 자꾸 떠오르는것이였다. 자기가 그를 《철민동문 노래는 괜찮은데 영어는 겨우 보통수준이구만.》하고 놀려댈 일을 그려보니 혼자서도 깨고소한 웃음이 나갔다.

2. 자존심

최선희의 얄궂은 예감이 맞아떨어졌는지 몰랐다.

철민은 외국어학과경연에서 3점을 맞았다. 학급에서 보통생이 3명 나왔는데 철민이가 그가운데 한명이였다.

5학년 4반은 그 3명으로 하여 학년적인 점수평가에서 맨 뒤자리에 놓이게 되였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철민은 이름과 함께 점수가 나붙은 중앙현관을 피해서 꽁무니에 불이 달린것처럼 뒤문으로 빠져나왔다. 학교정문을 벗어나서 잠시 어디로 갈것인가 망설였다.

어디든 숨어버리고싶었다. 하지만 그에게서 평양은 아직 낯선 도시였다. 그가 살던 구성시 룡흥구에는 어디 가나 친척이고 어디 가나 동무였다.

하는수없이 집으로 향했다. 아빠트현관에서 이웃집할머니가 편지를 주는것을 손에 꾸겨쥐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부리나케 11층인 집으로 달려올라갔다.

집에는 손아래동생 철준이와 소학교 학생인 누이동생 철순이밖에 없었다. 구역승강기운영사업소에 다니는 어머니가 아직 퇴근하지 않은것은 다행이였다. 당일군인 아버지는 저녁늦게야 퇴근한다.

《형, 나 숙제 다 했어.》

《나두.》

철민은 숙제장을 들고 막아서는 철준이와 철순이를 한켠으로 밀어버리였다.

《비켜라. 시끄럽다.》

동생들이 맏이인 그한테 먼저 숙제검열을 받게 한것은 출장이 잦은 아버지가 세워놓은 가정의 질서였다.

철민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한구석에 매달아놓은 빽자루를 향해 힘껏 주먹을 날렸다. 움켜쥔 줌안에서 이웃집할머니가 주었던 편지를 발견한것은 그때였다.

구겨진 편지겉봉에 《구성시 룡흥중학교 담임선생》하고 씌여있었다.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영어시험에서 3점을 맞고 들어온 수치심에서인지 몰랐다.

책상에 마주앉아 편지봉투를 뜯는데 빠금히 열린 문틈으로 철준이가 얼굴을 들이밀고 《형, 나 그럼 나가 놀아두 되지?》 한다.

철민은 후닥닥 뛰쳐일어나 《너 정말 시끄럽게 굴겠니. 마음대로 해라.》하고 문을 쾅 닫았다. 철준이의 뒤에 겁에 질려 서있던 어린 누이동생에게는 미안한감이 들었다.

철민은 편지를 펼쳤다. 흰종이우에 찍혀진것처럼 또박또박

박혀있는 낯익은 옛 담임선생님의 필체였다.

…

철민이, 기뻐하세요. 우리 학급이 이번에 영예의 붉은기학급이 되였어요.

영예의 붉은기학급의 징표인 휘장과 기발을 받아안고 한자리에 모인 우린 모두 우리 학급의 학급장이였던 철민이를 생각했어요. 오늘의 영예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학급장이였던 철민이의 숨은 노력이 많이 깃들어있다고 봐요. 마음같아서는 우리모두의 가슴에 번쩍이는 붉은기휘장을 철민이의 가슴에도 달아주고싶어요. …

철민인 우리 학급이 받아안은 그 붉은기의 기수였어요. 평양의 학교에도 좋은 동무들과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릴 잊어서는 안돼요. 여기서처럼 학급의 모범, 학교의 모범이 되세요. …

철민은 더 글줄을 읽어내려갈수 없었다.

얼마전에는 학급동무이며 태권도소조원이였던 명식이한테서 편지가 왔었다.

철민아, 우리 태권도소조는 네가 떠나간 그날부터 3일동안 훈련을 못했어. 모였다가는 모두 네 이야기만 하다가 흩어지군 했어. 정말 네가 없는 소조훈련실은 텅 빈것 같애.

난 네가 떠나면서 벗어준 운동복을 꼭 경기에 나갈 때만 입군 해. 운동복을 오래 입으면서 늘 너를 생각하겠어.

넌 우리 룡흥중학교의 무쇠주먹, 발차기명수였다. 평양에서도 본때를 보여야 한다!…

철민은 책상에 이마를 찧으며 몸부림했다. 아, 선생님과 동무들이 나의 이런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는가.

룡흥중학교에서도 모든 과목이 다 최우등이지만 영어실력

만은 시원치 않았었다. 학급장이며 전교의 모범이라는 그 후광이 감싸준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어물쩍 넘겨온것이 기대일 언덕이 없는 새 학교에 와서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봐야 할것이다. 이제 한달만 있으면 학년말시험이 있게 된다. 그때에도 《영어》라는 담벽이 앞을 막아선다면…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온다.

어머니가 퇴근해 들어왔을 때에 철민은 맏이의 자각을 되찾고 동생들을 불러들여 책상에 앉혀놓았다. 어머니앞에서는 애써 자신을 감추려하지 않아도 되였다. 어머니는 부드러운 반면에 꼬치꼬치 캐고들지 않는 성미였다. 철민이가 커가면서는 거의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다. 두려운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 반대였다. 어릴 때보다 더 철민이의 일거일동을 주시했다. 더우기 평양의 새 학교에 전학온 다음부터는 거의 매일이다싶이 총화를 받아냈다. 아버지의 엄한 눈빛은 어릴 때 종아리를 치던 그 회초리보다 더 무서웠다.

철민은 저녁밥을 먹자마자 자기 방을 거두었다. 아버지는 독자성을 키워준다고 하면서 세칸짜리 방중에서 제일 크고 좋은 방을 철민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어느때고 들여다보고 방이 무질서하면 용서하지 않았다. 특히 책상이 너저분한것을 질색한다.

방을 말끔히 정리해놓은 철민은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자기의 우울한 낯색이 드러날것 같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머니한테는 그저 피곤하다고 했고 철준이한테는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절대로 아무 말도 해서는 안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얼마후 초인종소리가 울리고 방으로 들어서는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렸다. 누이동생 철순이가 《아버지.》하고 쪼르르 달려나가 매달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의례히 철민의 방부터 기웃한다. 오늘도 례외로 되는 날이 아니였다. 꼭 닫긴 철민의 방문을 열고 《큰오빠는 벌써 잠

들었니?》하고 철순이에게 묻는다. 그러자 깜찍한 철순이가 《큰오빠 뿔났어요.》하고 서슴없이 일러바친다.

철민은 머리까지 뒤집어쓴 이불밑에서 숨소리마저 죽였다. 속이 두근거렸다. 이제 아버지가 성큼 들어와 이불을 들치고 자기를 일으켜세우는 날엔…

《철민인 오늘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먼저 자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렇소?》하는 아버지의 미심쩍은 음성.

다행히 아버지는 더 캐여묻지 않고 문을 닫는다.

철민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어머니가 고마왔다. 분명 어머니는 자기의 이지러진 낯에서 무엇인가 감촉했을텐데 모르는척 했던것이다.

철민은 탁상시계의 기상신호종을 30분 앞당겨놓고 잠들었다.

새벽에 신호종이 울리는 소리에 벌떡 침대에서 일어난 철민은 서둘러 세면을 하고 부엌으로 나갔다. 아침밥을 짓던 어머니가 왜 벌써 깨여났는가고 의아해했다. 철민은 오늘 교실청소당번이 되여 빨리 가야 한다고 하고는 선자리에서 밥을 먹었다. 그다음 책가방을 둘러메고 아버지가 들을세라 살금살금 전실을 빠져나와 출입문을 열고 나섰다.

날이 밝기 시작한 이른아침이였다.

학교정문에는 아직 인적이 없었다.

철민은 먼발치에서 3층 교실창문만 바라보며 들어갈념을 못했다. 공교롭게도 첫 수업은 그 저주로운 영어였다. 영어선생이 수업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학과경연성적을 놓고 하나하나 따질것이다.

철민은 영어수업을 뚜꺼먹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두번째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것이였다. 학교변두리에서 어물거릴수는 없었다. 그는 발닿는대로 걸었다. 아직 겨울이 물러가지 않은 때여서

날은 추웠다. 멀지 않은 지하철도역에 들어가서 전동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며 시간을 축냈다. 전동차안에서 영어단어장을 꺼내들었으나 그 《영어》라는 글자가 어떻게나 미운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싶었다. 대신 솜옷주머니에서 수학공식집을 꺼냈다. 그러나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첫번째 수업이 끝난 휴식시간에 철민은 솜옷깃을 세우고 모자를 눈두덩까지 내려쓴채 교실로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모아졌다. 그의 사나운 눈찌를 보고 누구도 말을 붙이지 못했다. 엊그제 퇴원한 학급장 영성이가 선한 웃음을 지으며 《무슨 일이 있었니?》하고 조심스레 물었을뿐이였다.

오전 수업이 끝난 뒤였다.

선희가 교탁앞에 나가 가지 말고 기다리라는 담임선생님의 지시를 전했다. 그리고 얄밉게 덧붙였다.

《흥, 보통생들은 무사치 못할걸!》

잠자코 있으려던 철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튕겨일어났다. 두번째 시간에 교실로 들어설 때처럼 모자를 푹 내려쓰고 뒤문으로가 아니라 앞문으로 뻐젓이 나갔다.

교탁앞에 서있던 선희가 그의 앞을 막았다.

《동문 어디 가는거야?》

《비켜!》

철민은 나직이 그러나 위엄있게 소리쳤다.

선희는 물러서지 않고 따지고들었다.

《수업엔 왜 빠졌어?》

철민은 어깨로 선희를 떠밀면서 뇌까렸다.

《난 그따위 미국놈의 말 안 배워!》

앞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문밖에서 엿듣고있던 옥련선생과 마주쳤다.

철민은 망설임없이 선생님을 에돌아 계단쪽으로 달려갔다.

《철민학생!》

엄한 부름소리에 주춤했다.
《거기 잠간 있어요!》 하고 옥련선생은 열린 교실문안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철민은 자석에 붙은듯 서버렸다. 잡아끌었으면 뿌리치고 달아났을터인데 있으라는 말 한마디가 꼼짝할수 없게 했다. 선생님은 마치 그 한마디이면 그가 달아나지 못할것이라는것을 알고있는듯 했다.
얼마후 학급동무들이 복도로 와 쓸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인차 잠잠해졌다. 복도창가에 붙어서있던 철민은 등뒤로 다가오는 옥련선생의 발자국소리를 온몸으로 들었다.
《가자요.》
철민은 끌리여갔다.
교원실이 아니라 누구도 없는 음악실이였다.
철민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고 교실로 끌고들어가지 않았으며 교원실로도 데려가지 않았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했다. 그것을 느끼게 되자 더 선생님에게 고분고분해졌다. 갈갬질하던 속도 가라앉았다.
옥련선생이 내여주는 의자에 앉았다.
《미국놈의 말이여서 영어를 배우지 않겠어요?》
나직한 물음이였다.
철민은 더 깊이 고개를 떨구었다. 혀아래소리로 중얼거렸다.
《결김에 나온 말입니다.》
《그럼 평시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철민은 대답을 못했다.
《영어공부가 싫을 때마다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치밀었을거예요. 옳지요?》
《예.》
《그건 자기를 속이는것이고 일종의 타락과 같은거예요. 영어는 적의 말이기 전에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적을 이기려면 적의 모든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라는 장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단 한걸음도 적들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철민인 자기가 인민군대에 나가서 미국놈과 마주섰다고 생각해봐요. 그놈들의 말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며 적을 꼼짝못하게 굴복시키겠어요.》

《…》

《난 철민이가 평양으로 오기 전에 제일 모범적인 학급의 학급장이였다는것을 알고있어요. 그 정도이면 자기 한사람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할줄 알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행동은 뭐예요. 창피하다고 수업에 제멋대로 빠지고, 그다음은 충고를 주는 초급단체위원장과 다투고… 철민인 자기의 인격과 자존심만이 중요해요? 학과경연에서 락후한 점수를 맞아 집단의 명예가 손상된것은 가슴아프지 않아요? 동무들앞에서 사죄해도 시원치 않겠는데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말이예요.》

철민은 눈물이 그렁한 얼굴을 들고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동무들한테 가서 잘못을 빌겠습니다.》

옥련선생의 얼굴에 미소가 피여났다.

《영어는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싸매고… 돌파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수업후에 나하고 2시간이상씩 공부하자요. 어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학년말 영어시험에서는 꼭 5점을 맞겠다는것을 약속할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옥련선생은 가려는 철민을 눌러앉히였다.

《가면 안되겠어요.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철민이 얼굴에서 눈물자국을 발견하게 될거예요. 그러니 오늘 점심은 나

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오후일과에 참가하도록 하자요.》

철민은 거절할수 없었다. 선생님은 이미 작정하고있었던듯 곁에 있던 밥보자기를 풀어서 헤쳐놓는것이였다.

×

오후에 옥련선생은 영어교원을 찾아가 리철민의 학습방조를 하려고 하는데 개별교수안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이지숙한 남자교원은 의아해했다.

《아니, 선생은 학급담임에다 음악소조도 운영해야 하는데 짬이 있겠소?》

《짬이야 내면 되겠지요.》

《그럴것 없이 내가 하는게 낫지 않을가?》

《아니, 제가 하고싶습니다.》

《옥련선생은 그 밸머리사나운 남학생에게 각별하구만.》

그 소리를 듣자 옥련선생은 사랑하는 남동생이 애매하게 비난을 받은것만치 속이 편치 않았다. 다시는 영어교원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래서 말해두었다.

《철민인 좋은 품성을 타고난 학생이예요. 앞으로 남다른 사람이 될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성있게 말할만큼 옥련선생에게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이였다.

구역적인 모범교수자경연에 참가하고 돌아온 옥련선생은 교장선생으로부터 학급의 방희옥이라는 녀학생네 집이 화재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화재사고가 일어난지 사흘이 되였다는 말에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미안하오. 학교의 명예를 걸고 경연에 나간 선생의 생각이 분산될가봐 그랬소. 동, 인민반에서랑 우리 교직원들이

초보적인 대책은 세워놓았소. 헌데 선생네 학급의 남학생들이 참 기특하더구만. 그 애들은 방학기간인데 어떻게 일시에 모여들었는지 화재 당일날부터 희옥이네 집에 가서 살다싶이 하며 도와주고있소.》

옥련선생은 지체없이 희옥이네 집으로 갔다.

집은 정리되였지만 정상은 말이 아니였다. 그속에서 10여명의 남학생들이 보수작업을 하고있었다. 연기에 그슬린 타일을 뜯어내는 아이, 밖에서 혼합물을 이기는 아이, 미장을 하는 아이…

방희옥의 어머니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였다. 자기는 장기환자인 희옥이 아버지의 병구완으로 여러날째 병원에서 집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희옥이 혼자 동생과 함께 때식을 끓이며 살고있었는데 부주의로 불이 났다. 화재를 인차 발견하지 못해서 손해가 컸다. 희옥이는 담임선생님도 자리를 뜨고 없지, 학급동무들은 방학인지라 뿔뿔이 흩어졌지 해서 제일먼저 떠오른것이 리철민의 얼굴이였다고 했다. 그래서 철민의 집에 전화를 했다. 즉시에 달려온 철민은 하루종일 인민반사람들과 집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고 저녁에 집에 가서는 부모들과 토론하고 적지 않은 식량과 부식물, 의복류들을 날라왔다. 다음날에는 학급의 남학생들을 찾아다니며 호소해서 모두 희옥이네 집으로 오게 하여 일을 돕고있었다. 옥련선생은 집안에서 미장칼을 든, 얼굴이 그을음투성이의 철민이를 덥석 그러안으며 목메인 소리를 했다.

《철민이, 네가 나를 대신해주었구나!》

그런 급한 정황에서 희옥이가 다른 애도 아닌 학급에 새로 와서 아직 낯도 익히지 못했을 철민이를 찾을 생각을 했다는 것만 봐도 철민이의 인간됨을 대번에 알수 있었다. 나라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에 이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때였다. 모든것이 부족한, 특히 식량사정으로 어떤 가정들에서는 죽물로 끼니를 에우던 때 학생들은 철민의 본을 따서 너도나

도 식량과 부식물을 들고 희옥이네 집에 나타났었다.
철민이는 그런 학생이였다. 옥련선생은 그런 철민을 각별히 위해주고싶었던것이다.
철민은 옥련선생의 방조를 받으며 그날 저녁부터 영어학습을 시작하였다.

3. 천리길을 걸으며

철민의 영어실력은 나날이 올라갔다.
일단 시작하면 잘하지 않고는, 남보다 앞서지 않으면 못 견디는것이 철민의 성미였다. 그즈음 철민의 머리에는 온통 영어단어뿐이였다. 외국어를 잘하자면 우선 단어를 많이 소유해야 한다.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영어단어를 익혔다. 집에는 눈에 띄우는 곳마다 영어단어를 써붙여놓았다. 벽과 출입문 지어는 세면장벽에도 단어를 붙여놓았다. 그의 손바닥과 손등은 그날 외워야 할 영어단어를 썼다 지우고 해서 늘 새까매있었다.
옥련선생은 철민이가 그날 과제를 떨떨히 수행했을 때에는 사정을 보지 않았다. 다음과정안으로 넘어가지 않고 철민이를 복도로 내쫓았다.
그런데 철민에게는 한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인차 5학년 학생들로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조직하는데 자기도 그 대렬에 속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동무들속에서 수군수군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최근에 조직생활과 학업실력이 락후한 학생들은 빼놓을수 있다는것이였다.
철민은 얼마전에 있은 외국어학과경연에서 3점을 맞은것과 영어수업에 참가하지 않아 학급의 규률을 문란시킨 일을 돌이켜보며 절망에 빠졌다. 난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영어공부도 잘되지 않았다.

그날도 어스름이 밀려드는 교실에 과제장을 펴놓고 홀로 앉아있었다. 그날 과제는 문장에서 각종 품사를 찾아내기와 5개이상의 품사가 들어간 문장을 지어내는것이였다. 품사를 찾아내는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장짓기는 잘되지 않았다. 머리속에 갈마드는 불안의 그림자때문에 집중할수가 없었다. 껄끔한 그대로 옥련선생을 찾아갔다.

음악소조실에서 소조원들의 기량훈련을 지도하고있던 옥련선생이 그 자리에서 과제장을 훑어보고는 틀렸다고 연필로 삑 그어버리였다.

《철민학생, 무슨 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야 별로 힘든것도 아닌데?》

철민은 어물어물하면 자기 심리가 드러날것 같아 《다시 해보겠습니다.》하고 얼른 돌아섰다.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는 정신을 가다듬고 달라붙었다. 겨우 통과되여 교문을 나섰을 때에는 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이마에서 아직 마르지 않은 식은땀을 훔치며 옥련선생을 고깝게 생각했다. 선생님은 답사자명단에서 누구를 빼놓는가 하는것을 알고있을텐데 한마디 귀띔도 하지 않으니 말이였다. 혹시 나를 빼놓게 되는것이 미안해서 그러는것이 아닐가 하고 억측되자 한숨이 나갔다. 철민이가 지금처럼 자기 문제를 놓고 속을 조여보기는 처음이였다.

다음날 철민은 학급장 영성이를 조용히 만나 이야기해보았다.

《영성아, 넌 학급장이니 이번 답사와 관련된 일을 알겠구나.》

영성이는 머리를 저으며 맥풀린 소리를 했다.

《난 페염을 앓고난 뒤여서 가지두 못해. 그러니 신경 쓸 일두 없지 뭐.》

《그래…》

철민은 영성의 입에서 무슨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기

다렸으나 그는 그저 한숨만 쉴뿐이였다.

그날 수업후 영어학습이 끝난 뒤 옥련선생이 철민을 문가에까지 따라나와 바래주며 귀띔했다.

《철민학생도 이번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오의 한 성원이 되였어요.》

철민은 믿어지지 않아서 물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요. 학급장인 영성이가 건강상 리유로 가지 못하게 되는것만큼 체력이 좋고 단련된 철민이가 답사기간 초급단체위원장을 잘 방조해서 우리 학급에서 한명의 락오자도 없게 해야겠어요.》

《?!…》

《난 철민학생을 믿어요. 나도 함께 가게 되니 잘해보자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철민은 운동장으로 달려나왔다.

목청껏 소리라도 치고싶었다, 나도 답사행군대오의 한 성원이 되였다고.

그는 답사행군 전기간 일기를 썼다.

1996년 2월 22일 (목요일)

우리는 오늘 첫 행군을 하였다.

개천을 떠나 구장까지의 로정이였다.

아침에 개천답사숙영소를 떠나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구성룡흥중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급이 견학이나 야영을 떠나는 날이면 흐리지 않으면 비가 오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어느해 11월인가는 도소재지에 견학을 떠났다가 비를 쫄딱 맞고 렬차칸에서 우들우들 떨던 생각이 났다.

하지만 눈은 기분을 좋게 한다.

오늘의 눈은 꽃보라같았다. 하얀 눈송이들이 우리들의 모

자와 어깨에 축복의 꽃보라인양 내려쌓였다.

도로량옆으로 한줄씩 갈라서서 행군서렬을 편성하고 행군했다.

항일유격대 누나같이 멋진 차림을 한 선생님이 내곁에 다가왔다.

《철민학생,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도…》

선생님은 곱게 눈을 흘겼다.

《인간은 사색을 멈추면 죽은거나 같애요. 먼길을 갈 땐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걸으면 힘이 덜 들어요. 영어단어같은것을 외우면서 가면 더 좋지요.》

아차! 그제야 나는 답사기간에 100개이상의 단어를 암송하기로 선생님과 약속한 일이 생각났다. 나는 부랴부랴 영어단어장을 꺼내들었다.

우리는 단숨에 구장에 도착하였다.

군복차림의 답사숙영소지도원선생님이 달려나왔다. 우리대렬책임자가 힘찬 소리로 보고하였다.

《답사지도원선생님, 평양시 중구역 련화고등중학교 답사대렬은 개천을 떠나 구장까지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모든것이 군대식이였다. 규정생활이란 힘들면서도 재미있었다. 앞으로 인민군대에 나가면 이런 절도있는 규률생활을 하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1996년 2월 24일 (토요일)

나는 전자손목시계가 빽 빽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나만이 들리게 조종해놓은 기상종소리인데 새벽 5시이면 어김없이 울리군 했다.

그런데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싫었다. 어제 구장에서 향산까지의 행군이 몹시 힘들었었다.

기상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이 남아있었다.

나는 한참이나 뒤치락거리다가 입술을 사려물고 일어나 앉았다. 옷을 입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와 향산읍에 모셔진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으로 갔다.

누군가 먼저 나와서 눈을 쓸고있었다. 잠자리에서 궁싯거리던 그 몇분사이에 나보다 먼저 피로를 이겨내고 나온 동무가 있다고 생각하니 나약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는 우리 학급 초급단체위원장 선희동무였다.

선희동무는 비자루를 들고 다가오는 나를 보자 웃어보였다. 나는 어색하게 마주 웃으며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몇번이나 선희동무에게 사죄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는 곁을 주지 않았다. 나만 보면 눈을 흘기거나 피하군 했었다. 그러던 그가 지금 웃고있는것이다.

나는 선희동무의 꾸밈없는 표정에서 그가 나를 용서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우리는 대원수님의 동상주변의 눈을 쓸어나갔다.

얼마후 정성도구를 든 많은 동무들이 동상주위로 모여왔다.

오늘은 향산에서 희천사이를 야간행군하였다.

우리는 오후 5시경에 향산을 떠났다.

선생님은 체력이 든든한 나와 병준동무를 맨 뒤에 서게 했다. 떨어지는 동무를 방조하기 위해서였다.

20여리쯤 행군했는데 길옆 잡관목숲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와 병준동무는 걸음을 멈추고 전지불을 비쳐보았다. 답사대복장을 한 동무가 절룩거리며 다가왔다. 어느 학급인가고 물으니 5학년 1반이라고 했다. 5학년 1반이면 맨 앞대렬이다. 소변을 보려고 숲에 들어갔댔는데 신발끈이 풀어져 고쳐매느라고 떨어졌다고 했다.

키가 작고 몸이 약해보이는 동무였다. 다리까지 저는것을 보니 어지간히 지친 모양이였다.

나는 그가 진 배낭을 벗겨내려 했다. 그런데 병준동무가 내

팔목을 잡아서 끌어당기며 귀에 대고 말했다.

《남의 학급애를 생각할사이가 없어. 여기서 어물거리다간 오늘 행군총화에서 우리 학급이 비판받을수 있어. 빨리 가자!》

나는 병준동무의 말을 따를수밖에 없었다.

밤에 희천에 도착하여 행군총화를 지을 때 5학년 1반이 대렬에서 떨어진 그 동무때문에 비판받는것을 보고 나는 후회했다. 키가 작고 몸이 약한 그 동무를 만나 용서를 받지 않고는 잠들수 없었다. 조용히 5학년 1반 병실을 찾아가 그 동무를 불러내여 간식봉지를 들려주며 말했다.

《다음부턴 동무를 버리고 가는 나를 보면 뒤에다 침을 뱉아라.》

1996년 2월 25일 (일요일)

오늘 해발 800여m의 명문고개를 넘었다.

행군대오에서 떨어지는 동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학급에서도 녀동무 2명이 동무들에 의지하여 걸었다. 나와 병준동무가 그 녀동무들의 배낭을 각각 하나씩 넘겨받았다.

내 배낭속에는 선남동무의 짐까지 있었다.

명문고개를 넘기 전에 우리 학급 꼬맹이인 선남동무가 힘들어하는것이 알려서 배낭을 벗겨내려는데 그가 딱 뻗치며 응하지 않았었다. 아직 남동무들속에 떨어지는 동무가 없으니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 그랬을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남동무를 길옆 나무숲에 데리고 들어가 그의 배낭에서 무거운것을 골라서 내 배낭에 넣었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 3명의 짐을 지고 행군한것이나 같았다.

숙영소에 도착하여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오른발이 이상했다. 발을 들어보니 물집이 3개나 생겼다. 나는 옆동무가 볼세라 발을 모포밑에 파묻고 누웠다. 누워서 생각해보니



다른 동무들의 발에도 물집이 생겼을것 같았다. 나처럼 남의 동정을 받기가 저어되여 아픔을 감추고있을것이라고 생각되였다.

발의 물집을 그냥 놔두면 갑절 불편하고 다음행군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나는 모포밑에 손을 넣어 곁에 누운 병준동무의 발을 슬그머니 만져보았다. 내 발바닥과 비슷한 위치에서 물집이 느껴졌다. 그 부위를 건드리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나는 병준동무에게 말했다.

《몽땅 기상시켜서 발검사를 해야겠어. 성냥총을 놓아 치료를 해야지 래일 걷기가 더 힘들거란 말이야.》

잠든 동무들을 하나씩 깨워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동무가 한두개씩은 다 물집을 가지고있었다.

한밤중에 여기저기서 성냥총을 맞고 앗 따거워, 앗 따거워 하는 비명이 울리자 듣는 동무들은 곁에서 좋아라고 웃어댔다.

1996년 2월 28일 (수요일)

오늘은 오후행군이 힘들었다.

성간에서 강계사이의 70여리로정에 놓여있는 불길령을 오후에 넘었다. 경사가 급한데다 눈이 무릎을 치는 험한 령이였다.

대렬의 맨 뒤에서 녀동무들을 부축하던 나는 우에서 선생님이 찾는다기에 령중턱으로 급히 치달아올라갔다.

턱이 진 경사면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손목을 하나하나 잡아 끌어올리고있었다.

내가 당도하자 선생님은 숨이 차서 말씀은 못하고 맞은편에서 협조해달라고 눈짓했다. 나는 솜신코숭이로 발홈을 만들고 올라오는 동무들한테 손을 내밀군 했다. 마감동무까지 끌어올리고나니 털모자를 쓴 이마에 땀방울이 내돋았다.

떨어진 학생이 없는가 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며 길옆으로 나서시던 선생님이 그만 발을 잘못 짚어 비탈면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갔다.

《선생님!》

다급히 부르며 달려가던 나도 미끄러지며 눈판에서 딩굴었다.

나는 인차 일어나지 못했다. 배낭을 두개씩이나 지였으니 몸이 둔할수밖에 없었다. 먼저 일어나 나를 붙안아일으키던 선생님이 놀랐다.

《아니, 무슨 배낭이 이렇게 무거워요?》

선생님은 다른 동무의 배낭밑에 있는 나의 배낭을 만져보며 의아해했다. 내 배낭속에는 아직도 선남동무의 짐이 그대로 있었다.

선생님이 내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보려는것을 나는 고집스럽게 배낭끈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은 배낭우에 얹혀있는 다른 동무의 배낭이라도 달라고 했다.

나는 조금 가다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부를 내놓고야 배낭을 벗어드렸다.

령마루에 올라섰다.

선생님이 땀배인 이마를 닦아주며 물었다.

《철민이, 힘들지?》

나는 선생님을 마주보며 머뭇거렸다. 어쩐지 그 정겨운 눈빛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싶지 않았다.

《예, 좀 힘듭니다. 하지만 의지로 이겨냅니다.》

《그래, 의지로 이겨내겠지. 그렇지만 그런 의지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건데…》

나는 불쑥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구성에서 나서자랄 때의 일이 영화화면처럼 지나갔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을 곱게 키우지 않았다. 특히 맏이인 나에게는 무자비할 정도로 엄했다. 내가 유치원에 다니던 그

나이때부터 집에다 철봉, 수직바줄, 경사사다리 등을 설치해놓고 체력단련을 시켰다. 여섯살때라고 생각되였다. 그날 지붕에 설치해놓은 경사사다리를 오르던 나는 다리가 떨리고 무서워서 가름대를 붙잡고 더 오르지 못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회초리를 든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그냥 내려올 생각은 아예 말아!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아야 해.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나는 끝내 지붕꼭대기까지 올라 만세를 불렀다.

내가 여덟살나던 해에 우리 집은 사택마을과 좀 떨어진 새집에 이사했는데 5년동안 수도관을 늘이지 않고 물을 길어먹었다. 그것은 순전히 아버지가 나와 동생 철준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이였다. 큰 물독과 작은 물독을 부엌에 들여놓고 큰 물독은 내가, 작은 물독은 동생이 채우게 했다.

큰 공장의 당일군이였던 아버지는 가정일에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절대로 삐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고 나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다. 터밭농사, 박우물청소, 돼지우리청소, 구멍탄찍기, 미장, 대패질… 우리 마을에는 샘물고개라는 높지 않은 령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5리가량 되였다.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매일 아침 그곳까지 달려갔다오게 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아버지는 사정을 보지 않았다.

나는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렸다.

선생님은 걸음을 옮기면서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의미깊은 이야기를 했다.

《70여년전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나서시였던 대원수님의 이 길도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요구성을 따르신것이였지. 그러고보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다 만경대가문의 혈통을 닮는다고 말할수 있어. 철민인 그런 훌륭한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여야 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인젠 앞으로 나가요. 힘이 나게 노래를 부르세요.》

나는 대렬 중간쯤 가서 노래선창을 뗐다.

은혜론 품에 안겨 자라난 청춘들
혁명의 교대자로 대를 이어 나섰다
…

노래는 합창으로 변하여 눈덮인 밀림을 뒤흔들었다.

한별을 지켜싸운 선렬들의 그 정신
청춘의 가슴마다 붉은 피로 끓는다
…

1996년 3월 2일 (토요일)

오가산령을 넘고 월탄리를 거쳐 우리는 드디여 광복의 천리길 마감지점인 포평에 도착하였다.

아, 포평! 력사의 땅!

포평나루터의 비문을 읽어주는 강사의 목소리가 나의 심장을 쿵쿵 울렸다.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을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신 **김일성**대원수님!

그때 대원수님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시였다. 하지만 그이의 가슴속에는 일제놈들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었다.

나는 대원수님께서 품으시였던 숭고한 그 뜻을 심장에 새기고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참된 아

들이 되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히였다.

4. 내가 기쁠 때

봄이 왔다.

이해의 봄은 철민에게 있어서 류다른 봄이였다. 평양에 와서 맞는 첫봄이였던것이다.

평양의 봄은 정말 아름다왔다.

모란봉에는 봄에 피는 꽃들이 많았다. 개나리, 진달래, 살구꽃…

태양절을 앞두고 거리는 꽃천지였다. 거리의 꽃밭들은 봄을 앞당겨 피운 아름다운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였다.

시내중심의 련화중학교의 담장과 꽃밭, 교재림에도 새노란 개나리와 연분홍빛진달래가 활짝 폈다. 키높은 은행나무에는 새움이 트고있었다.

전과목 최우등으로 5학년을 졸업한 철민은 이봄에 졸업학년인 6학년에 올라갔다.

새 학년도 개학을 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옥련선생은 철민을 교원실로 조용히 불렀다.

《철민학생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하는데 감당할수 있겠어요?》

철민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배심있게 대답했다.

《선생님, 전 아무거나 다 자신있습니다.》

옥련선생은 웃는 얼굴로 철민을 바라보며 《힘든거예요.》했다.

그리고는 책상우에서 6학년 4반이라고 밝힌 새 출석부를 끌어당겨 펼쳤다. 방금 오고간 대화는 잊은듯 출석부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이윽고 옥련선생은 철민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난 철민이가 우리 6학년 4반의 학급장이 되였으면 해요.》

《예?》

철민은 놀라서 엉거주춤 일어났다.

새곳에 와서 1년도 못되여 다시 학급장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저… 그럼 영성동문?…》

《영성인 통솔력이 약해서 학급장으론 적합하지 못하다는것이 초급단체위원동무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예요. 그래서 난 구성시 룡흥중학교의 이름난 학급장이였던 철민일 지명했어요.》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과도 토론하고 결심이 서면 찾아오세요.》

철민은 날듯 한 기분으로 집에 왔다.

형이 싱글싱글 웃으며 들어서는것을 보고 동생 철준이가 영문도 모르며 함께 기뻐했다.

《형, 오늘 좋은 일 있은게구나.》

《응, 나 이제 학급장 돼.》

《정말이야?》

《그럼.》

《야, 난 아직 학습반장자리두 못 땄는데 형은 역시…》

철민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철준아, 너 아직까지두 새로 왔다구 해서 축에 못 끼우는게 아니야?》

철준은 반발했다.

《형, 날 그렇게 한심하게 보지 말라.》

철민은 웃으며 철준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좋아, 내 동생 철준이다와! 절대로 주눅이 들어선 안돼. 기본은 모든 일에서 주동에 서는거야.》

《알겠어.》

아버지가 퇴근해오자 철준은 마치 제가 무슨 큰일이나 친듯 떠들어댔다.

《아버지, 형이 학급장 됐대요!》

아버지 리응석은 덤덤한 표정이였다.

저녁식사를 하고나서 철민을 불러앉혔다.

《그래, 정식 학급장으로 선거됐니?》

《아직은… 선생님은 내 의향을 물었어요.》

《지금 학급장하고있는 애는?》

《영성인 통솔력이 없는데다 몸두 약하지, 그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두 못 갔는데요 뭐.》

철민은 아버지의 표정이 이그러지는것을 보았다.

《조직과 집단의 믿음으로 학급장이 되는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동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것은 옳지 않다. 넌 영성이라는 그 애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았니? 그 앤 분명 괴로워하고있을게다. 자기가 쉬울 때 동무의 힘든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웃을 때 동무가 울수 있다는것을 헤아릴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동무라고 말할수 있다.》

철민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언제인가 아버지에게서 종아리를 맞던 일이 생각났다.

룡흥중학교 1학년때였다. 철민이네 학급동무들은 수업후에 주변농장의 가을걷이를 도와주러 갔다가 돌아오고있었다. 그때 공장당비서인 아버지의 차가 철민이곁에 멈춰섰다. 운전사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자 철민은 차안에 아버지가 없는것을 보고 서슴없이 올라탔다. 사연을 알고 저녁에 퇴근해온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철민이더러 종아리를 걷어올리라고 하였다.

《네 어머니도 아직 그 차에 앉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네가 감히, 동무들을 버리고 너 혼자만 타고오면 함께 걸어오던 그 애들이 갑절로 힘들것이라는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니?

그리고 아버지를 턱대고 네가 그런 특세를 부리면 친하던 동무들과도 인차 멀어진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철민은 절대로 아버지의 차를 넘겨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질책은 그때의 회초리보다 더 호된것이였다.

철민은 광복의 천리길답사를 떠나던 날 역에 따라나와 자기들을 바래주던 영성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가지 못하는것이 너무 아쉽고 분해서 눈물이 그렁해있던 영성이, 난 그저 병치료나 잘하라는 식으로 동정의 말 몇마디 해주었지, 그때 영성이에게 같이 가자고, 업고라도 가겠다고 등을 돌려댔더라면 영성인 기뻐서 따라섰을지 모른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못했지. 자기 기분에만 취해서 동무의 아픈 마음을 알려고도 안했지. …

다음날 철민은 옥련선생을 찾아갔다.

《선생님, 제 생각엔 영성동물 그냥 학급장 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곁에서 잘 도우면 되잖겠습니까.》

옥련선생은 의문스러워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였어요?》

《전 영성동무에게 뜨겁지 못했습니다. 그가 앓을 때 동정이나 했을따름이지 진심으로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에도 그는 몹시 가고싶어했습니다. 만약 그때 저를 비롯해서 학급동무들이 함께 가자고, 우린 너를 업고라도 꼭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면 영성동문 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영예로운 그 대오에 우리와 함께 섰을것입니다. 이제 영성동무가 학급장까지 그만두게 된다면 얼마나…》

옥련선생은 대견한 눈길로 철민을 바라보았다. 16살, 아직은 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그 나이에 남의 괴로움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줄 안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였다.

《동무를 생각하는 철민학생의 그 마음은 찬양할만 한것이예요. 하지만 우리 매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것을

알아야 해요. 집단의 리익을 위해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으며 하고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거예요. 우린 철민학생이 6학년 4반이라는 집단을 더 잘 이끌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에 추천하는거예요. 그리고 영성학생도 이에 대해 충분히 리해를 했어요.》

며칠후에 철민은 정식 6학년 4반 학급장이 되였다.

5. 홰 불 대 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다가오는 10월 17일에 릉라도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ㅌ. ㄷ》결성 7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고등중학교부문에서는 6학년학생들만 참가하게 되였다. 철민이네는 한달전부터 행사연습을 하고있었다.

그날 선희는 오래간만에 늦잠을 잤다. 할머니가 깨우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라도 내처 잤을것이다.

《얘 선희야, 선희야, 인젠 일어나거라. 짐을 다 꾸려놓았으니 한번 보거라.》

선희는 간신히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앉았다. 발치에 짐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당과류배낭, 과일구럭, 빵구럭…

《야, 벌써 다 준비해놨구나. 우리 할머니가 제일이야!》

선희는 할머니의 목을 그러안았다.

《원 계집애두. 얘, 그런데 이 많은걸 혼자서 가져가내겠니?》

《일없어요. 아버지의 친구인 그 승용차운전사아저씨와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힘이 세거던.》

으시대며 한껏 기지개를 켜던 선희는 별안간 《아야야!》하고 신음을 지르며 어깨박죽을 어루만졌다. 홰불봉을 쳐들고 매일같이 행진훈련을 하다나니 켕긴 어깨힘살에서 아픔

이 왔던것이다.
《원, 쯧쯔— 내 좀 주물러줄게.》
할머니가 혀를 차며 팔을 뻗치려고 하자 선희는 도리질했다.
《됐어요. 난 더 잘래.》하고 다시 드러누웠다.
《9시까지는 도착해야 된다면서?》
《일없어요.》
선희는 눈을 감았으나 이미 잠기는 달아나버렸다.
그는 오늘 힘들게 행사훈련을 하는 학급동무들을 위해서 후방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었다. 어려운 때여서 점심에 죽을 싸들고 오는 동무들도 더러 있었다.
그는 늘 점심밥을 두개, 세개씩 싸가지고 가군 했다. 오늘은 할머니에게 말해서 품을 놓고 먹을것들을 장만했다. 선생님에게는 훈련시간에 지장이 없이 도착하겠다고 했으나 피로하고 또 지고 갈 짐이 적지 않으니 생각이 달라진다. 이 기회에 잠간 몸의 긴장을 푸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고 또 이런 일로 조금 늦어진데 대해서는 누구도 탓하지 않을것이다.
행사훈련은 정말 힘들었다. 가을철이라지만 아직 낮에는 한여름이나 다름없이 볕이 따겁다. 그속에서 딱딱한 구령에 맞추어 끊임없는 반복동작을 수행한다.
선희는 반나절이나 침대에서 뒹굴다가 일어났다.
아버지의 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였다. 약속한 시간에 아빠트밑에 와서 경적을 울리는것이였다. 선희는 할머니와 함께 짐을 끌고 내려가 승용차에다 짐을 싣고 눈깜짝할 사이에 훈련장에 당도하였다.
마침 점심시간이였다. 길옆 청량음료매점에서 에스키모를 학급인원수만큼 샀다. 땀흘린 동무들에게 에스키모부터 하나씩 들려주면 더 좋아할것이다.
그런데 늘 학급이 모여 점심밥을 먹는 장소에 가서 한동안 기다려도 동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곁을 지나가는 다른 학급동무에게 물어보니 6학년 4반은 따로 떨어져 훈련하고있다

고 한다. 그가 가리켜주는 훈련장소가 멀지 않아 하는수없이 짐을 들고지고 질질 끌다싶이 하며 그곳에 갔다.

소대장 (행사훈련기간에는 대렬책임자들을 군대식으로 소대장 혹은 중대장으로 불렀다.) 철민이가 별이 내려쪼이는 아스팔트에 대렬을 세워놓고 훈련을 주고있었다. 담임선생님은 련화중학교 총 대렬책임자여서 학급 하나만을 관심할수 없기때문에 소대장인 철민이가 다 맡아하고있었다.

선희를 띄여보고 해가림모를 벗어쥔 철민이가 달려왔다. 땀이 철철 흐르는 얼굴이다.

《왜 이렇게 늦었어?》

말투가 거칠었다.

선희는 감촉하지 못하고 발치의 짐을 가리키며 수선을 떨었다.

《아휴— 이 많은걸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혼난줄 알아.》

철민의 낯이 사납게 이그러졌다.

《동문 초급단체위원장이 맞아?》

《뭐?!》

《이따윈 필요없어. 어서 대렬에 들어서!》

선희는 모욕감으로 낯이 불붙는것 같았다. 체면을 지켜야겠기에 어쩌는 수없이 대렬에 들어섰다.

동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야 철민이 그렇게 분노한 까닭을 알게 되였다.

련화중학교 6학년중대는 홰불야회 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ㅌ. ㄷ》를 홰불로 새기게 되여있었다. 오전에 총 관통을 했는데 선희가 없어서 그 자리에 예비인원을 대신 넣었었다. 그런데 훈련이 부족한 그가 신속정확히 움직이지 못해 총지휘자선생님으로부터 오전훈련총화때 지적을 받았다. 그것도 련화고등중학교 6학년 4반소대라고 꼭 찍어서…

그러니 철민이가 가만 있을리 없었다.

그 어떤 일에서도 학급이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참지 못

하는 철민이였다. 그가 학급장이 되여서부터 규률이 없기로 소문났던 6학년 4반은 모든 면에서 전교의 모범학급으로 되였다. 얼마전에는 구역적인 외국어학과경연에서 학급전체가 1등을 하였다. 선희는 이젠 학교청년동맹초급위원회에 가면 늘 칭찬만 받는다. 그것이 학급장인 리철민의 노력의 결과이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선희였지만 자기에 대한 조금전의 그 태도만은 내려가지 않았다.

《하나, 둘, 하나, 둘… 뒤줄이 자꾸 처진다, 잦은걸음으로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어느덧 선희는 철민의 갈리다못해 쉬여버린 그 구령소리에 감심하여 초급단체위원장으로서의 위치를 되찾았다.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

×

철민은 소대장들로 조직하는 지휘부모임에 참가하고 늦게야 훈련장을 빠져나왔다. 오늘은 병원에 들려야 했다. 어머니가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었다. 아버지마저 출장중이여서 그에게는 힘에 부치는 소대장사업과 자질구레한 집안일까지 덮씌워졌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그런 까닭에 늘 잠이 모자랐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도 전동차안에서 잠에 들었다가 마감역에 가서야 후닥닥 놀라 일어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좀처럼 짬을 낼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자주 가보지 못했다.

오늘은 벼르고벼르던 날이다. 등에 진 배낭가방안에는 동무들이 저마다 넣어준 통졸임이 5개나 된다. 그것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가 걸음을 가볍게 한다.

릉라다리계단을 내려서서 지하철도역인 통일역을 가까이했을 때였다. 앞에서 행사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학생들

이 한무리 둘러서서 변이 난듯 떠들고있었다.

철민은 달려가서 그들을 헤집고 들여다보았다. 녀학생 하나가 배를 그러쥐고 쓰러져서 아픔을 호소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있는것은 다 남학생들뿐이여서인지 누구도 선뜻 손을 뻗치려 하지 않는것이였다.

《비키라!》

철민은 소리치며 사납게 눈을 부라리였다.

《구경만 하고있으면 어떡해!》

주저없이 배낭가방을 벗어놓고 녀학생을 둘쳐업었다. 숨이 턱에 닿아 아동백화점앞도로에 다달으니 교통보안원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세워주어 환자인 녀학생과 함께 탔다.

운전사는 가까운 1병원정문에다 그들을 부려놓았다. 차안에서 환자가 간신히 짜내는 소리를 듣고야 철민은 그가 자기학교의 6학년 1반 녀학생 류정란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를 업고 구급치료실로 들어갔다.

급성충수염으로 진단이 내려져 수술실로 옮겨졌다.

철민은 어쩌는 수없이 녀학생의 보호인이고 립회인이 되여야 했다. 수술을 하는 동안 철민은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나와 앉아있었다. 동생들한테 어머니에게 갔다가 8시전에는 집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수술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알수 없다.

얼마후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6학년 1반의 남녀학생 예닐곱명이 닥쳐들었다. 그들중에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때 대렬에서 떨어졌던 그 《꼬마》도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학성이였다. 철민은 답사행군후에 그와 친숙해졌다. 그가 죄를 지은듯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가와 말했다.

《철민아, 할말이 없다. 우린 아까 제 학급동무가 고통스러워하는것을 눈뜨고 보면서도 녀동무라는 생각에 선뜻 나서서 업지 못했어.》

《뭘그래. 당황하면 그럴수 있는거지. 마침 너희들이 왔으

니 난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수술이 끝나면 정란동무에게 빨리 완쾌되여 홰불행사에 꼭 참가하기 바란다고 전해줘.》

병원을 나서면서야 철민은 등이 허전해진것을 느꼈다. 어머니에게 가져갈 통졸임통이 들어있는 배낭가방이 없어진것이다. 아까 녀동무를 업을 때 벗어놓던 기억이 났다.

아쉬웠다. 하지만 사연을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되려 기뻐할것이다.

병원정문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녀동무가 있었다.

《철민동무!》

고개를 수긋하고 지나치던 철민은 그가 찾는 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선희였다. 그의 손에 자기의 배낭가방이 들려있었다.

철민은 점심시간에 많은 후방물자를 가지고 나타났던 선희를 차겁게 대하던 일이 돌이켜져 마주보기가 멋적었다.

《고마워.》

배낭가방을 받아 한쪽어깨에 걸메였다.

둘은 가로등밑을 나란히 걸었다.

《철민동무, 날 용서해주겠어?》

《뭘?》

철민은 시치미를 떼고 반문했다.

선희는 뾰로통해서 고개를 돌렸다.

철민은 선희의 약을 올려주고싶었다.

《그걸 말하자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런데 선희는 한수 더 뜬다.

《글쎄…》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

10월 17일, 《ㅌ. ㄷ》가 고고성을 울린 그날부터 70돌기년륜을 새긴 그날 저녁, 5월1일경기장에는 홰불바다가 펼쳐졌다. 수백만 청년학생들의 불타는 심장이 홰불로 타오른것

이다.
그 홰불대오속에 우리의 주인공 리철민도 있었다.

6. 교정에 심은 감나무

철민은 구역적으로 진행하는 졸업반 학생들의 웅변모임에 출연할 과업을 받았다.
웅변모임의 주제는 《리수복영웅과 나》였다.
그는 며칠동안 웅변원고를 준비하느라고 고심하였다. 생각은 뻔한데 글은 잘되지 않았다. 머리를 쥐여짜서 간신히 뭉그린것을 옥련선생에게 보였다.
옥련선생은 읽고나서 웃기부터 했다.
《이거야 어디 숨이 차서 읽겠어요. 웅변이라는것은 웨치고 토로하는것만 아니예요.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써야 해요. 그러자면 계기를 잘 잡아야 하는데…》
철민은 낯이 컴컴해졌다. 그래도 글쓰기에서는 제노라고 하는 그였다. 얼마전에는 자기가 쓴 서정시가 《새날》신문에 실리기까지 했었다.
그날도 혼자 남아서 끙끙 갑자르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교실을 나섰다.
《철민아!》
학교정문곁에서 누군가 불쑥 나서며 그를 덮쳤다.
철민은 깜짝 놀랐다.
상대를 콱 밀쳐버렸다가 눈이 커졌다.
《나야, 룡흥중학교 뚱보 명식이.》
철민은 밀어버렸던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명식아!》
철민이네가 룡흥에서 이사올 때 너무 따라와서 이사짐을

실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했던 태권도짝패 명식이, 철민은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그에게 입고있던 운동복을 벗어주었었다.

명식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철민이네 집에서는 명식이를 귀한 손님으로 환대했다.

저녁식사후에 철민은 동생들이 성가시게 굴지 않게 자기 방의 문을 안으로 닫아걸고 명식이와 마주앉았다.

《그래 어떻게 왔니? 아직 사회생활은 하지 않으니 휴가라는건 없을텐데.》

명식은 뜨직뜨직 사연을 이야기했다.

《한달전에 평양에서 우리 룡흥중학교에 태권도선수선발을 왔댔어. 그때 난 재수없이 무릎관절이 상해서 선을 못 보였단다. 선수선발왔던 감독이 다리가 나은 다음 다시 보자구 하구서 갔는데 어디 나타나야지. 그래서 내절루 찾아갔댔지 뭐.》

《만났댔니?》

《응. 만나서 시험비슷한걸 치긴 했는데 아무래두 내 이 뚱뚱한 몸이 태권도 적성체질이 아닌 모양이야. 감독은 좀더 도를 닦은 다음 보자구 듣기 좋은 말루 등을 두드려주긴 했지만 내가 그 눈치를 보면 모르겠어?》

《음… 일이 잘되지 않은것 같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니? 졸업할 날두 멀지 않았는데?》

《내려가서 도체육단 문을 두드려봐야지. 여기도 저기도 안되면 군대에나 나가구말겠어.》

마감말이 철민의 귀에 몹시 거슬렸다. 소꿉시절의 다정한 동무가 낯설어보였다.

《넌 선택의 기준이 틀렸다.》

《뭐?》

《가만!…》

철민은 무엇인가 뇌리를 치는것이 있어서 주먹쥔 오른손을

왼손바닥에 쩍 하고 가져다붙이며 일어났다. 웅변글의 실마리가 잡힌것 같았다.

《명식아, 넌 먼저 자라. 하고싶은 말은 래일 마저 하자.》

《철민아, 왜 그러니?》

《난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하고 철민은 책상으로 돌아앉았다.

다음날 아침 철민은 밤새워 쓴 웅변원고를 명식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출연할 웅변원고야.》

웅변원고를 읽고난 명식의 표정이 무거워보였다.

《이걸 보니 선택의 기준이 틀렸다고 한 너의 말뜻이 리해되누나.》

《알았으면 난 더 할말이 없다. 어쨌든 넌 내가 고심하던 웅변글의 실머리를 튕겨주었다. 하하하.》

그로부터 며칠후 철민은 청년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졸업반 학생들의 웅변모임 《리수복영웅과 나》에서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다.

《동무들! 나는 이야기에 앞서 리수복영웅의 시를 읊겠습니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영웅은 최후를 앞둔 그 순간 이 시를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놓고 적의 화점을 맞받아나갔습니다.

18살, 그 꽃나이에 말입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영웅은 꿈이 많았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세세년년 풍작을 불러올 농학박사도 되고싶었고 아름다운 고향과 조국을 노래하는 시인도 되고싶었습니다. 그러나 영웅에게는 그 신비로운 꿈과 희망이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검은구름이 몰려오자 남먼저 전선으로 탄원했던것입니다.

우리도 리수복영웅이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선으로 탄원했던 그 나이입니다.

졸업을 앞둔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꿈과 희망우에 조국보위라는 성스러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철민의 웅변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철민은 연단을 내리며 자기가 애초부터 인민군대에 나가기로 결심한것은 백번 잘한 선택이라고 다시금 절감했다.

×

봄철위생월간을 맞으며 전교가 떨쳐나 꾸리기사업에 달라붙었다.

철민은 학급이 맡은 구간을 제꺽 끝내고 자진하여 파손된

망홀뚜껑제작에 달라붙었다. 일부 학급동무들은 고생을 사서 하게 되였다고 불평을 부렸다. 그러거나말거나 철민은 일을 내밀었다. 분조별로 분담을 하고 엄격히 총화를 지었다. 뚜껑제작은 그가 하였다. 철민이라고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 있을수 없었다. 다만 구성에서 아버지네 공장로동자들이 여러가지 철근콩크리트구조물들을 제조하는것을 보았을뿐이였다.

망치로 두드려 철판과 철근으로 모양을 만들고 세멘트혼합물을 부었다. 며칠후 틀을 떼고 망홀뚜껑을 맞추는 날엔 교장선생님까지 나와보았다. 겉면에 《6학년 4반에서 제작》하고 새겨넣으니 처음에 실뚱해하던 동무들도 보람있는 일을 했다는 기쁨에 넘쳐있었다.

철민은 성차지 않았다. 졸업하면서 교정에 무엇인가 특색있는 표적을 남기고싶었다.

철민은 선희와 의논하고 초급단체위원들의 모임을 열고 토론에 붙였다. 한결같이 나무를 심자는 의견이였다. 철민이도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바다가초소의 녀성고사총중대에 가시여 병영마당에 열린 붉은 감알들을 보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영상을 텔레비죤화면으로 뵈옵던 일이 떠올랐다. 이제 언제든 장군님께서 우리 학교에도 오시면 교정에 열린 감알들을 보시며 누가 심은것인가고 물으실테지, 그러면 선생님과 후배들은 6학년 4반 리철민이네 학급이 심었다고 말씀드릴것이다.

철민은 흥분되여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학교현관 량옆과 교재림에 감나무를 심기로 합의하였다.

나무모를 구해오고 부식토까지 준비해놓은 어느날 오후에 온 학급이 감나무심기에 달라붙었다.

남동무들은 구뎅이를 파고 녀동무들은 물을 길었다.

옥련선생도 음악소조일을 뒤로 미루고 나왔다.

모두 성수가 났다.

물을 길러갔던 선희가 《선생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며 물바께쯔를 놓고 달려왔다. 선희는 옥련선생곁에서 삽질을 하고있는 철민의 눈치를 보면서 무엇인가 망설였다.

《누군데?》

옥련선생은 일손을 놓지 않고 물었다.

선희는 선생님의 팔굽을 살짝 잡아당겨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옥련선생이 선희가 손짓하는쪽으로 걸어가는것을 얼핏 띄여보던 철민은 정문곁에 멋쟁이차림을 하고 서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어딘가 낯이 익었다.

선희가 새물거리며 철민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을 찾아온 손님이 누구인줄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철민동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뭘?…》

선희는 낮은 소리로 귀띔했다.

《선생님의 애인!》

철민은 픽 웃었다. 얄밉게 웃는 선희를 흘겨보며 내쏘았다.

《그따위 심부름은 왜 하는거야?!》

선희는 까르륵거리며 달아났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

올해 설날이였다. 철민은 학급동무들과 함께 옥련선생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선생님네 집안공기가 이상했다. 큰방에 집식구들이 모여있다가 자기들이 우르르 밀려들자 어찌할바를 몰라하는것이였다.

집식구들속에 낯모를 사람이 있었다. 체격이 좋고 얼굴이 멀끔한 사나이와 마주 앉아있던 선생님이 낯이 빨갛게 되여 일어났다. 철민은 딱히는 알수 없으나 자기들이 오지 말아야 할 시간에 왔음을 느꼈다. 선생님의 어머니가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희 선생님의 신랑될 사람이 와서 그러니 너희들은 저쪽방에 좀 가있어라.》

철민은 자기들이 눌러앉으면 선생님은 물론 온 집안사람들이 따분해할것이라고 짐작했다. 동무들에게 가자고 눈짓했다. 새해를 맞는 선생님을 축하해서 노래까지 준비해가지고 왔던 그들이였다. 철민은 까닭모를 불만이 솟구쳤다. 신랑인지 뭔지 하는 사람은 왜 오늘같은 날 와있는거야?

옥련선생이 붙잡는것을 뿌리치고 복도에 나왔다. 인사를 하고 등을 돌리면서 볼부은 소리로 말해두었다.

《선생님,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는 절대로 시집가면 안됩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선희가 까박을 붙였다.

《철민동문 왜 그런 소릴 해서 선생님을 난처하게 해?》

《그럼 동문 선생님이 우릴 버리고 가시면 좋아라고 춤 추겠어?》

《…》

《내가 룡흥중학교 1학년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시집가는 바람에 우린 거의 1년동안 〈고아〉가 된적이 있었어.》

《여기 평양에선 시집을 가도 시내를 벗어나지 않으니 일없을거야.》

《맹추같은거, 그래두 우리하구 정이 멀어질것 아니야.》

사실 옥련선생은 그때 정말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고 한다.

그자신은 결혼을 해도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일이 없을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철민의 《엄포》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남편될 사람에게 철민이네를 졸업시킨후 결혼하자고 했다. 본인은 리해를 했는데 시부모될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구실이 어데 있는가고 어이없어했다.

나이 30이 가까와오는 딸을 두고 조바심을 치던 옥련선생의 어머니는 더했다. 아무리 아이들한테 미쳤어도 잔치는 미

루지 못한다고 강박했다. 하지만 옥련선생은 철민의 말을 곱씹어보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옥련선생은 철민이네를 졸업시킨 그해 가을에 가서야 결혼식을 했다고 한다.

그 내막을 알리 없는 철민은 옥련선생과 남자가 마주서서 이야기하는쪽에다 심술궂게 눈을 흘깃거렸다.

나무를 다 심고나서 옥련선생은 철민에게 물었다.

《학급장동무, 우리 방금 심은 감나무주위에 모여 사진을 찍는것이 어때요?》

《좋습니다!》

철민이가 달려가서 사진사를 데려왔다.

모두 애어린 감나무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제 4～5년 지나면 이 감나무에 열매가 달릴거예요. 그때에 여기 있는 동무들이 빠짐없이 모여서 다시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읍시다.》

그러자 철민이가 다짐을 받듯 큰소리로 말했다.

《선생님도 꼭 계셔야 합니다!》

×

리철민은 많은 졸업생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나갔다.



제2장. 군공메달

나는 취재를 시작하면서 리철민영웅이 복무한 군부대에 먼저 찾아가보려고 했었다. 리철민고급중학교에 갔던것은 차편이 생기지 않아 기다리던중 불쑥 내린 결심이였었다. 영웅의 모교에서 담임교원과 동창생으로부터 영웅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얻게 된 나는 취재로정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취재수첩을 펼치고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어놓은 어느 한 인물의 이름에 시선을 박았다.

박호진, 영웅과 군사복무를 했으며 영웅이 희생될 당시 분대장이였다. 현재는 중부지대 산골군의 어느 한 농장 작업반장이라고 한다.

나는 곧 그리로 떠났다.

ㅎ협동농장은 군에서도 막바지에 위치한 자그마한 벽촌이였다.

군당에 들려 박호진에 대한 초보적인 료해를 한 나는 려관에서 쉬고 다음날 그곳으로 가는 차편을 리용하라는 군당일군의 권고를 물리치고 오후에 길을 떠났다. 군당일군은 뙤약볕에 50리나 되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는가고 걱정했지만 아직 젊은데다 산골태생인 나는 그 정도의 행군쯤은 별로 겁나지 않았다. 군당일군이 걱정할만은 했다. 복더위가 한창인 때여서 날씨는 무더웠다.

일이 될때라 10리도 못 가서 ㅎ농장을 지나가는 화물자동

차를 얻어타게 된 나는 아직 해가 한발이나 남아있는 때에 농장에 당도하였다. 관리위원회에 가서 박호진의 행처를 알아보았다. 리소재지 작업반의 작업반장인 그를 인차 만났다. 그는 이삭을 빼물기 시작한 강냉이밭주변에서 농장원들과 함께 장마피해를 막기 위해 물도랑을 치고있었다. 크지 않은 키에 몸이 다부지고 어딘가 고집스럽게 생긴 사람이였다.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면 일을 젖혀놓고 호응할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나를 시답지 않은 손님처럼 발머리에 한정없이 세워놓고 제할일을 다 했다. 작업반실에 가서는 분조장들의 사업총화가 끝날 때까지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기다려야 했다. 날이 어슬어슬해진 저녁무렵에야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말을 시켜보았으나 그는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물고 묻는 말에만 짤막짤막 대답할뿐이였다. 나는 그런 그를 좋게 생각할수 없었다. 희생된 전우에 대한 작품을 쓰려고 불원천리 찾아왔는데 무엇이 못마땅스럽단 말인가. 한편으로는 무슨 사연이 있을것이라는 짐작을 했다.

식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웃방에 올라가서야 그는 미안쩍은 소리를 했다.

《리해해주십시오. 난 누가 철민동무에 대해서 물으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울적해지군 합니다. 철민동무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내 허물을 들추어내야 하니까요. 작가선생한테야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해야 할텐데 내 마음속 부담이 어떠하리라는거야…》

나는 웃으며 그의 말을 중둥무이시켰다. 취재를 다니면서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한 나였다. 보다는 그가 매우 솔직한 사람이라는데 마음이 놓였다.

그가 여유를 가질수 있게 담배를 권했다.

그는 담배를 붙여물고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리철민동무보다 나이도 우이고 복무년한도 썩 우였습

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보다 어렸습니다.》

1. 잠복초의 밤

신병훈련을 마친 리철민이가 최전연초소중대에 온지 얼마 안되여 중대에서는 두가지 사변적인 일이 있었다.

하나는 사관장이 만기복무를 마치고 중대를 떠난것이였고 다른 하나는 철민이가 배속된 1소대 1분대의 잠복초가 적에게 로출된 매우 상서롭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것이였다.

신입대원은 얼마간 초소생활에 익숙된 다음 잠복근무에 내보내는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어느날 철민은 소대장방을 지나치다가 열린 문안에서 오늘 근무에 내보낼 대원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있는것을 엿듣게 되였다. 철민은 주저없이 방으로 뛰여들었다.

《소대장동지, 전사 리철민 만날수 있습니까?》

《?》

《절 잠복근무에 내보내주십시오.》

방에는 소대장외에 부소대장과 철민의 분대 분대장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이 당돌한 신입대원의 외모를 뜯어보기만 했다.

얼마후 얼굴이 길쑴하고 턱이 굳세여보이는 소대장이 결단성있게 말했다.

《전사동무의 요구대로 해줍시다.》

철민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소대장방을 나왔다.

말복을 앞둔 무더운 여름밤이였다.

잠복조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지정된 곳으로 가고있었다.

앞에는 잠복조장인 분대장이 서고 중간에는 하사, 맨뒤에서 전사인 철민이가 따르고있었다.

철민과 함께 중대에 온 동무들은 내막을 모르고 그를 동정했었다. 오점을 남긴 구멍의 《쐐기》가 되였으니 운수가 매우 나쁘다고.

철민은 코방귀를 뀌였다.

앞의 상서롭지 못한 사건이 자기에게 그대로 전가될수는 없는 이상 아주 잘된 일로 판단했다. 남다르게 첫걸음을 떼게 된것이였다. 그는 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동정하는 동료들을 비웃었다. 이제 두고보라, 오늘의 《나쁜 운수》가 행운을 가져다주지 않는가를.

그의 이 심리에 적극적인 작용을 한것은 지금 몇걸음 앞에서 걸어가고있는, 키가 겨우 자기 귀밑에 오고 어깨가 딱 바라진 귀밑눈의 하사였다. 이름은 박호진, 룡흥중학교때 학급의 말썽꾸러기와 꼭같은 이름이여서 제꺽 기억했다.

그가 아까 근무에 나오기 전에 철민을 매우 맞갖지 않게 훑어보며 투덜거렸었다.

《제길, 잠복호를 굴설해야 하는데 신입대원이 끼여들다니. 동무가 자진했다면서?》

《그렇습니다.》

《잔뜩 뗬구만. 하긴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 하지만 후회하진 말라구.》

철민은 은근히 약이 올랐다.

《걱정마십시오. 적어도 제 몫은 할수 있습니다.》

박호진하사는 들은둥만둥 입을 쩝 다시며 다시금 철민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딴 소리를 했다.

《철민이라고 했던가, 땅딸보인 내가 시샘이 날 지경으로 인물체격이 그쯘하구만. 하지만 알아두라구. 겁쟁인 우리 분대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걸. 그리고 난 걸만 번지르르한건 딱 질색해!》

철민은 코를 찡긋하며 알릴듯말듯 웃었다. 그것은 철민이가 상대를 얕잡아볼 때 짓군 하는 배심든든한 표정이였다.

그가 그것을 어렵지 않게 넘겨짚고 철민의 어깨를 돌덩이같은 주먹으로 쿡 질렀다.

《좋아, 배짱이 맞을것 같애!》

그렇게 떠난 걸음이였건만 철민은 머리칼이 일어설 지경으로 엄습하는 공포를 도저히 쫓아버릴수 없었다.

여기는 최전연이다. 적과의 경계를 지어놓은 가시철조망이 옆구리를 스칠듯 바투 있었다. 사위는 지독스럽게 어두웠다. 이따금 바람이 불 때마다 철조망 저쪽에 키높이 자란 이름모를 풀대들이 꿈속의 괴물처럼 흔들거리며 괴이한 소리를 낸다. 그속에서 금방 무엇인가 튀여나올것 같다. 심장이 방망이질한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사 박호진이 걸음을 멈추었다.

다가온 철민의 귀에 대고 낮은 소리로 꾸짖었다.

《철민동무, 본래 그렇게 걸음이 굼뗘? 간격을 유지하라.》

《알았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큰소리로 대답했던것 같았다. 박호진의 넙적한 손이 철민의 입을 쩍 하고 감쌌다.

철민은 숨이 넘어가는것만 같았다. 비칠했다가 간신히 자세를 유지했을 때에는 박호진이 눈앞에 없었다.

철민은 입술을 짓씹으며 자신을 저주했다. 쫄렁거릴 때 같아선 당장 철조망 건너편에 뛰여들어 적의 덜미라도 거머쥘것 같더니…

신입병사들이 중대에 도착한 그날 오후였다. 배속된 구분대병실에 가서 배낭을 풀어놓고있는데 모엿구령이 내렸다. 대렬을 정렬시킨 중대장은 말했다.

《동무들, 오래동안 중대와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믿음직한 전우이며 병사들과 사관들의 맏형과 같았던 특무상사 조순철동무가 오늘 제대되여 중대를 떠나게 됩니다. …》

곧 키가 구척이고 눈이 부리부리한 사관장이 대렬앞에 나섰다. 그는 대렬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젖은 소리로 말했다.

《동지들! 빨간 령장을 달고 중대에 배치되여왔던 그날 저는 기어이 일당백병사가 되리라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아직 가시철조망이 있고 원한의 분계선표말은 그대로 박혀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

난 군복은 벗지만 선서를 한 군인임을 순간도 잊지 않을것입니다. 결전의 시각이 오면 내가 섰던 이 초소에 다시 오겠습니다. 동지들, 초소를 부탁합니다!…》

말을 마친 사관장이 1소대 1분대의 맨 끝에 서있는 철민에게로 다가왔다.

《전사 리철민!》

사관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철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철민은 창황중에도 선입감이 뿔처럼 돋아났다. 이 사람이 날 못미더워하누나.

《사관장동지, 초소는 념려마십시오!…》

철민은 무엇인가 비상한 말을 잇대려고 했으나 사관장이 어깨를 꾹 누르고 돌아서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말았다.

철민은 분명 이렇게 덧붙이려 했었다. 《사관장동지, 당장이라도 명령을 주십시오. 전 무엇이나 자신있습니다.》…

철민은 지금 그때의 자신에 대고 쓴웃음을 짓고있었다.

얼마후 잠복조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로출된 잠복호가 필요없게 된 이상 새 잠복호굴설부터 해야 했다.

각기 등을 돌려대고 작업에 착수하였다.

철민은 공병삽 한기장도 파고들어가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무기장구류를 벗어놓을수 없으니 갑절이나 힘들었다.

땀이 비오듯 했다.

습하고 더운 공기는 되려 호흡에 지장을 준다.

물병의 물을 입에 기울이다가 아예 얼굴에 쏟아부었다.

《철민이, 좀 쉬라.》

분대장이 고개를 돌리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분대장의 권고는 귀등으로 흘렸다.
그로부터 조금후에 박호진하사가 공병삽을 뺏으려 했을 때에는 벌떡 일어서며 대들었다.
《이걸 놓으십시오!》
박호진이 다급히 철민을 눌러앉히며 주먹을 입가까이 가져다댔다.
철민은 그것을 밀어버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를 악물고 삽날을 박았다. 반발심이 솟구쳐서인지 좀전보다 일자리가 났다.
몇시간이나 지났는지 알수 없었다.
분대장이 《작업 그만!》하고 입속말로 지시했을 때 철민은 허리기장만큼 파고들어간 구덩이에 무너지듯 주저앉고말았다.
얼마후 그들은 완공하지 못한 잠복호를 위장하고 예비잠복호로 옮겨갔다.
예비잠복호에 들어가배긴 철민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작업시간이 조금이라도 연장되였더라면 아예 질식되여 일어나지 못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인가 말할수 없는 허전함속에 자신에 대한 경멸감이 남아있는 기운마저 뽑아버리는듯 했다.
신병훈련기간에는 무엇이나 남보다 앞장에서 자신있게 해냈다고 말할수 있었다. 체육, 강행군, 격술… 막히는데가 없어서 분대장의 구두감사를 몇차례나 받았다. 그래서 우쭐해졌는지 모른다.
진짜 적이 코앞에 있는 곳에 오자 허울은 벗겨졌다. 이 리철민이가 풀대가 흔들리는 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한길도 못되는 잠복호를 파다가 넉살이 떨어졌다는것을 알면 친구들이 얼마나 비웃을것인가.
이런 때에 하많은 동무들중에서 선희의 얼굴이 먼저 떠오

른것은 참 이상하고 기분나쁜노릇이였다. 신병훈련때에 그가 보내온 편지는 배낭안의 책갈피에 아직 끼워있을것이다.

…철민동무, 오늘 우리 통계전문학교에서는 원호물자를 마련해 인민군부대에 보냈어요. 우리들의 성의를 받아안고 기뻐할 군인들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철민동무를 비롯한 우리 학급 남동무들이 생각나면서 후회부터 들지 않겠어요. 내가 왜 까닭없이 남동무들을 아니꼽게 보고 흠을 잡지 못해 안달아했을가 하고 말이예요. 아마 우리 남동무들은 속알머리가 못된 이 초급단체위원장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을거예요.

하지만 철민동무, 조국의 방선을 지키는 수많은 군인들 가운데서 련화고등중학교 6학년 4반 남동무들이 으뜸이기를 바라는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녀동무들이라는것을 알아주세요. …

편지의 글줄이 생생히 기억되자 낯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가 내 이 꼴을 보고있다면…

아버지의 엄한 모습이 눈앞에 다가온다.

아버지는 그때 출장중이였다. 철민이가 군복을 입고 떠나기 전날 밤에 어머니에게 바빠서 집에 올것 같지 못하다는 련락을 했었다. 그랬던 아버지가 신입병사들을 태우고 금방 떠나려는 렬차칸에 나타날줄이야.

아버지는 군복입은 철민이를 멀찍이 세우고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이윽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듯 다정하게 그러안으며 말했다.

《…너를 꼭 보고싶어서 만사불구하고 달려왔다. 군복을 입은걸 보니 네 어깨가 더 넓어진것 같구나. …

철민아, 너와 나는 이젠 아버지와 아들이기 전에 혁명동지가 되였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직한 동지인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것을 생각해라!…》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이 되새겨지자 속에 바위돌같은것이 들어앉는감이 들었다. 공포비슷한것이 싹 달아나버린듯했다.

밤이 깊어갔다.

잠복호주위는 꿈속같이 고요했다. 적측의 방송에서 불어대는 무슨 괴이한 음악소리만이 높아졌다낮아졌다하며 기분나쁘게 들려와 귀청을 자극한다.

모기인지 깔따구인지 하는것들은 검질기기도 하다. 철갑모밑에 얼굴만 반쯤 드러내놓았는데 수많은 주검을 내면서도 결사적으로 덤벼든다.

그런 속에서도 눈을 딱 부릅뜨고 앞만 주시했다.

분대장이 철민의 옆구리를 찔렀다.

철민은 자기가 분대장의 철저한 감시밑에 있었던것으로 알고 흠칫 놀랐다. 다시 옆구리를 찔러서야 그가 자기 손에 무선전화기를 들려주려 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분대장은 눈짓으로 수화기를 귀에 대라고 했다.

수화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사 리철민동무, 나 소대장 김충국이요. 이제 확성기에서 무슨 노래가 나오는가 들어보오.》

난데없는 노래소리에 철민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인차 확성기에서 너무나도 귀에 익은 은은한 노래선률이 흘러나왔다.

고요한 강물우에 불빛이 흐르네
못 잊을 추억을 안고 내 마음 설레네
끝없이 걷고싶어라 내 사랑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철민은 무선전화기를 넘겨주고는 자동보총을 두손에 꽉 그러쥐였다.

심장이 높뛰였다.
아, 평양!
눈물이 나왔다.

깨끗한 구슬땀을 내 여기 바치였네
청춘의 푸른 꿈도 여기서 꽃피웠네
…

철민은 두고온 평양을 생각했다.

이밤처럼 평양이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본적은 없었던것 같았다.

3년전 평양으로 소환된 아버지를 따라 이사할 때에는 그저 기쁘고 행복한 생각밖에 없었다. 새 학교에 전학와서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총잡고 전호에 엎드려 평양의 노래를 듣는 이밤은 달랐다.

철민은 어떻게 밤이 가고 새날이 시작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2. 구대원과 신대원 (1)

장마비가 며칠째 내리고있었다.

경계초소들과 잠복초들은 초긴장상태에 들어갔다.

《〈밤나무〉 하나, 〈밤나무〉 하나! 정황을 보고하라!》

지휘부에서 지대가 낮은 철민이네 잠복초에 대고 연신 물어온다.

분대장이 비옷으로 전화기를 가리우고 응대한다.

《아직은 일없다, 견딜만 하다.》

《수위가 올라가면 예비잠복호로 리탈하라! 알았는가?》

《알았다!》

분대장은 전화기에 대고 일없다고 했지만 철민은 자기들의

상태가 락관할만 한것이 못된다는것을 간파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잠복호에 흘러든 물이 무릎노리에 미치다가말았다.

그러나 아직 자정도 되지 않은 지금은 허벅다리를 넘어 배밀에 이르고있다. 게다가 비는 도저히 멎을 잡도리가 아니다.

철민은 분대장이 물이 코밑에 이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여기를 뜨지 않을것이라고 짐작했다. 지난해에 바로 이곳에서 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런 날에 말이였다. 지형이 우묵한 이곳은 지금처럼 궂은 날씨에 량쪽 잠복호들에서 감시하기 어렵다.

1시간, 2시간…

바위돌처럼 웅크리고 앞만 주시하고있던 분대장이 드디여 몸을 움씰했다. 비옷고깔을 반쯤 들치고 철민에게 말했다.

《안되겠소. 철민동문 먼저 예비잠복호에 가시오.》

《분대장동지, 전 일없…》

철민은 울상을 지었다. 명령이라는 생각이 입을 더 벌릴수 없게 했다. 창황중에도 머리가 그럴듯하게 돌았다.

《신대원인 제가 어떻게 혼자서…》

이 걸발린 하소연이 예상외의 효과를 나타냈다.

분대장은 박호진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음… 호진동무가 가는게 좋겠소.》

《아니, 분대장동…》

《하사 박호진! 명령을 복창할것!》

《알았습니다.》

박호진은 더 뻗대지 못하고 잠복호에서 기여나갔다.

박호진이 기여간쪽을 지켜보고난 분대장은 철민의 어깨를 끌어당겨 속삭이듯 말했다.

《철민이, 이제 두시간만 견지하면 돼. 알았지?》

《분대장동지, 전 일없습니다. 얼마든지…》



철민은 분대장이 아직까지 자기를 약골로 보는것 같아서 속이 좋지 않았다.

이제는 군인선서를 하고 중대에 온지도 한달이 넘었다.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였다고 볼수 있었다. 첫 잠복근무때의 그 저조한 공포증같은것은 아예 없어졌다. 지금은 장마비라는 또 다른 환경에 맞다들렸다. 걸음걸음 의지의 시험이다.

좀 가늘어졌던 비발이 다시 굵어진다. 비발에 짓눌리운 풀대들은 데쳐진것처럼 일어서지 못한다. 팔굽을 타고 넘어들어온 비물이 이제는 허리를 지나 가슴노리에 이르렀다. 비옷단추사이로 물이 사정없이 몸으로 흘러든다. 속옷까지 젖어든다.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철수하여 중대에 도착한 철민은 발이 너무 불어서 구대원들이 달라붙어 신발을 벗겨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는 다음날에야 멎었다.

장마비의 후과로 기동로가 차단되였다.

다른것은 참고 견딘다쳐도 식량이 문제였다. 식량예비는 항상 푼푼히 마련되여있었다. 그런데 구분대에서는 얼마전에 주변농장의 비바람피해복구를 도와주러 갔다가 절량세대가 적지 않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이후 조국은 고난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었다. 그 어느 농장이나 인가에도 식량여유가 없었다. 전연구분대가 위치한 산간지대인민들은 풀뿌리를 씹으며 강행군을 하고있었다. 그래서 구분대에서는 예비식량을 내여 농장에 보내주었었는데 기동로가 차단되여 예상치 않았던 식량난을 겪게 된것이였다.

중대에서는 기동로가 열릴 때까지 부업지에서 수확한 풋강냉이로 식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농장이 알면 소동이 일어날수 있기때문에 식생활문제는 일체 밖으로 새여나갈수 없게 비밀에 붙였다.

철민이네 분대는 며칠동안 지휘부감시소근무를 섰다.

그날 점심 철민은 식당에 밥을 타러 내려갔다. 밥이라야 한끼에 한이삭반정도씩 차례지는 풋강냉이가 전부이다.

넓다란 주방안에 들어서니 뜬김이 뽀얗게 서린 속에서 달짝지근한 풋강냉이익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철민은 불시에 덮쳐드는 현훈증에 비칠거렸다. 처음에는 그것이 허기때문이라는것을 몰랐다. 구석에 쪼그리고앉아 잠시 생각해봐서야 자기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여물지 못한 풋강냉이 두이삭으로 끼니를 땠다는것을 돌이켜보았다.

《누굽니까?》

버치에 익은 강냉이를 퍼담던 식당근무가 놀라서 다가왔다.

철민은 후닥닥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식당근무가 꼬치꼬치 캐여물으면 신입병사 리철민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식당구석에 와서 주저앉았댔다는것과 같은 시시한 소문이 퍼질것이다.

《아니, 이거 철민이 아니야?》

철민은 앞에 다가온 취사복차림의 뚱뚱한 신입병사를 놀라운 눈으로 마주보았다. 이게 누구야? 룡흥중학교의 태권도짝패였던 명식이가 아닌가.

《명식이!》

철민은 명식을 와락 부둥켜안았다.

둘은 포옹을 풀고도 너무 놀랍고 희한하여 한동안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알고보니 명식은 철민이보다 한달 늦게 입대하였다. 도체육단에 미련을 걸고 좀 기다리다가 선택의 기준이 틀렸다고 한 철민의 말과 웅변원고가 자꾸 생각나 입대하였다고 한다. 최전연부대에 가면 혹시 철민이와 군사복무를 함께 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댔는데 정말 이렇게 한중대에서 만나게 될줄은 몰랐다고 기뻐하였다. 명식은 3소대에 배속되였는데 그동안 철민이네가 감시소에 올라가있다나니 서로 모르고있었다.

주방에서 바쁘게 돌아치는 명식이와 길게 회포를 나눌수 없었다. 후에 품놓고 마주앉기로 하고 운반식사그릇을 내밀었다.

명식은 세사람 몫에다 슬며시 강냉이 한이삭을 덧놓아주었다.

《이건 뭐야?》

철민은 의아해서 그를 마주보았다. 풋강냉이도 푼푼하지 못해서 급식인원에 맞게 세서 삶는다는것을 철민은 알고있었다.

명식은 손가락을 입에 가로세우며 맞은편에 돌아서서 오이랭국을 풀고있는 사관을 눈짓했다.

철민은 강냉이를 도로 꺼내놓고 명식의 손목을 잡았다.

《잠간 나 좀 보자.》

명식을 문밖으로 끌고나간 철민은 타일렀다.

《명식이, 성의는 고마운데 앞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지 말자. 나한테 강냉이 한알이라도 더 차례지면 그만큼 다른 동지들한테 가는 몫이 작아진다는걸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넌 새로 와서 아직 잘 모를수 있는데 지휘관들과 구대원동지들은 우리 신대원들이 배고플세라 아파할세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 그러니 우리가 뒤에서 이러면 안되지.》

명식은 머리를 끄덕이며 철민을 바라보았다.

《철민이, 넌 역시…》

철민은 명식의 넙적한 가슴을 쿡 지르며 빙긋 웃었다.

《넌 아직 뚱보구나, 하하. 자, 난 가겠다.》

철민은 3명분의 삶은 강냉이를 타가지고 감시소로 향했다.

걸음이 날듯이 가벼웠다. 허기가 어디로 달아났는지 알수 없었다. 동무가 가까이에 온것이다. 그것도 잊을수 없는 룡흥중학교의 딱친구가.

경사가 급한 산릉선에 올라 잠간 다리쉼을 했다. 거기서는

멀리 산아래로 마을이며 학교가 빤히 내려다보인다. 그가 평양으로 오기 전에 살던 룡흥구의 학교나 마을과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 최전연의 한적한 산골마을이다. 그러나 철민에게는 저아래 어느 한 집이 꼭 줄당콩대가 처마를 가리운 앞마당에 철봉대가 서있고 빽자루가 매달려있는 룡흥의 고향집처럼 느껴졌다. 태권도훈련이 끝난 여름날의 저녁이면 명식이랑 웃고 떠들며 시원하게 몸을 씻던 룡흥천이 지금 산아래 보이는 개울물인듯 했다.

며칠전 그는 개별임무를 수행하고 마을이 가까운 저 학교뒤산을 타고 돌아오고있었다. 숲속으로 난 오솔길옆 나무그늘밑에서 아이들이 점심밥곽을 펴놓고 먹는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누이동생 철순이또래의 처녀아이도 보여서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았다. 그릇에 담긴 밥아닌 밥들을 보는 순간 손이 급히 호주머니에 갔다. 아침에 떠날 때 누군가가 건빵을 넣어주었었다. 손끝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서야 어느사이엔가 다 먹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철민은 입술을 깨물며 자기를 질책했다.

그날부터 철민은 주머니에 늘 간식을 넣고 다닌다. 언제든 길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한번이라도 손에 쥐여주어야 그날의 아쉬움에서 다소나마 벗어날것만 같았다.

얼마후 철민은 감시소에 당도하였다.

지휘소에 가있는 분대장에게 먼저 가져다주고 와서 박호진과 마주앉았다.

군용밥통에 담아가지고온 오이랭국을 한모금 들이키고 강냉이를 받아들던 박호진은 머리를 기웃하고 물었다.

《동무몫은 어디 있어?》

철민은 비닐주머니에 따로 싸가지고온것을 들어보였다.

《여기 있잖습니까.》

말없이 그것을 나꿔채서 꺼내놓던 박호진의 낯이 대번에 푸르딩딩해졌다. 그것은 자기것보다 좀 작은것이였다.

박호진은 들고있던 강냉이이삭을 철민이앞에다 놓고는 씩씩거렸다.

《철민이, 내가 동무 동생처럼 보여?》

《하사동지, 뭘 그럽니까, 별찮은걸 가지고…》

《별치않다구? 그럼 동무가 별치않다구 생각하는것에 대해서 말 좀 해보자. 그러지 않아도 언제부터 한번 말해주려댔어.》

《…》

《철민이, 어른은 어른다와야 하구 아인 아이다와야 한다는 말 알아? 어른이 아이처럼 놀면 존대를 받지 못한다는것은 뻔한 리치야. 그런데 아이가 지내 어른스럽게 놀면 어떤줄 알아? 사랑스러운것이 아니라 얄미워. 동문 지내 조숙하단 말이야. 이거야 어디 구대원행세를 해볼새가 있나. 신대원이 아무일에나 쫄딱쫄딱 나서질 않나. 지금두 이게 뭐야?! 동무가 이러면 내가 이걸 좋구나 하구 목구멍으루 넘길것 같애?》

《전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것 같구만, 궁냥이 깊은 동무가 그걸 넘겨짚지 못한다는게.》

《하사동지, 전 아직 내키지 않는 일이나 말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전 집에서 막이였습니다. 그래 그런지 중대에 와서 막냉이 취급을 받는게 막 어색하구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 동문 별난걸 다 힘들어하누만. 정 그렇다면 할수없지. 어쨌든 신대원이 오면 구대원은 부담을 지기가 일쑤인데 난 되려 부담을 덜게 됐으니 나쁘진 않구만.》하고 박호진은 씁쓸히 웃었다.

근무를 교대하고 내려오면서 박호진은 물었다.

《철민동무 부모님들은 무슨 일 하나?》

《어머닌 승강기운영사업소 로동자입니다.》

《아버진?》

철민은 머뭇거렸다. 신병훈련기간에 동무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으면 그저 로동자라고 대답했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그 어떤 영향력을 암시하는것 같아 사실대로 대답하기 저어되였던것이다.

《아버지도… 로동자입니다.》

《그렇소? 어디서 무슨 일 하시게?》

《기계공장에서 단야공을 합니다.》

철민은 아버지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기계공장에서 로동생활의 첫걸음을 떼던 당시의 그 직업을 말했다.

박호진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철민의 어깨를 철썩 하고 쳤다.

《글쎄 어쩐지…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구만.》

《예?》

《난 동무의 행동을 보고 알았단 말이야. 대개 도시에서 입대한 병사들은 귀공자냄새가 나는데 동무한테선 전혀 그런게 풍기지 않거던. 로동계급의 집안에서 로동계급의 성실성을 체질로 물려받은게 알리드란 말이야.》

철민은 좀 어이없긴 했지만 듣기가 멋적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늘 그렇게 교양을 받았다. 우리 집안의 근본은 로동계급이라고, 그것을 잊으면 참다운 인생길을 걸어갈수 없다고.

철민은 자기가 그것을 잊지 않고 복무의 길을 가는 이상 아버지가 로동자이고 자기는 로동자의 아들이라고 말한것이 거짓말로 될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문 어째서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기 힘들어해? 심리는 리해되지만 그것때문에 위축될 필욘 조금도 없단 말이야. 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농민이야. 하지만 그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남한테 밀리워본적은 한번도 없었어. 이제부턴 그러지 말라구. 알겠어?》

《알겠습니다.》

철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식사후에 구대원들만 비상소집했다. 장마비에 끊어진 기동로를 아직 복구하지 못했던것이다.
구대원들은 자정이 훨씬 넘어서 돌아왔는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두 녹초가 되였다.
철민은 그때까지 자지 않고있다가 자기 분대 구대원들의 신발과 발싸개를 몽땅 걷어가지고 세목장으로 갔다. 감탕투성이인 신발과 발싸개를 빨아서 식당화구칸에서 말리우고나니 날이 푸름푸름 밝았다.
아침에 1분대 구대원들은 깨끗하게 빨아서 말리우기까지 한 신발과 발싸개가 자기들앞에 놓여있자 눈들이 뎅둘해서 서로 마주보았다.
박호진이만이 별일이 아니라는듯 신발끈을 가뜬하게 졸라매고 다른 분대 구대원들이 보란듯이 발을 탕탕 구르며 왔다갔다하다가 병실밖으로 사라지는 철민을 쫓아나갔다.
《철민이!》
《예?…》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겠구만, 맏형구실을 하느라구.》
《또 신대원답지 못하다구 교양하려는게 아닙니까?》
《아니, 이젠 그럴 생각이 없네, 전혀! 하하.》

3. 처벌근무

복무의 나날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다.
모기에 쏘이고 비에 젖으며 날 밝기만을 기다리던 잠복초의 그 여름밤 같아서는 언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랴싶었다. 그런데 기다리던 가을은 언뜻 스치는 바람결처럼 살같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1998년, 철민이가 초소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새해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으로 조국은 의연히 시련의 길을 가고있었다. 엄혹한 환경에 놓인 인간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듯 정초부터 례년에 없는 추위가 들이닥쳤다.

그런 속에서 구분대의 동기훈련이 시작되였다.

눈이 내린 뒤의 맵짠 날씨였다.

철민이가 속한 1소대는 이동야외전술훈련에 들어갔다. 눈덮인 수림속에 천막을 치고 먹고 자며 갖가지 정황에 대처해야 하는 훈련인데 분대별로 판정하고 훈련총화를 엄격히 하게 되여있었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이였다.

아침에 1분대천막에 나타난 김충국소대장이 밥을 해먹을수 있는 수단들을 회수하며 불의의 정황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30분내에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 아침식사를 하시오. 그다음 행군하여 ㅎ지점에 정각 8시에 도착할것!》

방금 천막에서 나와 아침밥 지을 준비를 하던 분대원들은 졸지에 라이터와 성냥, 군용밥통까지 없는 빈손이 되였다.

분대장이 재빨리 분담을 했다.

《대원 신원일동무와 진혁동문 불을 일굴것, 하사 박호진동무와 전사 리철민동문 밥지을 준비를 할것!》

박호진은 분대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포쪼박을 펼쳐들고 매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그렇게 모은 쌀을 감싸서 철민에게 쥐여주며 말했다.

《철민이, 요아래 내려가면 물이 있을거야. 이채로 푹 적셔가지고 오라구, 빨리!》

철민은 경사가 심한 산비탈아래로 달려내려갔다. 그런데 눈이 깔린데다 온통 얼어붙어서 물을 찾을수가 없었다. 철민은 안타까이 눈밑을 헤집었다.

박호진이 꼭대기에서 다급히 소리쳤다.

《철민이, 뭘해?》

철민은 울상이 되였다.

《하사동지, 물이 없습니다.》

씨근덕거리며 달려내려온 박호진은 눈을 부라리며 철민의 손에서 쌀보자기를 나꿔채서 풀어헤쳤다. 거기에다 발밑의 눈을 와락와락 퍼넣으며 뇌까렸다.

《눈뜬소경 한가지군. 물이 안 보인다구 온 골짜길 다 뒤지며 시간 보낼텐가.》

박호진은 눈이 섞여져 배나 커진 쌀보자기를 대충 뭉그려 들며 재촉했다.

《자, 이젠 가자구.》

박호진은 다리가 짧은 대신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비탈길인데도 막 구울러가는것 같았다. 그의 뒤를 따라 헐떡거리며 천막가에 이르렀다. 벌써 삭정이를 모아다놓고 불피울 준비를 다해놓았다. 군용밥통이 없는 속에서 어떻게 밥을 지으랴 싶었는데 박호진은 젖은 쌀주머니를 우둥불자리에 무져놓은 흙속에 묻어놓았다. 그리고 그우에 삭정이를 가려놓았다. 이제 불만 지피면 밥이 된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신원일네 조에서 아직 불을 일구지 못하고있었다. 쇠바줄토막을 강대나무에 가져다대고 비벼대고있는데 얼핏 보기에도 거기에서 도저히 불이 일것 같지 않았다. 박호진이 지켜보다가 강대가 눅눅해서 그럴수 있다며 어디론가 달려가서 마른 강대토막을 메고와서는 신원일이네를 밀어내고 제가 달라붙었다. 과연 쇠바줄토막과 강대와의 마찰부분에서 연기가 실실 피여나더니 불이 일었다. 그 원시적인 역사질을 신기하게 보고있던 철민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환성이 터져나왔다.

곧 쌀을 묻어놓은 곳에서 불이 타올랐다.

불길이 일어번지는 곳에 마른 나무가지를 집어넣던 박호진이 자동보총을 둘러메며 몸을 일으켰다.

《철민이, 여기 앉아서 불을 보라구. 내 삭정일 좀더 모아올테니.》

《좀 쉬십시오. 나문 제가 해오겠습니다.》하고 철민이가 박호진의 어깨를 눌러앉히자 그는 쿵 하고 다시 주저앉으며 장갑낀 손으로 뒤통수를 쳤다.

《아차! 내가 리철민의 동생이라는걸 깜박 잊었군.》

철민은 싱긋 웃으며 잡관목숲으로 달려들어갔다.

한아름 해다가 밥도 익히고 밤새 얼군 몸들도 녹여주고싶었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많아보이던 삭정이가 좀처럼 눈에 띄우지 않았다. 한걸음한걸음 옮긴다는것이 어느사이 골짜기아래까지 내려왔는지 알수 없었다. 나무숲이 별로 성기여진다 했더니 마을쪽으로 뻗어있는 길이 바로 코앞에서 내려다보였다. 걸음을 되짚어 올라가려던 철민은 전투복장을 한 군인들이 길에 나타나는것을 보았다. 3소대의 오늘훈련일정이 무장강행군이라고 했었다.

철민은 호기심이 동했다. 자기네 1소대는 래일이 무장강행군을 하는 날인것이다. 무기장구류들을 몽땅 휴대하고 제정된 거리를 제정된 시간에 돌파해야 하는 이 실전과 같은 훈련은 주력과 인내력의 시험장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어느 분대인지 대원 한명을 아예 부축해오다싶이 하고있었다. 그때문에 그 분대가 다른 분대에 현저히 뒤떨어지고있다는것이 알렸다. 그 애군이 신입병사일것이라는 예감이 들자 철민은 명식이 생각이 났다. 명식이가 3소대 2분대의 신입병사였던것이다.

철민은 옆구리에 안았던 삭정이를 내려놓고 길에 내려섰다.

과연 그는 명식이였다. 뚱뚱한 몸이 먼거리에서도 알렸다. 그가 량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무슨 짐짝처럼 끌려오는것을 보는 순간 철민은 그 어떤 수치감에 몸이 확 달아올랐다.

철민은 앞뒤를 잴 사이없이 마주 달려갔다. 무작정 량쪽에서 명식의 팔을 갈라쥔 구대원들의 손을 뜯어내고 휘줄근해진 그의 몸에 자기 어깨를 짝 들여다붙였다.

《야! 명식이, 이게 무슨 꼴이야?》

부축을 하고 달리던 구대원들은 명식의 무기장구류를 갈라 진데다 자기들의 체력도 극한점을 넘기고있던지라 난데없이 뛰여들어 의협심을 발휘하고있는 1소대 신입대원 리철민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길 겨를이 없는 모양이였다.

명식은 좀전에는 그래도 끌리워서라도 제걸음으로 가는 시늉을 내는것 같아보였었다. 그런데 자기한테 어깨를 들이민 사람이 철민이라는것을 알자 아예 맥을 놓고 주저앉으려했다.

《명식이, 정신차리고 힘을 내라!》

철민은 명식의 늘어진 팔을 목에 바싹 휘감았다.

《태권도선수가 이게 뭐야? 넌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 룡홍중학교를 망신시키고있어!》

그 말이 명식의 잠자던 의식을 어느 정도 깨운 모양이였다.

《고…마워… 철…민이!… 조금만… 도와…줘.》

그가 힘을 짜내려고 하는것이 알렸다.

철민은 그것이 반가왔다.

《좋아! 호흡을 조절하면서 내 구령 들으라. 하나, 둘, 하나, 둘!…》

락오자가 생긴 2분대를 주시하고있던 3소대장이 철민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동문 뭐요?》

걸음을 멈춘 철민은 꼿꼿해졌다.

《소위동지, 1소대 1분대 전사 리철민…》

《동무넨 전술훈련을 하고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끼여들었소?》

《저…》

《헛참, 동문 군인이 맞긴 맞소? 빨리 자기 분대로 돌아가시오!》

그제야 철민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부리나케 오던 길을

되짚어 분대천막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한편 박호진은 한동안이 지나도록 철민이가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주변의 잡관목숲에 들어가 이리저리 기웃거려봤으나 철민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쌀을 묻어놓은 불밑을 나무꼬챙이로 찔러보며 초조히 시계를 보고있던 분대장이 더 참아내지 못하고 눈을 펴서 불을 꺼버렸다.

《자, 밥이 됐든 죽이 됐든 식사를 하기요. 시간이 없소.》

불안스레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박호진이 말했다.

《분대장동지, 리철민동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요?》

《삭정이를 주으러 간다며 자리를 떴는데…》

《그런데 왜 멍청히 있소? 빨리 찾아봐야지.》

모두 밥을 먹으려고 둘러앉으려다가 제각기 흩어져 철민을 찾기 시작했다.

《철민이—》

《철민동무!—》

가까운 곳엔 철민이가 없다는것을 느끼게 되자 분대장은 분대원들을 모이게 했다.

《무슨 일이 난것 같소. 각 방향으로 폭을 넓혀서 찾아야 할것 같소. 산짐승과 맞다들지 않으면 눈구뎅이에 빠졌을수 있으니 발자국이나 무슨 흔적 같은것이 없나 잘 살펴야 겠소.》

박호진은 낯색이 컴컴해졌다. 결국은 자기때문이였다. 자기가 철민의 그 지나친 열성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이다. 훈련총화때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비판무대에 올라야 할것이다.

그는 골짜기아래로 난 발자국을 따라가며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분대장이 말한것처럼 철민이가 무슨 산짐승에게 쫓기

거나 눈구뎅이에 빠져있을것 같지는 않았다. 그 《열성》이 어떤 괴이한 일을 빚어냈을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박호진은 얼마후 헐레벌떡 올라오는 철민과 마주쳤다.

《철민이, 어떻게 된거야? 어디 갔댔어?》

철민은 숨이 차서 말을 못했다. 더 따져물을 사이가 없어서 팔을 콱 나꿔채여 끌고올라갔다.

천막에 올라가 흩어진 분대원들을 모여들이느라고 또 시간을 허비했다.

분대장의 낯은 아예 거멓게 죽었다.

《리철민동무때문에 20분이나 지연되였소. 앉아서 밥먹을 사이 없으니 주먹밥을 빚어 행군하면서 식사하기요.》

다음날에 있은 전술훈련총화에서 1분대는 리철민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훈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분대별 등수에서 맨 뒤꼬리를 차지하였다.

철민은 한주일간의 처벌근무로 축사당번을 인계받게 되였다.

×

중대돼지우리는 병실이나 식당 등 군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과는 아예 등을 돌려댄 외딴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그날 아침 철민이가 축사에 나타나자 당번을 서고있던 얼굴이 퉁투무레한 하사는 마치 귀인을 만난듯이 반가와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어이구! 〈해방〉의 날이 이렇게 빨리 올줄이야. 고맙네, 친구!》하고 그는 손까지 내미는것이였다.

철민은 어이없어 외면하고말았다. 그가 팔을 끌고다니며 그 무슨 인계를 하는것을 하나도 새겨듣지 않았다. 그저 지금은 누구하고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혼자 있고싶었다.

철민은 헤여지면서 그에게 물었다.

《하사동진 무슨 과오를 범해서 축사에 왔댔습니까?》

하사는 낯색이 약간 달라지더니 되물었다.

《동문 무슨 과오를 범했나?》

《…》

《그런건 서로 묻지 않는게 좋아. 여러 생각말구 돼지나 착실히 돌보라구. 자, 난 그럼 가겠네.》

철민은 구들에 벌렁 드러누웠다.

훈련총화에서는 자기보다 박호진하사가 더 호된 추궁을 받았었다. 자기에 한해서는 신입병사로서 있을수 있는 일로, 어떤 면에서는 의로운 행동으로 분석평가될줄 알았었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 처벌을 받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식당이나 사료창고에 돼지물바께쯔를 들고다닐것인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밖에서 돼지들이 물을 달라고 소란스럽게 꿀꿀대는 소리에도 그는 누운채로 까닥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없이 문이 열리였다.

《철민이, 나야, 명식이야.》

그래도 철민은 못 들은척 했다.

명식은 몇번 흔들다가 반응이 없자 들어올 때처럼 소리없이 나갔다.

곧 돼지물가마에서 물을 퍼내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철민은 일어났다. 돼지물바께쯔를 들고나가려는 명식을 급히 제지시켰다.

《명식이, 놓구가라!》

《아니야. 이건 사실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이야.》

철민은 명식의 손에서 뜨물바께쯔를 앗아내며 말했다.

《못나게 굴지 말구 시간 있으면 가서 주력훈련이나 해라. 난 네가 그렇게 둔자인줄 몰랐다. 이제 다시 그런 식으로 매재기를 치면 난 널 룡흥중학교동창생으로 여기지 않

겠다.》

명식을 돌려보낸 철민은 구유에 뜨물을 쏟아주면서 돼지우리를 돌아보았다.

3개의 돼지우리에는 어미 한마리에 중돼지 두마리가 있는데 짚을 갈아주어야 할것 같았다.

철민은 룡흥에서 살 때부터 어머니가 바빠하면 돼지우리청소 같은것은 도맡아했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늘 사람의 손이 가닿아야 살이 찌고 탈없이 자란다는것을 부지런한 어머니에게서 체득했었다.

우선 돼지우리청소부터 하리라 마음먹고 팔을 걷어붙였다. 애꿎은 방아질에 절구공이 부러진다고 처벌에 대한 철민의 심리변화는 걸이대자루를 동강냈다. 그달음으로 낫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자루감을 한아름 해왔다. 그것으로 걸이대자루뿐이 아니라 호미와 낫자루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그러느라니 오전시간이 다 갔다. 오후에는 돼지우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새 짚을 날라다 깔아주었다.

축사로 들어오는 길목에 얼음이 두텁게 깔려있었다. 도끼로 얼음을 까고있는데 낯이 익은 통신중대의 처녀군관이 이쪽을 바라보며 오고있었다. 알아보면 어쩐다 하는 생각으로 일에 열중했다.

얼마전에 저 처녀군관을 중대부앞에서 마주친적이 있었다. 철민은 그때 련화고등중학교의 류옥련담임선생님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서 지나친 다음에도 뒤를 돌아보았었다. 그도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철민을 향해 돌아섰다.

《전사동무, 왜 그렇게 자세히 봐요? 혹시 내 옷에 뭐가 묻기라도…》

《아, 아닙니다.》

《그럼?…》

철민은 오해가 될것 같아서 말했다.

《중위동지가 중학교때 우리 선생님과 신통히 꼭같이 생

겨서…》

《그래요?!》

그는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철민에게 한발작 다가왔다.

《그럼 그 선생님도 나처럼 이렇게 말라꽝이였겠군요.》

철민은 펄쩍 뛰였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선생님은 일등미인이였습니다. 몸매도 중위동지와 꼭같은…》

처녀는 까르르 웃었다.

중위는 더 바싹 다가들었다.

《물론 선생님도 처녀였겠지요?》

《예. 헌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다가 얼마전에 결혼했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결혼을 미루다니요?》

《선생님과 정이 멀어질가봐 우리가 결혼을 못하게 했댔습니다.》

《그래요?! 호호호— 야, 동무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그렇게 듬직하고 정깊은 남학생들을 거느린 선생님이 되고프군요.》

중위는 헤여지면서 철민에 대해서 각근히 물었으며 앞으로 친동생처럼 돌봐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었다.

그가 지금 한심한 꼴이 된 자기한테로 다가오고있는것이다.

《철민동무 아니예요?》

철민은 하는수없이 일손을 놓고 일어났다.

《축사당번을 인계받은 모양이군요.》

《예…》

다행히 그는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한듯 했다.

그는 그 무슨 례식에라도 참가하는것처럼 곱게 화장을 하고 깨끗한 솜바지밑에 반들반들하게 닦은 새 단화를 신었다. 그런데 돼지우리에는 왜 왔는지 알수가 없다. 중위는 그 까만 단화뒤축으로 얼음판을 살짝살짝 박아디디며 돼지우리앞

에 가 서더니 찰싹 하고 손벽을 마주치는것이였다.

《아이! 철민동문 일하는 품이 다르군요. 돼지들이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말을 들으니 평양에서 입대했다는데 언제 이런 일을 다 해보았어요?》

철민은 점점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중위가 돼지우리와 무슨 인연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 대해선 언제 다…

얼마 안 있어서 김충국소대장이 나타났다.

김충국은 무뚝뚝한 인상으로 돼지우리를 돌아보고나서는 철민에게 다가와 엄한 어조로 말했다.

《처벌근무라고 해서 태공하는 일이 없어야겠소. 알겠소?》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분이 나빴다. 한나절동안 해놓은 일을 눈으로 보았을텐데 어쩌면 저렇게 랭랭하게 말할수 있는가.

김충국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슬밋슬밋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돼지우리모퉁이로 걸어간다. 처녀군관이 그의 뒤를 묻어갔다.

4. 극 한 점

《왜 만나자고 했소?》

김충국은 처녀와 마주서며 푸접없이 물었다.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전 제대명령을 받았답니다.》

담배불을 붙이려던 김충국의 손이 굳어졌다. 다음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 처녀에게 관심을 가진지는 한달남짓이 되였다. 얼굴은 서로 알고있었다. 통신중대는 그의 중대와 이웃하고있어서 거의 매일이다싶이 처녀를 보았었다. 그가 처녀일반에 대해

서 흥미가 없었던탓에 스쳐보았을따름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문제가 제기되였다. 고향에 있는 누이동생한테 신랑감이 생겼는데 오빠가 미혼이여서 결혼할수 없다는것이였다. 늙으신 부모들의 독촉이 불같았다. 가까이에 사귄 처녀가 없다면 당장 고향에 와서 선을 보라는것이였다. 그래서 통신중대의 처녀들을 눈여겨보게 되였다. 이전에 그가 일생의 반려자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생각한것이 있었다면 자기는 한생 최전연에서 군복을 입고 살 몸이니 그것을 리해해주는 녀자이면 그만이라는것이였다. 처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견해가 좀 달라졌다고 말할수 있었다. 같은 값이면 인물맵시도 겸비한 녀자를 택하고싶었다. 거기에 오현순이라는 통신중대의 전신소대장이 걸려들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초기복무사관을 내세워 선통을 해놓고는 때가 되기를 기다렸었다.

김충국은 담배를 걷어넣고 군복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여 처녀에게 내밀었다.

《현순이, 여기에 동무네 집주소를 적소.》

《그건 왜요?》

《동기훈련이 끝나면 내 데리러 가겠소. 그동안 집에 가서 여윈 몸이나 내고있으라구.》

《어마나! 벼락맞겠네. 그게 어디 충국동지 혼자결심으로 될 일이예요?》

김충국은 뒤짐을 지고 일어서며 처녀앞에 바투 다가섰다.

《난 동무가 제대될 날만을 기다렸소. 자, 수첩을 받아서 주소를 적소.》

《전 몰라요. 스스로 알아보세요. 아무렴 주소를 몰라서 집을 못 찾아올가.》

《하긴 그렇지.》

김충국은 수첩을 걷어넣으며 물었다.

《언제 떠나오?》

《그 날자는 왜 수첩에 적어달라고 안하는가요?》

김충국은 주먹으로 이마를 찧으며 낯을 찡그렸다. 완전히 수세에 몰린셈이다.

처녀는 어느사이 빠져나와서 왔던 길로 또각또각 걸어갔다.

김충국은 처녀의 날씬한 뒤모습을 얼빠진듯 바라보며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에에— 사나이 김충국이 일생 녀자한테 쥐여살게 됐군.》

그때 철민은 속이 뒤틀려 얼음을 까던 도끼를 그 자리에 동댕이친채 돼지물 끓이는 방에 들어가 누워있었다.

김충국이 길목으로 나오다가 버려진 도끼를 집어들었다.

《철민동무, 철민이!》

철민은 성급한 부름소리에 화닥닥 뛰쳐일어나 나왔다.

《예.》

김충국소대장이 눈을 지릅뜨고 손에 쥔 도끼를 내흔든다.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릴 깨끗이 해야지 이게 뭐요? 게잘싸하게.》

철민은 뿌루퉁해서 스적스적 걸어나왔다.

김충국소대장은 도끼를 던져주며 오금을 박았다.

《건들건들하면 처벌이 한주일이 아니라 두주일로 연장될수 있소!》

철민은 소대장이 《건들건들하면…》하고 표현한것이 몹시도 비위에 거슬렸다. 따라가서 막 대들고싶었다.

마지못해 쭈그리고앉아 도끼를 휘둘렀다. 소대장이 말한것처럼 《건들건들》하고싶지는 않았다. 그는 천성적으로 일이 눈에 걸리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다. 그 성미대로 열성을 부렸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다. 창조적인 열성이 아니였던것이다. 하루하루가 열흘맞잡이로 길게 느껴졌다. 철민은 자기의 정신상태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음을 느끼지 못했다.

며칠후 어느날 잠복근무나갔던 박호진이 찾아왔다. 그는

뜨물가마앞에서 탄불을 쑤시고있는 철민에게 빈정댔다.

《철민이, 돼지들을 너무 잘 돌봐주어서 처벌근무가 아니라 아예 고정근무를 세워야 한다는 말 돌아가. 사실이야?》

《뭐라구요? 에잇!》

철민은 탄불을 쑤시던 쇠장대를 내던지며 박호진을 쏘아보았다.

박호진은 철민이가 그렇게 성을 낼줄은 몰랐던 모양이였다. 작은 눈을 깜박이며 철민을 어색스럽게 마주보다가 벙긋 웃었다.

《이 친구 그사이 신경이 아주 예민해졌구만.》하고 그는 철민이가 내던진 쇠장대를 집어들었다. 익숙된 동작으로 화구안을 뚱기쳐서 탄재를 털어내고는 손을 툭툭 털었다.

《동무가 축사당번을 잘하고있다는건 온 중대가 아는 일이야. 그거야 나쁜 평가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하사동지, 버릇없이 굴어서. 그리고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댔는데 나때문에 전술훈련총화에서 하사동지가 비판받은데 대해서도 정식 사죄합니다.》

박호진은 꼿꼿이 서있는 철민의 등을 두드리며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야, 난 비판을 받아 싸. 내가 구대원구실을 잘못했거던. 철민동무가 하는 일을 너 잘한다 하구 내버려두었단 말이야.》

한주일이 되는 날 철민은 돼지우리청소를 해놓고 누구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인계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점검때 병실에 가서 행여나 하여 지휘관들의 눈치를 살폈으나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것 같았다.

한주일이 지난 후에 김충국소대장이 축사앞을 지나가다가 철민을 띠여보면서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3소대의 사관 한명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나타났다. 훈련중에 다리를 약간 상했는데 병실에서 안정치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자진하여 축사당번이 되였다는것이 였다.

철민은 처벌에서 해제되였으나 마음이 쓸쓸하였다. 아니, 처벌중에 있을 때보다 더 괴로왔다. 결국 자기는 집단의 관심밖에 놓인 몸이였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생각이며 고충을 안중에 두지 않은것 같았다.

그때부터 그는 쾌활하고 락천적인 리철민이가 아니였다. 입이 무거워지고 늘 우울한 낯빛이였다. 대신 훈련과 근무생활에서는 무섭게 열성을 냈다. 그는 누구한테도 뒤지려고 하지 않았고 지휘관들한테는 조금도 흠을 잡히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달이 흘렀다.

따뜻한 봄계절에 들어서면서 부대에서는 모범적인 군인들과 신입병사들을 위주로 평양견학을 조직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철민은 가슴이 설레였다. 새삼스레 우리 집은 평양이다! 하는 느낌이 가슴그들먹이 차올랐다. 누구나 가고싶어하는 수도 평양에 정다운 부모님들과 동생들이 살고있는 집이 있고 중학시절의 그리운 선생님들과 동창생들이 있는것이다.

떠나온지 꼭 1년이 되였다. 이제 가면 얼마나 반가와할것인가!

하지만 철민의 이름은 견학군인명단에 없었다.

리유는 간단하고 명백했다. 평양이 집인 군인은 제외시킨다는것이였다. 쉽게 리해하고 넘어갈수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철민은 고민에 빠졌다. 동기훈련기간에 범한 과오와 련결시켜 이것도 하나의 《제재》가 아닌가 의심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에 평양에서 입대한 신입병사는 중대에 철민이밖에 없었다. 그러니 리철민이만이 견학에서 제외된것으로 되였던것이다.

견학군인들이 평양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 문화오락시간

에 철민은 슬그머니 교양실을 빠져나와 어둠속에 홀로 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기타도 잘 타고 노래 또한 잘 부르는 리철민이가 빠진 오락회분위기는 그닥 흥그러워지지 못했을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평양견학을 앞둔 때여서 모두 흥분되여 있었다. 누구도 리철민의 존재에 대해 주의를 돌리는 사람이 없었다.

유독 명식이만이 철민을 주시하고있다가 찾아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철민이 네가 평양견학에서 제외된건 동기훈련기간에 있은 그 일때문인것 같애. 결국 나때문에… 난 아무래도 견학에서 빠지겠다고 제기해야겠어.》

《무슨 소릴 하는거야?》

《그렇지 않니. 훈련에서 질질 끌려다닌건 난데 벌은 나를 도우려던 네가 받고있으니 이거야 불공평하지 않냐 말이야.》

《아니야, 잘못은 나한테 있어. 규률을 어겼으니까. …》 하면서도 철민의 의심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날은 점검후에도 모두 잠들지 못했다.

구대원들속에서 견학에 뽑힌 박호진은 철민의 심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옆잠자리에서 성가시게 굴었다.

《철민이, 집에다 편지쓰라구. 내가 동무네 집에 들려 안부를 전하지.》

철민은 옆으로 끙 돌아누웠다.

박호진은 몸을 반쯤 일으키며 철민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왜 그래?》

《난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아마 취침시간이 아니였다면 박호진은 잠자코 있지 않았을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그는 최근에 와서 이지러진 철민에 대해서 의문스러워하고있었다. 박호진은 철민의 어깨를 꽉 움켜잡았다가 밀어놓는것으로 자기의 불만을 드러냈다.

철민은 박호진에게 어깨를 떠밀리운 순간 그한테 미안하

고 자기자신이 의심스러웠다. 자기가 어떻게 되여 리해력이 부족하고 너그럽지 못한 졸망구가 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지 말자고 생각했다가도 마음속에 은밀히 잠재해있던 그 《졸망구》가 머리를 들면 헤여나올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그럴 때면 눈마저 흐리멍텅해진다. 모든것이, 그 누구도 바로 보이지 않는다. 참하기만 한 분대장, 데면데면한 박호진하사… 김충국소대장과는 점점 서먹서먹해진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얼마전에 소대장과 결혼한 오현순이라는 어제날의 그 아련한 전신소대장, 누이처럼 믿고 따르려 했던 그마저도 의심스럽다. 그가 어떻게 소대장과 같이 막생기고 거친 사람한테 일생을 의탁하였는지 알수 없다.

그로부터 이틀후 저녁점검시간이였다.

김충국은 점검이 끝난 후 철민을 비롯한 세명의 소대군인들을 병실앞마당으로 불러냈다.

《동무들은 오늘 2중3대혁명붉은기중대판정을 위한 훈련에서 자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소. 차경일동무와 김승호동무는 기계체조동작에서, 리철민동무는 격술동작에서 말이요. 평시에는 그렇지 않던 동무들이 오늘 훈련에서 뒤졌다는데 문제가 있소. 이건 명백히 태공이요!

이제부터 각기 기재를 리용하여 훈련을 시작할것!

한시간후에 검열하겠소!》

철민은 타격기재앞에 우두커니 섰다. 남들과 꼭같이 훈련에서 땀을 흘린것 같은데 소대장은 태공했다고 지적한것이다. 인제는 완전히 눈밖에 난셈이다.

《병사 리철민! 뭘하는가?》

김충국의 벽력같은 웨침이 등뒤에서 날아왔다.

철민은 몸을 흠칫 떨었다. 누구에게인지 모를 항변의식이 서서히 끓어올랐다. 군복웃옷을 벗고 타격기재에 주먹을 날렸다. …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그만!》
김충국이 다가와 철민이앞에 서며 방어자세를 취했다.
《이제부터 날 공격해서 쓰러뜨리오.》
철민은 뒤걸음질했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소대장의 얼굴이 바투 다가왔다. 넓고 굳센 턱우에 자리잡은 두툼한 입술이 약간 이그러져있었다.
《왜, 그동안 내가 꽤 미웠겠는데.》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을…》
《사내가 솔직해야지. 난 좀스럽게 뒤에서 눈만 흘깃거리는것을 질색해. 철민인 그렇게 보지 않았기때문에 하는 소리야.》
철민은 눈길을 떨구었다. 그 순간 자기가 정말 좀상스러운 인간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머리를 들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등한 상태에서 맞서고싶습니다.》
《그래? 자, 그럼 시작!》하고 소대장은 두어발자국 물러서며 자세를 바꾸는것 같더니 번개같이 날아들어 철민의 팔을 뒤로 휘여잡아 둘러메치는것이였다.
철민은 그것이 자기가 주춤거릴가봐 먼저 도발을 거는것이라는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쿵 하고 몸이 흙바닥에 나동그라지자 속이 불끈했다.
《야앗!》
철민은 용수철같이 튕겨일어나며 다리를 힘껏 휘둘러 소대장의 턱을 올려찼다. 발뒤꿈치가 면바로 목표를 타격한것 같은데 소대장은 끄떡하지 않았다.
철민은 반격을 예견하여 급급히 뒤로 물러났다.
김충국이 비웃었다.
《흥, 고작 그게 다야? 그렇게 한심한 꼴을 해가지구 대등하게 맞서자는 말이 나오는가. 싸움은 입으로 하는게 아니

지. 다시!》

철민은 입술을 사려물고 공격을 들이댔으나 소대장의 자세조차도 허물어놓을수 없었다. 소대장은 아예 반격할 생각을 하지 않는듯 했다. 그런즉 철민의 일방적인 공격인셈이였다.

김충국이 처음처럼 팔목을 휘여잡아 어깨를 발밑에 떨구었을 때 철민은 더는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힘은 남아있는데 자신감이 어디론가 빠져달아난듯싶었다.

《일어섯!》

철민은 못 들은듯 고개를 떨구고 일어날념을 안했다.

김충국이 무릎을 꺾고 철민이앞에 바투 다가앉았다.

《이젠 속에 있는것을 털어놓아보지.》

《…》

《아직도 무슨 의견이 있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복훈련을 시킨데 대해서… 저의 준비정도가 너무나 미약하다는것도 알게 되였습니다.》

김충국이 철민의 몸을 안아일으켜 널의자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갔다.

《여기 앉소.》

김충국은 꿋꿋이 서있는 철민을 의자에 눌러앉히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김충국은 말을 시작했다.

《철민동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이 뭔줄 아오? 지휘관의 명령지시에 대한 의심과 저울질이요.

지휘관도 인간이기때문에 때로는 생각이나 의도가 비위에 맞지 않을수 있지. 그렇다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판단하면 상하간에 불신이 조성되고 믿음이 허물어질수 있소.

내가 왜 이런 말을 구태여 하게 되는가. 철민동무에게서 그런 점을 느꼈기때문이요.》

《…》

《우린 서로 지휘관과 병사이기 전에 동지요. 동지 호상간의 믿음에 금이 가고 불신이 생기면 준엄한 날엔 과녁을 똑바로 볼수 없게 되오. 결국 적에 대한 증오가 약화되고 싸움에서 이길수 없게 되지.

여긴 적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최전연이요. 언제 어느 시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기때문에 우리에게는 군인의 가장 옳바른 자세가 더욱 필요하단 말이요.

물론 모든걸 다 아량있게 대하고 접수한다는게 헐치는 않소. 하지만 우린 군인이기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오. 마음속에서 〈자기〉라는 리기적인 존재와의 투쟁에서 이겨야 하오. 그것을 이겨내야 진짜로 군무생활에서의 극한점을 넘겼다고 할수 있소.》

철민은 점점 머리가 숙어졌다.

5. 지휘관의 모습

김충국소대장의 한마디한마디는 철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부터 철민에게는 자기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겼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 눈에 비쳐진 자기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나은데가 없었고 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철민의 가슴속에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철민은 병실에서 잠복근무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평양견학갔던 군인들이 돌아왔다고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식이가 맨 먼저 병실로 뛰여들어오며 신끈을 졸라매고있던 철민을 덥석 부여안으며 말했다.

《철민아, 나 너희 어머닐 보았어.》

《뭐?!》

철민은 명식을 끌고 급히 밖으로 나갔다. 그의 팔소매를 비틀며 따졌다.

《너 우리 집에 갔댔니?》

《아니야, 네가 당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럼?…》

명식은 벙글거리며 장난기어린 웃음만 지을뿐이였다.

《빨리 말하려마. 거짓말이지?》

철민은 학교때부터 명식이가 애들을 놀래우느라고 순간에 빵짱날 거짓말도 능글거리며 곧잘하던것을 상기했다.

《거짓말은 아니야. 어쨌든 어머니얼굴을 보았으니까.》

《?》

《…바로 어제 저녁이야. 견학일정을 마친 우린 렬차를 타려고 평양역으로 나오고있었어. 그런데 대렬이 너희 집 아빠트밑을 지나는게 아니겠니. 나도 처음엔 잘 몰랐지뭐. 이 근방에 철민이네 집이 있겠는데 하고 지난해 졸업을 앞두고 평양에 올라갔던 기억을 더듬어서 주변을 둘러보댔는데 〈류경 옷상점〉이라고 쓴 간판이 대뜸 눈에 띄우는게 아니겠니. 아, 여기가 맞구나 하고 11층이라고 짐작되는 꼭대기를 올려다 봤더니 글쎄 너희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우리 대렬을 내려다보고계시더란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맞아? 똑똑히 봤어?》

《철민아, 난 너희 어머닐 그보다 더 멀리에서도 알아볼수 있어.》

《그래서?》

《난 대렬밖으로 뛰여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내 위친 대렬중간이여서 주춤거리는 나를 뒤에서 떠미는 바람에… 하는수없이 걸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지 뭐. 그러자 어머니도 나를 향해 손을 저어주시는게 아니겠니.》

《우리 어머니가 널 알아봤을가.》

《알아보지 못했을거야.》

철민은 눈물이 쿡 솟구쳤다.

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졌다. 군복입은 사람은 다 제 자식 같아서 군인대렬을 내려다본것일것이고 또 손도 저어주었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자식의 이런 꼴을 아신다면…

철민은 잠복초에 나가서도 속이 진정되지 않았다. 명식이가 아니라 자기가 멀리에서 어머니를 보고온것만 같았다. 눈앞에는 온통 어머니의 모습뿐이였다.

곁에서 박호진의 손이 날아오더니 입안으로 사탕알이 굴러들어왔다.

아까 근무에 나오기 전에 박호진은 말했었다.

《철민이, 나도 동무 어머닐 보았네. 알고보니 동물 곤경에 몰아넣었던 저 명식이라는 친구가 동무의 동창생이였더구만. 그 친구가 내앞에서 자꾸 아빠트꼭대기를 올려다보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역에 나가서야 베란다에서 손을 흔들던 그 어머니가 동무 어머니라는게 아니겠나. 그래서 내 그 친구의 뒤통수를 쥐박으며 그걸 이제야 말하는가고 분풀이를 했지. 미리 알았더라면 난 동무네 집까지 달려올라갔을지 몰라. 어머닐 만나 동무가 집에 편질 쓰라니까 신경질을 부리더라는것까지 고여바치고 오는건데… 에에— 일이 잘 안됐거던.

어쨌든 어머닌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걸 어머니가 보내는걸루 알구 맛있게 먹으라구.》하고 사탕을 한줌 주머니에 넣어주었었다. 그리고 견학갔던 군인들은 오늘 근무에서 제외인데 자진하여 잠복초에 나온것이다.

그믐밤이였다. 날씨마저 흐려있어서 주위는 한치 앞도 가려보기 어려웠다. 조금 있더니 잠복호앞턱에 돋아난 풀잎우에 비꽃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날은 더욱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철민은 철갑모끈을 바싹 조이고 앞을 주시했다. 아무리 어

두워도 그는 자기 시야의것은 개미 한마리가 기여가는것도 감각으로 다 보고 다 들을수 있다. 잠복호변두리에는 마른 풀대와 함께 갓 새잎이 돋아난 개암나무가 듬성듬성 서있다. 개암나무숲이 끝나는 곳엔 찔레나무덩굴이 있고 그로부터 5~6m 떨어진 곳에 볼품없이 자란 자작나무 한그루가 검은구름이 드리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다.

좀 달라진것이 있다면 철조망 저편에서 불어대는 적들의 심리전방송이 여느날보다 광기를 띠고있다는것이였다. 음탕한 쟈즈음악, 끝날줄 모르는 계집의 늘어진 노래소리…

봄비는 인차 멎었다.

자정이 넘고 새날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오리나무가지에서 밤새 한마리가 무엇에 놀랐는지 후두둑 날아올랐다. 바람에 놀랐으리라고 착각하기 쉬웠다. 철민이도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더 주의를 돌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철민은 그런 무경각한 생각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내심의 목소리를 들었다.

철민은 찔레나무덩굴이 바람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것을 정확히 가려보았다.

심장이 방망이질했다.

오른쪽으로 등진 분대장에게로 몸을 기울이며 떨리는 소리로 소곤거렸다.

《분대장동지, 앞으로 40m지점에서 찔레나무덩굴이 움직였습니다!》

분대장은 처음에는 심상히 여기는 태도였다. 아직 경험이 적은 철민이가 긴장해있던 나머지 착각했으리라고 생각한것이 틀림없었다. 철민이쪽으로 바싹 붙어서 한동안 앞을 살피다가 제자리로 옮겨가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찔레나무덩굴이 다시 움직이는것을 분대장은 철민과 함께 보았다.

뚫어지게 그곳을 주시하던 분대장이 비로소 《로병》의 눈

으로 판단을 내렸다.

《적이요!》

분대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으로 낮았지만 철민에게는 우뢰소리처럼 들렸다.

분대장은 급히 잠복호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초소에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자기쪽으로 끌어당긴 철민과 박호진의 귀가에 대고 말했다.

《새로 굴설한 우리 잠복호위치를 탐지하려고 기여들었을수 있소. 부득이한 경우엔 전투행동으로 넘어가야 할거요. 개자식들, 그놈의 방송이 별스레 신경을 자극한다 했더니!》

찔레나무덩굴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하나 둘 기여나오고있었다. 그런데 이쪽을 바라고 올줄 알았던 그것들이 방향을 바꾸는것이였다. 그쪽은 새로 굴설한 예비잠복호가 있는 곳이였다.

분대장이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 몸을 솟구었다.

《안되겠어. 전투준비! 철민동문 여길 지키오. 호진동문 날 따를것!》하고 잠복호를 나서던 분대장이 뒤걸음질로 철민이곁에 오더니 수류탄을 찬 그의 허리부위며 탄창주머니를 손더듬해보고나서 속삭였다.

《철민이, 절대로 여길 뜨면 안되오. 정황이 발생하면 총소릴 내오. 그럼 우리가 달려오든가 저쪽잠복초에서 합세해줄테니까. 알았지?》

《알았습…》

철민은 대답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들이 신대원인 자기를 안전한 곳에 남겨두고 적들과 결전을 벌리려 한다고 짐작했다. 따라가겠다고 말하고싶었다. 그런데 선뜻 용단이 생기지 않았다. 가슴이 그냥 두근거렸다.

(비겁쟁이!) 하고 자신을 질책했다.

철민은 자동보총총구를 앞으로 당겨놓고 잠복호턱에 가슴

을 꽉 가져다붙였다.

잠시후 그들이 사라진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가슴을 조이던 정적이 깨여졌다.

철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것은 지금껏 훈련때나 듣던 그런 총소리가 아니였다. 말로만 듣고 상상으로만 그려보던 가상적인 싸움이 아니였다. 그것이 의식되자 발아래로 잦아들었던 피가 끓어번지며 머리끝으로 치달아올랐다.

그는 잠복호에서 뛰쳐나왔다. 다음순간 《철민이, 절대로 여길 뜨면 안되오.》하던 분대장의 말이 떠올랐다. 그것은 명령이였다. 명령을 어긴탓에 그는 동기훈련때 과오를 범했었다.

그는 뒤걸음질로 다시 잠복호에 들어가배겼다.

분대장과 박호진이 간쪽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이상하게 더이상 총소리가 나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이 들어 눈길을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때 철민은 20여m안팎에서 자기쪽으로 배밀이로 접근하는 검은 형체들을 발견하였다. 찔레나무덩굴에서 나와 사라진 적들은 분대장과 박호진을 따돌리기 위한 유인조였음을 철민은 어렵지 않게 간파했다. 또다시 속이 두근거렸다. 불현듯 명식이가 보았다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철민아, 난 내 아들이 그 누구보다 용감하기를 바란다.》하고 어머니가 격려하는것 같았다.

철민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때 《철민이! 엎디라!》하는 소리와 함께 누구인가의 몸이 비호같이 날아와 철민을 덮쳐눌렀다.

×

철민을 잠복호에 꾸겨박아넣은것은 김충국소대장이였다. 그는 적들의 기도를 간파하고 전투인원을 이끌고 곧바로 철

민이가 있는 1호잠복호로 왔던것이다.

철민은 그것을 알리 없었다.

철민은 좀처럼 몸을 일으킬수 없었다. 육중한 몸이 자기를 가로타고 앉아서 꼼짝 못하게 했다. 머리우에서는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총탄이 잠복호주위에 날아와 박히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조바심이 났다. 화가 났다.

(도대체 누구길래!)

있는 힘껏 자기 몸을 깔고앉은 그를 어깨로 떠밀고 일어났다. 예상외로 헐하게 그의 몸이 한켠으로 밀려났다.

철민은 상체를 솟구면서 련발에 놓았던 자동보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개새끼들!》

잠복호를 뛰쳐나오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가릴 사이없이 한탄창을 다 풀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전우들이 달려오고 여러명의 주검을 남긴 적들이 꼬리를 사린 뒤였다.

《소대장동지, 소대장동지가 중상이요!》

누구인가 낮고 침통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철민은 속이 섬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소대장이 방금 자기가 뛰쳐나온 잠복호곁에 쓰러져있었다. 순간에 모든것을 알수 있었다.

《소대장동지!》

철민은 소대장의 발밑에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다.

전우들이 쓰러진 소대장을 에워쌌다.

신음소리를 내던 소대장이 정신을 차리고 철민을 찾았다.

《철민… 철민동무가 어디… 있소?》

철민은 무릎걸음으로 소대장의 머리맡에 다가갔다.

《소대장동지! 여기 있습니다. …》

《일없나? 어디… 다친덴 없어?》

《없습니다!》

《음… 그럼 됐소.》

철민은 고개를 떨구며 꺽 하고 흐느꼈다. …

얼마후 김충국소대장은 누구인가의 등에 업혀 잠복초를 떠났다.

철민은, 잠복조는 아직 남아있어야 했다.

철민은 소대장을 자기 등에 업고갈수 없는 한스러움까지 겹쳐 가슴이 막 비틀리우는것 같았다.

날은 느리게 밝아왔다.

6. 첫 군공메달

사단군의소에 입원한 김충국의 총상은 한달이 넘어서야 아물기 시작하였다. 그에게는 이 한달남짓한 동안이 열달맞잡이로 지루하고 초조하였다.

처음 군의소에 실려들어와 수술을 받고 입원실침대에 누웠을 때는 기껏 잡아 보름이면 중대로 돌아갈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보름이 두번이나 지났으나 아직 돌아갈 길은 막막하였다. 날이 더워져서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는데도 있겠지만 군의들은 환자의 조급성에서 오는 심리적부담이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마음을 푹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해가 다 가도 침상에서 해방될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그 말은 김충국을 침착하게 해준것이 아니라 속을 더 끓어번지게 했다.

그는 나이 서른이 되도록 아직 한번도 병원문전에 가본적이 없었다. 병원침대라는것은 자기에게 도저히 익숙될수 없는것이였다. 게다가 지글지글 끓는 여름철이고 구분대에서 제기될수 있는 가지가지 문제들과 그자신이 계획했던 미진된 일거리들이 머리속에서 뒤엉킬 때면 잠이 안 오고 군의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입원실에 들어온 초시기에 중대와 소대군인들이 뻔질나게

면회를 왔었는데 그때마다 문전에서 돌려보낸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소대장인 자기때문에 기준소대의 군무생활이 헝클어지는것 같았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자기가 환자취급을 받는것을 용인할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요즈음은 면회자들이 뜨음해졌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질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늘 보던 얼굴들이 때없이 그리워진다.

안해인 현순이마저도 올 때마다 눈을 부라리군 했으니 마음을 고쳐먹은 모양이였다. 40리길을 매일같이 왔다갔다하던 안해를 본지도 닷새가 넘었다.

담당군의의 오전회진이 끝난 뒤였다.

오늘은 안해만이라도 좀 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상반신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고있는데 1분대의 박호진이와 리철민이가 군의소정문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김충국은 창문을 열어제끼고 웃으며 손짓했다.

두 병사가 마주 손을 흔들며 나는듯이 달려왔다.

앞서 방으로 들어서던 박호진이가 머리를 기웃거리며 말했다.

《난 소대장동지가 그전처럼 문전거절하면 야단인데 하고 걱정했댔는데 오늘은 어찌된 일입니까?》

김충국은 짐짓 아닌보살했다.

《내가 언제 그랬다구 그래.》

박호진이 땅딸막한 몸을 뒤로 제끼며 어이없어했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 생사람 잡겠구만. 여 철민이, 동무가 말해보라.》

김충국은 박호진의 어깨너머에서 재미있게 웃고있는 철민에게 눈을 끔쩍해보이고나서 《보라, 철민이도 말 못하지 않나.》 했다.

박호진은 입을 쩝 다시며 침대에 걸터앉았다.

《좋습니다. 그렇다칩시다. 그럼 이제부터 우린 매일 오겠

으니 절대로 인상쓰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김충국은 그제야 가면을 벗어던졌다.
《아아, 됐소됐소. 말씨름은 그만하기요.》하고 침대밑을 뒤져 비닐구럭에 담긴것들을 와락와락 꺼내놓았다. 박호진에게는 사과를, 철민에게는 빵을 쥐여주었다.
《출출하겠는데 우선 먹기부터 하라구.》
박호진은 사양하지 않고 사과를 받아 뭉청 베여물고는 머밋거리는 철민을 향해 《철민이, 먹으라우. 요샌 병원에 면회온 사람이 더 많이 먹구 간다는데.》하는것이였다.
김충국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다.
《하하, 그거 아주 실리가 있는 처사로구만.》
사과 한알을 게눈 감추듯 한 박호진이 철민의 손에서 무슨 꾸레미를 받아 내놓으며 이야기했다.
《소대장동지, 이 철민동무가 말입니다, 총상에 특효인 오소리기름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소?!》
《한주일동안을 주민지구의 사냥군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이거 철민동무 신셀 톡톡히 지는군. 철민동무가 그날 총탄에 맞은 날 제끼고 일어나 적들이 숨돌릴 사이없이 사격하지 않았다면 난 영낙없이 죽었을거요.》
철민의 낯이 붉어졌다. 아니, 괴롭게 이지러졌다. 그에게는 그 치사가 철없는 아이를 추어주는 어른의 너그러움으로밖에 감수되지 않았던것이다.
《소대장동지, 다시는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하고 말하고싶은것을 참았다.
김충국은 지어낸 소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철민의 표정에서 아무런 눈치도 챌수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소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묻느라고 다른 느낌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
약 한시간후에 박호진과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충국은 근무성원인 그들을 오래 붙잡아둘수 없었다.

그들을 바래우면서 지나가는 소리처럼 귀뜀했다.

《참,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려서 말이요, 우리 그 친구한테 한번 왔다가란다고 전해주오.》

군의소에서 나와 얼마동안 걸어가던 그들은 지나가는 화물자동차를 손을 들어 세웠다. 그것을 타고 군인사택이 멀지 않은 곳에 내렸다.

김충국소대장은 결혼식을 벼락같이 하는 바람에 마을끝에 있는 단칸방을 림시로 리용하고있었다.

박호진과 철민이 마당으로 들어서니 토방에 매운 재가 가뜩 쌓여있고 부엌과 창문은 나간 집처럼 활짝 열려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고개를 기웃하고 방안을 들여다보던 박호진이 놀라서 떠들었다.

《아니, 이건 무슨 역사질입니까?》

《아이, 깜짝이야!》

얼굴에 그을음이 게발린 오현순이 놀라서 일어난다.

철민은 구들의 일부를 뜯어놓은것을 보고 대뜸 사태를 알아차렸다..

며칠전 근무후의 휴식시간에 철민은 소대장네 집에 왔었다. 연기가 가득찬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던 오현순이 철민을 보자 푸념비슷한 소리를 했다.

《…비가 자주 오고 눅눅해서 그런지 연기가 거꾸로 나오면서 어디 불이 들어야지요. 처음에 구들수리부터 했어야 하는데 동무네 소대장동진 어찌나 바쁜 사람인지…》

철민은 아궁을 들여다보고 구들에 올라가 굴뚝과 련결된 자리도 짚어보고나서 불이 안 드는 원인을 짐작했다.

《오래된 집이여서 개자리와 고래에 재가 앉았을겁니다.》

오현순은 신기한 눈으로 철민을 바라보았다.

《개자린 뭐구 고래는 또 뭐예요?》

철민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것까진 몰라도 됩니다. 내가 며칠안으로 짬을 내서 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현순은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제 손으로 구들을 뜯어놓은것이다. 아니, 철민이나 소대군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제잡담 일판을 벌려놓았을것이다.

첫눈에 알리는 일을 박호진은 리해할수 없다는듯 재차 물었다.

《지금 뭘하고있습니까?》

《아이, 보고도 모르겠어요?》

《내가 몰라서 묻는줄 아십니까. 이거 중대장동지가 알면…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감쪽같이 하려댔는데 그만 동무들한테 들켰군요. 그런데 어떻게들 알고 왔어요? 혹시 철민동무가?》

내막을 알지 못하는 박호진이 코를 찡긋하며 수선을 피웠다.

《이 박호진이가 냄새를 맡는데는 선수권보유자이지요. 여 철민동무, 우리 제꺽 도와주구 가자구.》

《예.》

둘은 팔을 걷어붙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오현순이 난처해하며 철민을 향해 눈을 빨았다.

《오려면 혼자나 올것이지…》

철민은 황황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 아닙니다, 일부러 온건… 우린 지금 소대장동지 면회 갔다오는 길입니다.》

《그래요?!》

박호진이 께끼였다.

《아참, 소대장동지가 당장 오시랍니다. 보구싶어서 몸살을 앓으시는것 같습니다.》

오현순은 두 병사 모르게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박호진이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그런데 할줄이나 아는 일을 벌려놓았는가요?》 하고 미심쩍은 소리를 했다.

그러자 오현순은 단박 면박을 가했다.

《하사동무, 옛 전신소대장을 뭘루 아는거예요?》

박호진이 어깨를 움츠렸다.

《아차, 내가 실언을 했군. 잘못했습니다. 중위동지!》

《호호, 사실은 철민동무가 귀띔해준 말을 듣고 시작한 일이예요.》

박호진이 힐끗 철민을 돌아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철민동무가 온돌에도 정통했는가?》

일을 시작했다.

박호진은 원래 막히는 일이 없는데다 농촌태생이여서 그런지 온돌물계에도 밝았다. 철민은 뒤에서 거들어주기만 했다.

그런데 미장이 서툴렀다. 면이 고르롭지 못하고 군손질이 잦았다. 철민은 심부름이나 해주는것이 마음에 걸려 《좀 쉬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하고 혼합물을 섬기던 삽을 놓았다.

박호진이 군말없이 자리를 내준것은 철민이가 어쩌나 보자하는 심산이였던것 같았다. 미장칼을 넘겨받은 철민이가 숙련된 동작으로 혼합물을 척척 가져다붙이고 미장면을 매끈하게 잡아나가는것을 보면서 혀를 찼다.

《이거 정말 철민동무앞에선 하나부터 열까지 구대원구실하기 힘들구만.》

부엌으로 나가 두 병사에게 무엇인가 해먹이려고 가스곤로앞에 앉아있던 오현순이 정깊은 눈길로 철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난 철민동무를 처음 봤을 때 남처럼 여겨지지 않더군요. 겉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내 남동생 삼고싶었어요.

철민동문 보배덩이예요. 평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왔다는데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을가요. 장작도 잘 패지, 미장도 잘하지. …》

박호진이 롱지거리로 한마디 더 보탰다.
《그뿐인줄 압니까, 돼지도 잘 기르지요.》
둘은 점심시간이 썩 지나서야 일을 마무리했다. 오현순이가 기어코 끓어앉히는 바람에 늦은점심까지 대접받고 중대로 돌아왔다.
부소대장은 늦은 사연을 듣고나서 한창 치하를 하더니 그들을 쉬우고 잠복근무에 다른 대원들을 대신 내보내야겠다고 했다. 박호진은 철민동무만 쉬우자고 했다. 철민은 그렇게 할수 없다고 했다.
철민이가 요즈음에 와서 굳게 마음먹은것은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것이였다. 칭찬에는 일종의 독이 발려있다고 한다.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였다. 학교때부터 칭찬받는데 습관되다나니 저도 모르게 자란 교만과 자기위주의 사고방식이 군무생활에서까지 표현되여 과오도 범하게 되였던것이다.
철민은 동지들과 집단의 칭찬을 더 높은 목표에로 치달아오르라는 고무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신입병사시절은 지나갔다.
철민은 지난해에 입대한 대원들과 함께 한등급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받았다. 남들과 꼭같이 받은 군사칭호였지만 철민의 기쁨은 남달랐다. 그는 붉은 판에 한줄이 건너간 령장을 달고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편지와 함께 부모님들에게 보냈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여름철훈련총화와 함께 모범적인 군인들에 대한 표창식이 있었다.
부대가 모인 군인회관에서 철민은 군공메달을 수여받았다.
철민은 그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해졌다. 주석단에서 자기이름이 불리워졌을 때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군인이겠지 하고 아예 일어날념을 안했었다. 곁에서 누구인가 뚱기쳐서야 발이 땅에 닿는지, 공중에 떴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주석단으

로 나갔다.

중대로 돌아오면서 철민은 무엇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단정치부의 어떤 일군이 펜을 잘못 놀려 수훈자명단의 이름을 바꾸어놓는 실수를 저질러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을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도 그럴것이 중대에서 지난해에 입대한 군인들중에 수훈자는 리철민이 혼자뿐이였다. 아무리 더듬어봐야 자기는 그들보다 뻬여지게 잘한것이 없었다. 동기훈련에서 규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것이 남들과 다르다면 다를것이였다.

철민은 군공메달을 슬그머니 떼서 줌안에 넣었다. 그에게는 군공메달과 련결된 못 잊을 추억이 있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느 기념일 아침에 있은 일이였다. 철민은 행사장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려는 아버지앞에 다가가 훈장을 하나하나 세여보았다. 아버지에게는 훈장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맨 밑단에 달려있는 색바랜 3개의 메달이 어쩐지 볼품이 없었다.

《아버지, 이건 보기 싫은데 달지 않으면 안되나요?》

아버지는 어린 자식의 말이지만 심중해졌다.

《철민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생에 잊지 못할 시절이 있는 법이다. 이 메달은 아버지가 총잡고 당과 수령을 옹위하던 군사복무시절에 받은 군공메달이다. 그때에 받은 메달이여서 나에게는 더없이 귀중하구나. 지금도 아버지는 이 메달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군사복무시절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바쳐 일하고있는가를 돌이켜보며 살고있단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철민은 아버지의 군공메달을 자주 꺼내 닦군 하였다. 그리고는 그 메달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군 하였다. 어머니가 곁에서 거기에 무엇이 보이는가고 웃으며 물으면 《아버지처럼 군복을 입고 총잡은 내 모습이 보여요.》 하고 대답하군 하였다. 고등중학교(당시) 3학년때 구성시의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당일군으로 사업하던 아버지가 한 특류영예군인을 데리고 집에 온적이 있었다. 공장의 처녀와 결혼하게 된 영예군인은 집을 꾸릴 때까지 한동안 철민네 집에서 살게 되였었다. 그 영예군인의 가슴에도 군공메달이 빛나고있었다. 철민은 생각깊은 눈길로 그 군공메달을 어루만지였다. 영예군인은 철민이가 부러워서 그러는줄 알고 군공메달을 그의 가슴에 달아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철민은 정색해서 말했다.

《아니예요. 내 메달은 이제 군대에 나가 내가 타서 달겠어요.》

어린시절부터 가슴속에 소중하게 간직된 그 군공메달을 남먼저 수여받게 된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였건만 철민은 그것이 자기의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도저히 털어버릴수 없었다.

철민은 그날 밤 그 한가지 생각에 옴해서 잠을 설쳤다.

철민은 정치지도원을 찾아갔다.

군공메달을 내놓으며 이야기했다.

《…이 군공메달이 정말로 저에게 수여된것이라 해도 저는 받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군무생활을 잘해서 떳떳하게 받고싶습니다.》

철민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감까지 진지하게 듣고난 정치지도원은 철함에서 서류 한장을 꺼내여 철민에게 내밀었다.

《이건 중대에서 사단정치부에 올려보낸 군공메달내신서 초안이요. 읽어보오.》

철민은 얼떠름한 상태에서 서류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씌여있었다.

…

△군공내용

…특히 전사 리철민동무는 지난 6월 군사분계선 우리

측 지역으로 기여든 적들과의 전투에서 잠복조장이 준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였다.

…만일 신입병사인 리철민동무가 그때 겁을 먹거나 지휘관의 명령을 명심하지 않고 잠복초를 리탈하였다면 우리는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입고 초소를 굳건히 지켜낼수 없었을것이다. …

철민은 서류에 눈길을 박은채 까딱 안했다.

정치지도원이 덧붙여 이야기했다.

《…우리의 모든 군무생활은 실전을 위한것이요. 동무의 행동이 훈련에서였다면 평범하고 응당한 일로 스쳐보낼수 있소. 하지만 실전에서 발현된것이기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표창한거요.》

철민은 머리를 들었다.

《정치지도원동지! 여기에는 왜 소대장동지가 자기 한몸으로 저에게로 날아드는 탄알을 막아준 자료는 없습니까. 소대장동지가 아니였다면 전!…》

정치지도원은 빙긋 웃으며 철민에게로 다가왔다.

철민이가 대견하고 돋보였다. 18살, 아직은 애티가 나는 신입병사에 불과하다. 허영심도 있을수 있고 어떻게든 남보다 두드러지고싶어할 그 나이에 이런 겸손과 양보심을 가진다는것은 쉽지 않다. 천성일가, 남다른 교양을 받은때문일가?

정치지도원은 철민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철민동무, 우리 지휘관들은 전사들을 위해 바친 땀이나 피를 계산하지 않소. 이건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내려오는 우리 군대의 특이한 전통이요.》

정치지도원은 철민이가 내놓은 군공메달을 곽에서 꺼내여 그의 가슴에 다시 달아주었다. 미더운 눈길로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철민동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티없이 순결한 마음을 안고 복무의 길을 걸어나가리라고 믿소.》

《명심하겠습니다, 정치지도원동지!》

《응, 어서 가보오.》

《돌아가겠습니다!》

철민은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하고 정치지도원의 방을 나왔다. …

그 이후부터 리철민의 군무생활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철민은 그 이듬해에 있은 새 학년도 동기훈련에서 중대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병사로 평가받았다. 3월에 있은 련대적인 3종사격경기에서는 모든 종목에서 우를 맞아 련대장의 감사를 받았다.

5월에는 표창휴가를 받고 그리운 부모님들과 정다운 모교가 있는 평양으로 가게 되였다.



제 3 장. 아픈 추억

《오늘은 그만하고 쉬지 않겠습니까?》

자정이 될무렵 박호진작업반장이 담배불을 재털이에 비벼 끄며 권고했다.

나는 그가 먼길을 온 나를 념려하여 그러는줄 알았다.

《난 피곤하지 않으니 일없습니다. 마저 들읍시다.》

그러자 박호진은 난처해했다.

《난 래일 아침 일찌기 군에 회의가야 합니다.》

《회의요?》

《예, 군내 작업반장들이 모여 시범단위들의 남새온실을 돌아보고 경험을 교환하는 회의입니다.》

《하루에 끝나는 회의인가요?》

《웬걸요. 이틀이나 사흘은 걸릴겁니다.》

진짜 난처해진것은 나였다.

《그럼 난…》

박호진은 대수롭지 않은듯 말했다.

《뭐랍니까. 우리 집에서 며칠 묵으십시오. 오래간만에 산촌에 오셨겠는데 머리쉼도 할겸.》

《난 그럴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요? 어쩐다…》

합의를 보지 못한채 잠자리에 누웠다.

나는 채 듣지 못한 이야기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잠든줄 알았던 박호진이 내쪽으로 돌아누우며 슬며시 비쳤다.

《취재를 마저 하려면 우리 부대에도 다녀오셔야겠지요?》
《예. 8월추석에 리철민영웅의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박호진은 상반신을 일으키며 벌쭉 웃었다.
《그럼 됐습니다. 해마다 가진 못하지만 나도 이번 추석엔 철민동무한테 가보려고 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요?!》
《부대에 가서 우리 전우들과 함께 마저 이야기를 나누는게 어떻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나는 다음날 개운한 마음으로 박호진과 헤여졌다.
그날로 평양에 돌아왔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안해가 인민봉사총국의 부원이라는 녀자한테서 몇번이나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취재를 다니면서 풋낯이나 알게 된 어떤 녀자이겠지 하고 흘려들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습관처럼 전화수첩을 뒤적여보니 마감장에 《인민봉사총국 최선희》라고 안해가 전화상대자를 밝혀놓은것이 눈에 띄였다.
그제야 나는 리철민고급중학교에 갔을 때 류옥련선생과 함께 만나본 최선희가 생각났다.
즉시 송수화기를 들었다. 귀에 익은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선희입니다. 아이, 출장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습니까?》
《방금전에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철민동무에 대해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전화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길 빼놓고 소설을 쓰시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요?!》

취재대상이 이렇게 적극적인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언제 어디서 만날가요?》
나는 성급하게 물었다.
《퇴근후에 어디서든…》
나는 산책하기도 좋고 이야기하는데도 방해가 없는 대동강 유보도로 정했다.
다음날 저녁녘에 나는 유보도에서 최선희와 만났다.
그리하여 나는 그에게서 리철민영웅이 표창휴가를 받고 집에 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것은 예상치 않았던 소재감이였다.

1. 가 풍

철민이가 렬차를 타고 평양역에 도착한것은 저녁녘이였다.
군대배낭을 간편하게 메고 역앞마당에 나온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옹근 2년만이였다.
역앞의 거리와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별로 달라진것이 없건만 철민에게는 눈에 띄우는 모든것이 새로와보였다. 아빠트들은 두세층씩 더 높아보이고 신호봉을 든 교통보안원처녀들의 몸차림은 전보다 더 아름다와보였다.
집까지는 걸어서도 30분이면 넉넉했다.
철민은 지하건늠길을 건너 백화점앞의 공중전화소에서 집에 전화를 걸가 하다가 그만두었다. 예고없이 들어서서 식구들을 깜짝 놀래우고싶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눈여겨보는것만 같았다. 어깨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았다. 어느사이에 아빠트밑에 왔는지 알수 없었다.

11층을 단숨에 뛰여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아니면 누이동생 철순이를 먼저 볼줄 알았던 철민은 열린 문앞에 아버지가 나타나자 팔을 벌려 포옹하려던 자세가 굳어졌다.
《아버지!…》
아버지는 너무 뜻밖이여서 그런지 철민을 안으로 들여세울 생각을 안하고 마주보기만 했다.
불현듯 철민은 군대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가 했던 세가지 당부가 떠올랐다.
《…첫째, 군복을 입고 나간 다음에는 마음대로 집문턱을 넘어들어올수 없다. 만기군사복무전에 집에 올수 있는 경우는 표창휴가 아니면 조직적인 추천이다.
둘째, 군사복무기간에 아버지나 가족, 친척들의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수 없다.
셋째, 만기복무후의 전망문제는 자의대로 결정할수 없다. 당에서 군사복무를 계속하라면 해야 한다.》
철민은 아버지가 지금 그것을 념두에 두고 문을 막고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리응석은 다름아닌 그것때문에 아들을 선뜻 포옹하지 못하고있었다. 군대에 나간지 이제 겨우 2년이 된 아들이 집에 올 합법적인 리유는 극히 드물었다. 무슨 일로 왔을가? 너무 그리워서 군대에 나갈 때 아들이 했던 말을 록음한 소형록음기를 출장가면서도 가지고다니는 자기가 지금 그 아들을 눈앞에 두고 무슨 의심부터 앞세운다는것은 참으로 매정한 처사가 아닐수 없었다.
곧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리응석은 꿈결처럼 들었다.
《아버지! 표창휴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럼, 그럴테지! 아무렴, 내 맏아들이 누구라구!
《철민아!》

그는 자기보다 더 커진 아들을 와락 부둥켜안아서 방으로 끌어들였다. 신발을 벗으려고 버둥거리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일없다, 일없어! 군화발로 온 방안을 탕탕 굴러봐라!》하면서 이번에는 허리를 굽히고 굵직한 다리를 꽉 그러안았다.

《큰오빠!》

누이동생 철순이가 달려나와 매달렸다.

《철순아!》

2년사이에 몰라보게 자란 누이동생이였다. 철민은 누이동생을 번쩍 들어올리려다가 그 애가 쑥스러워하는 바람에 내려놓고 하하 웃고말았다. 아버지도 따라웃다가 가슴에 달린 략장을 발견하고 기쁨에 넘쳐 말했다.

《군공메달이구나! 아버진 너처럼 빨리 받지 못했었는데…》

철민은 아버지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다가 부엌을 기웃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것이 이상했다.

《어머닌?…》

《어머닌 작업반원네 집에 가정방문을 갔다.》

《그래요?! 전 출장이 많은 아버지가 집에 계실줄은 몰랐습니다.》

《응, 그래서 네가 문을 여니 잠간 뻥해있었구나. 허허, 그런걸 난… 나도 보름나마 지방에 나가있다가 어제야 돌아왔다. 아마 네가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던 모양이야. 자, 들어가서 군복이랑 벗고 다리쉼을 하거라. 배가 출출하겠는데 어머닐 기다릴것없이 오늘 저녁은 내가 지어주지. 마침 우리도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철민은 부엌으로 따라들어가 아버지를 만류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다, 들어가있거라, 얘, 철순아! 큰오빠한테 랭동기에 있는 과일을 꺼내서 대접하거라.》

《네. 큰오빠, 들어가자요.》
철순이에게 이끌려 들어간 곳은 군대에 나가기 전까지 이 집안의 맏이인 자기에게 아버지가 특별히《배정》했던 방이였다.
철민은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려있는 두개의 《조선인민군 입대증》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자기의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생 철준의것이였다. 철준이는 지난해에 입대하였는데 서해안의 섬방어대에 가있다고 했다.
과일을 들고 들어온 철순이가 곁에 다가서더니 키돋움을 하여 두개의 입대증옆에 손가락을 짚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에는 내 입대증이 붙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철순이가 이젠 다 컸구나!》
하긴 철순이도 이번 새 학년도에 고등중학교(당시) 2학년에 올라갔을테니 그리 멀지 않은 앞날이다.
철순이는 다반에서 크고 먹음직한 사과 한알을 골라 철민에게 내밀고는 마주앉아 빤히 올려다본다.
《왜 그렇게 자세히 보니?》
《작은오빤 날 고와 안했어, 그저 욱박지르기만 하구. 그래서 큰오빠가 얼마나 보구팠댔는지 몰라.》
《그래? 작은오빠가 집에 오면 혼내주어야겠구나.》
《아니야, 작은오빠두 군대에 나가니까 보구파. 참, 아버지가 큰오빠 말 록음했다. 내가 가져올게.》하고 철순이는 저쪽방으로 건너가 록음기를 가져다 켜놓았다.
철민은 록음기에서 두해전 초소로 떠나기 전날 저녁에 가족들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듣게 되였다.
《…군대에 나가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대로 옹위하는 참된 병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근심도 많던 어머니 그리고 나를 대바르게 키우려고 마음도 많이 쓰신 아버지!… 부모님들의 사

랑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조국의 장한 아들이 되여 돌아오겠습니다.

철준이, 철순아! 내 말을 새겨듣거라. 우리 집안의 가풍은 군인정신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졸업하면 꼭 군대에 나가야 한다. …》

그때 출장중이였던 아버지는 전화로 철민이가 하는 말을 록음해두라고, 돌아가서 듣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록음한것인데 아버진 그것을 보관하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이 후날 공화국영웅 리철민이 남긴 육성으로 출판보도물에 공개되여 많은 사람을 울리게 될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얼마후 아버지가 전실에 저녁상을 차려놓고 철민과 철순이를 불렀다.

철민은 상앞에서 머밋거렸다.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어머닌 좀 늦어질게다. 식량이 떨어진 집에 쌀과 부식물을 얼마간 가지고갔는데 작업반장이니 그것만 주고 훌 돌아설수 있겠니?》

《?!》

철민은 가슴을 찌르는듯 한 예리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고향집에 들어서서 병사—리철민이가 받은 첫 충격이였다.

그가 군대에 나가기 전에도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였다. 배고픔도 느껴보고 가정의 어려운 사정도 알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참기 힘들고 눈물나는것으로 가슴에 새겨지지는 않았다. 자식들의 배를 곯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모들의 아픔, 시련을 겪는 조국의 몸부림이 피부에 와닿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였었다. 총잡고 조국을 지키는 병사가 된 지금은 그것이 심장을 파고든다. 한가정을 벗어나 남의 살림까지 관심하느라 늦도록 들어오지 못하는 어머니가 한없이 돋보이고 눈물겹도록 고맙게 생각된다.

《…아직 모두 어렵게들 살고있다. 이번에도 여러날 지방의 기계공장들에 나가있으면서 보았는데… 그러나 공장은 돌아가고있다. 죽물과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우리 로동계급은 기대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있다.》

아버지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철민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왜 그러느냐?》

《어머니마중을 가겠습니다.》

《큰오빠, 나두.》하고 철순이도 따라일어났다.

철민은 철순의 손목을 잡고 복도에 나섰다.

철순은 계단을 내리며 철민의 팔에 동동 매달렸다.

《큰오빠, 표창휴가문 집에서 며칠이나 있게 되나?》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니?》

《음… 열흘!》

《그보다 더 있게 된다.》

《정말? 야, 좋다!》

오누이는 아빠트현관을 나서자마자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

어머니는 선뜻 철민을 알아보지 못했다.

철순이가 《엄마, 큰오빠야요.》해서야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다.

《아니, 이게 누구냐?! 철민아!》

철민은 팔을 벌린 어머니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는 너무 뜻밖이여서 철민의 얼굴을 쓸어만지며 보고 또 보았다.

《어떻게 왔느냐? 편지 한장 없더니.》

《이렇게 불쑥 나타나려고 편지도 안했지요. 어머니가 늙지 않은걸 보니 기쁘군요.》

《늙지 않을게 뭐냐. 난 널 내보낸 2년이 얼마나 길었던지 모른다. 게다가 철준이도 나갔지. 어서 올라가자!》

방에 들어선 어머니는 아버지가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어줍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우리가 늘 해먹을 때하군 좀 차이나지 않는가.》

《당신은 정말!… 아무렴 우리 집에 표창휴가 온 아들 대접할게 이것밖에 없단 말이예요?!》

어머니는 당장 부엌으로 나갈 잡도리였다.

철민은 어머니의 팔을 꼭 붙들었다.

《어머니, 오늘만 날인가요. 그리고 난 아버지가 차린 이 수수한 저녁상이 좋군요. 여기서는 예나 지금이나 사라지지 않는 우리 집 냄새가 풍겨요.》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서 철민을 바라보았다.

《넌 어릴 때부터 그랬지. 난 네가 투정질이라도 한번 하는걸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에 어지간히 긴장했던 아버지가 웃음을 지었다.

《자, 이젠 기본적으로 화해를 한셈이니 상앞에 나앉자.》

철민은 배낭에서 술을 한병 꺼냈다.

《우리 소대장동지가 떠날 때 넣어준겁니다.》

《그래. 철순아, 술잔을 가져오너라.》

부엌에 나갔던 철순이가 술잔을 한개만 가지고 들어오자 심란해서 상만 내려다보고있던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화를 냈다.

《철순아, 이 엄만 큰오빠한테 술 한잔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더냐?》

철순이가 뾰로통해서 종알거렸다.

《엄만 녀자들은 술마시문 안된다구 하구선.》

《얘, 난 너희들한텐 녀자가 아니라 어머니다.》

아버지가 닁큼 일어나서 술잔을 두개 더 가지고 들어와 어머니와 철민이앞에 놓았다.

《자, 이젠 부어라.》

세개의 유리잔에 맑은 술이 찰랑찰랑 고였다.

어머니가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술잔에 손을 가져가자 아버지는 잔을 높이 쳐들었다.

《자, 쭣자!》

철순이가 《쨍가당!》하고 입소리를 내며 짜락짜락 박수를 쳤다.

방안에 웃음이 넘쳤다.

술 한잔을 단숨에 들이킨 아버지가 흐뭇해하였다.

《정말 좋구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앉은들 이보다 더 좋겠니. 여보, 그렇지 않소?》

《네!…》

어머니가 눈굽을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철민은 정말 기뻤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혈육의 정, 자기 가정에만 있을듯싶은 후더운 분위기에 가슴이 달아올랐다.

그는 누이동생에게 눈짓했다.

《철순아, 기타!》

《응.》

철순이는 손벽을 치며 일어났다. 큰오빠가 기타를 치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던 어제날이 되살아났던것이다.

잠시후 철민은 낮익은 기타를 안고 줄을 튕겼다. 철순이가 그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비바람 창가에 몰아쳐오고
찬서리 내린다 해도
귀여운 아이들아 두려워말아
아버지가 계신단다
포근한 너희 요람 지켜주신다

온 나라 아이들을 보살피신다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2절부터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따라불렀다.

포성은 저 멀리 울리여오고
불구름 밀려온대도
귀여운 아이들아 걱정을 말아
아버지가 계신단다
…

2. 리 별

다음날 오후에 철민은 학교로 찾아갔다.

《평양시 중구역 련화중학교》라는 명판을 새긴 학교정문으로 들어서니 운동장은 과외체육을 하는 아이들로 법석 끓었다.

철민은 감회에 젖어 운동장을 둘러보았다.

축구공을 놓고 편이 따로없이 와와 몰려다니는 아이들이 각별히 눈길을 끌었다. 3, 4학년쯤 됐을가. 어느 한 아이가 길게 찬 공이 높이 떠서 철민이한테로 날아왔다. 철민은 본능적으로 공받을 자세를 취했다. 군모를 벗어쥐고 달려나가면서 단번에 머리로 처리할가 하다가 기교를 부려 가슴으로 받아서 튀여난 공을 무릎으로, 나중에는 발등으로 재치있게 정지시켰다.

난데없이 나타난 군인의 멋진 련결동작에 현혹되였던 아이들이 인차 철민을 알아보았다.

《6학년 4반 학급장 하던 철민형 아니야?》

《응, 맞아. 히야! 멋있는데.》
싱글싱글 웃으며 다가와서 꾸벅 고개숙여 인사하는 아이도 있었다.
철민은 공을 굴려 아이들앞으로 보내며 미소를 지었다.
정다운 학급동무들과 함께 운동장이 좁다하게 뛰여다니던 그 나날이 어제런듯 눈에 삼삼했다. 못 잊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보고싶었다.
교사앞에서 철민은 현관 량옆에 서있는 감나무에 눈길이 갔다. 졸업을 앞두고 학급동무들과 함께 심었던 애어린 감나무가 벌써 키를 넘게 자랐다. 봄물이 함뿍 어린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결에 한들거리며 자기들을 이 교정에 뿌리내리게 한 철민을 반기는것만 같았다.
철민은 곧바로 담임이였던 옥련선생을 찾아 음악소조실로 갔다. 아쉽게도 옥련선생은 없었다. 전국학생소년들의 음악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조원들과 함께 여러날째 학생소년궁전에 가있다는것이였다.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분과실들을 다니며 학과목담임이였던 선생님들에게도 인사를 했다.
얼마후 교사에서 나온 철민은 교재림에도 가보았다. 그곳에 심은 감나무들도 푸르싱싱하게 잘 자랐다. 나무마다에 관리자를 밝힌 학급패쪽들이 빠짐없이 걸려있는걸 보면 아래학년에서 얼마나 주인답고 책임적으로 감나무를 관리하고있는지 짐작되였다. 그들이 고마왔다.
철민은 교사측면에 있는 하수도망의 망홀앞에서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 콩크리트뚜껑에 《6학년 4반에서 제작》이라고 새긴 글을 여겨보느라니 괜히 고생을 사서 한다고 툴툴대던 몇몇 애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끝내 망홀뚜껑을 제작하여 보기 흉한 이 구멍을 덮고 기쁨에 넘쳐있던 그날이 떠올랐다. 결국 자기가 학급장이였던 6학년 4반은 감나무와 함께 모교에 흔적을 남긴셈이다. 그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더

라면 오늘과 같은 긍지를 맛보지 못할것이다.
저녁녘에 집에 들어온 철민은 전화기앞에 마주앉았다. 동창생들과 전화련계를 하고 옥련선생의 집을 찾아갈 결심이였다. 남아있는 동창생이라야 거의가 군대에 나가고 기계대학에서 공부하는 영성이를 비롯한 몇동무였다.
전화번호수첩을 뒤져 영성이네 집을 찾았다.
영성이는 너무 반가와서 당장이라도 달려올듯 했다.
《…표창휴가를 왔단 말이지. 철민이, 넌 군대에 나간 동창생들중에서 맨 처음으로 표창휴가를 온셈이다. 널 축하하는 모임을 가져야겠다.》
《너무 그러면 안되겠는데. 내가 이거 공연히 표창휴가요, 뭐요 하면서 제 자랑한것 같구나.》
《무슨 소릴, 그야 후방에 있는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이지. 인쇄공업대학에 다니는 병준이두 찾구 통계전문학교에 다니는 선희동무두 불러내겠다.》
《녀동무들까지야 뭘… 그보다도 난 담임선생님을 먼저 만나야겠다. 오늘 학교에 갔다가 음악소조를 데리고 예술축전에 가셨다기에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래일모레가 선생님의 생일이니 그날에 선생님네 집에 찾아가는게 어때?》
《래일모레면… 맞구나! 넌 군대에 나가서도 선생님의 생일을 잊지 않고있었구나. 역시 학급장이 달라. 그럼 그렇게 하자.》
전화기에서 물러나 얼마 안 있어서 《찌르릉―》하는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송수화기를 드니 귀에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리철민동무네 집이 맞습니까?》
《예, 제가 리철민입니다.》
《아이, 철민동무!》
《누굽니까?》
《나예요, 선희.》

《아, 선희동무!…》
저쪽에서 단박 토라진 소리가 울려왔다.
《음, 동문 뭐예요? 왔으면 나한테부터 알려야지.》
철민은 웃음이 나왔다. 학교때처럼 선희의 약을 올려주고 싶었다.
《내가 왜 동무한테 먼저 보고를 한단 말이야?》
《초급단체위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동문 군대에 나가더니 례절이 없어졌군요. 편지를 몇번이나 했는데 회답을 한번 하길 하나.》
아차! 철민은 이마를 쳤다. 그에는 할말이 없었다. 어찌된 일인지 선희에게는 벼르기만 하다가 정말 한번도 회답편지를 쓰지 못했었다.
《할말이 없지요? 오늘도 뭐예요. 나한테는 도착보고를 하지도 않은데다 저희들끼리 선생님생일에 가자구 쑥덕공론을 해요?》
《야, 이거 정말 할 소리 없는데. 영성이 그 친구 미주알고주알 다 고여바쳤구나.》
《흥, 철민동문 표창휴가를 왔다지만 나한테만은 축하받을 생각 하지 말아요. 이 초급단체위원장이 개별총화를 받아내겠으니 그 준비나 똑똑히 하는게 좋을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또 만나요.》
철민은 무슨 말인가 더 하고싶었으나 선희가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어쩌는 수없이 송수화기를 놓았다. 정말 단단히 벼르고있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아무런 변명도 할수 없게 되였다.
이상했다. 선희의 편지를 받아쥐기만 하면 까닭없이 속이 두근거렸었다. 편지의 글줄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철민은 보고 또 보았다. 그것도 남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서 펴보군 하였다. 그리고는 선희의 편지만은 허술히 건사하지 않고 품속에 넣고 다녔다. 언

제인가 한번 병실에서 웃옷을 벗다가 편지를 바닥에 떨군적이 있었다. 곁에서 누구인가 주으려는것을 덮치듯이 달려들어 앗아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안심치 않아 비밀쪽지를 없애듯 태워버리군 했다. 회답을 하려고 종이를 펴놓으면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다. 쓰다가는 꾸겨버리고 쓰다가는 꾸겨버리고 하다가 말았다. 그러니 선희가 가만있을리 없다. 끈질기게 캐여물으면 정말 어떻게 한다?…

옥련선생네 집에 가기로 한 일요일 오후였다.

철민은 집에서 시계를 보며 영성이에게서 련락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얼마후에 선희에게서 《우리가 그리로 갈테니 10분후에 아빠트밑에 내려오세요.》라는 전화가 왔다.

철민은 그들이 일부러 자기한테까지 와서 함께 가려는줄로 생각하고 부리나케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에서 나와 궤도전차정류소쪽을 바라보며 걷고있는데 승용차 한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와 그앞에 멈춰서는것이였다.

철민은 차에서 상체를 내미는 선희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은 자기가 상상했던 중학시절의 선희와는 너무나 딴판이였다. 머리는 대학생처녀들처럼 단발이였지만 옷차림은 완전히 사회녀성의 차림이였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것은 동그스름한 얼굴에 크고 어글어글한 눈뿐인것 같은데 화장때문인지 그 얼굴이 전보다 더 희고 아름다와보였다. 그 얼굴에 함뿍 미소를 머금고 선희는 열린 승용차문에 가볍게 기대고 자기를 바라보고있었다.

《철민동무!》

철민은 까닭모르게 낯이 붉어졌다.

다행히 차 뒤문에서 영성이가 튀여나와 철민을 그러안는 바람에 어색한 첫 순간은 지나갔다.

《철민아!》

《영성이!》

둘의 상봉을 지켜보고있던 선희가 말했다.

《우리 삼촌 차인데 머무르고있을 시간이 없으니 회포는 가서 나누자요. 영성동문 앞에 타요. 난 철민동무와 회계할것이 있어요.》하고 선희는 뒤문을 열고 철민과 함께 뒤자리에 올라앉았다.

차가 떠나자 영성이가 뒤를 돌아보며 의문을 내비쳤다.

《뭘 회계한다는거야?》

선희가 능청스럽게 말머리를 돌렸다.

《전연초소의 군인한테 뭘 회계하겠어요. 그동안 적을 얼마나 잡았는가 하는거지요.》

영성은 롱담으로 여기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철민은 그러는 영성의 등을 툭툭 치며 말했다.

《선희동무가 허황한 소릴 하는게 아니야. 난 진짜적과 맞다들렸댔어. 그런데 내 총탄이 얼마나 위력한지 모두 철조망 저쪽에 가서 뒈졌단 말이야. 그러니 세여볼수가 없었지.》

영성이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회계를 못하겠군.》

철민은 시치미를 떼고 말을 받았다.

《통일이 된 다음엔 할수 있을거야. 하하—》

차는 광복거리에 있는 어느 한 아빠트밑에 이르렀다. 옥련선생의 집이 있는 아빠트였다. 출가한 후 새로 잡았다는 집이여서 철민이도 처음 와보는 곳이였다.

옥련선생은 그들이 온다는 련락을 받고 기다리고있었다. 생일같은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고 영성이나 선희들만이라면 오지부터 못하게 하려댔는데 철민이가 표창휴가를 왔다기에 만사를 젖혀놓고 시간을 냈다는것이였다.

옥련선생은 그동안 귀여운 딸애를 가진 아이엄마가 되였다.

철민은 옥련선생의 집에 가면 세대주를 만나 졸업전에 철없

이 훼방을 논데 대해 미안한 소리부터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과학원연구사인 세대주는 출장중이라고 했다. 아쉬웠다.

생일상은 선희가 가뜩 꾸려가지고 와서 푸짐해졌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민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도 불렀다.

작별을 하고 아빠트현관밖을 나서는데 옥련선생이 급히 따라나왔다.

《그저 헤여지자니 아쉽군요. 우리 사진 한장이라도 남기자요.》

선희가 콩 뛰여오르며 자기의 이마빡을 쳐박았다.

《야,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가요.》

잠간 무슨 생각엔가 잠겼던 철민이가 동닿지 않는 소리를 했다.

《선생님! 아직 감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선희와 영성은 무슨 뜻인지 몰라했지만 옥련선생은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철민동문 그 말을 새겨들었군요.》

《그래서라기보다 동무들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끼리만 사진을 찍었다는걸 알면 섭섭해할겁니다.

선생님! 교정에 심은 감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그날에 제가 꼭 다시 올테니 그때 학급이 다 모여서 사진을 찍읍시다.》

《할수 없군요, 학급장동무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어때요? 초급단체위원장동무의 생각은?》

선희는 등을 돌려대며 토달거렸다.

《철민동문 왜 〈량심〉 없이 미리 와가지구…》

그다음은 곧 돌아서서 소리를 내여 웃었다.

옥련선생은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빠트밑에 서있었다. …

늦은저녁이였다.

철민과 영성은 선희가 길옆의 공원으로 끄는 바람에 하는

수없이 공원의자에 나란히들 앉았다.

셋은 옥련선생과의 상봉에서 떴던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던지라 또다시 이야기판을 벌렸다.

철민은 그사이 선희와의 거리감을 해소해버렸다. 어딘가 이색적인감이 드는 선희의 옷차림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선희동문 학생이 맞긴 맞아?》

《왜요?》

《학생이라면 교복이 있고 휘장이 있을것 아니야?》

선희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전문학교 교복같은걸 뭐 일요일에까지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겠어요, 영성동무처럼 중앙대학이라면 몰라두.》

영성이가 퉁을 놓았다.

《통계전문이야 선희동무가 중앙대학을 마다하고 지망한 곳이 아니야?》

《그렇긴 해도 대학이 대학이지요.》

《그럼 이제라도 대학에 가지뭐. 동무야 얼마든지…》

선희는 맞은편에 앉은 영성을 쏘아보았다.

《영성동무하군 언제봐야 말할 재미가 없어요. 난 통계전문학교가 나쁘다고는 안했어요. 동문 기계박사는 될지 몰라도 생활박사는 되지 못할거예요.》

영성은 그 말이 몹시 비위에 거슬렸던 모양이였다.

《하긴 뭐, 누구에게나 자기 처지를 정당화할 구실은 있지.》하고 야박한 소리를 했다.

선희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철민은 선희의 말을 자르며 일어섰다.

《됐어, 언쟁은 그만하고 가자!》

까박을 붙이는 영성이나 타산적인 선희의 이야기나 다 비위에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분좋은 날에 자기까지 언쟁에 말려들고싶지는 않았다.

셋은 서먹서먹하게 헤여졌다.

철민은 그닥 개운치 못한 기분으로 집에 왔다.

다음날 저녁 선희가 전화로 찾았다.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는것이였다.

철민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선희가 정한 장소에 갔다.

먼저 온 선희가 보통강변에 꾸려진 휴식터의 야외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

철민은 선자리에서 물었다.

《동물 진심으로 축하해주자구요. 앉으세요.》

습관인양 주위를 저도 모르게 일별하던 철민의 눈길은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석축공사를 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서 멎었다. 어쩐지 떳떳치 못한감이 들었다.

철민은 마지못해 앉았다.

《그런데 알맞는 자린 꼭 이런 곳밖에 없어?》

선희는 대답없이 방긋 웃더니 익숙된 동작으로 병을 따고 두개의 잔에 맥주를 부었다.

《자, 들자요!》

잔을 들고 미소를 짓는 선희는 아릿다왔다.

그러나 주위세계와 대조되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계의 미였다.

철민은 앞에 가득 놓인 값진 음식들을 외면하며 눈길을 선희에게로 던졌다.

《선희, 성의는 고마워. 우리 이만 자리를 뜨는게 어때?》

《왜 그래요?》

《싫다면 난 그만 가보겠어.》

선희가 식탁을 에돌아와 철민의 앞에 바투 다가섰다.

《철민동무, 오해하지 마세요. 난 뭐 동무한테 있는 흉내나 내자는건 아니예요. 동무야 아버지가 큰 간부인데 우리 집보다 월등하겠지요. 난 그저 진심으로…》

《뭐?!》



철민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속이 떨렸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소릴 듣게 되다니.

2년만에 집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 저녁, 아버지가 차려놓았던 소박한 그 저녁상이 떠올랐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철민을 위한 음식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군복을 입은 이 아들이 알고도 남음이 있는 소리를 곱씹어했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허리띠를 조이며 사는것이 이 나라의 자식된 도리라고.

어제 승용차에서 내리는 선희를 봤을 때 어쩐지 낯설어보이던것이 무엇때문인지 알수 있었다. 공원에서 현실을 외면한 모호한 소리를 꺼리낌없이 하던 선희, 학교때 지나친 자존심과 이따금 드러나는 허영심때문에 동무들과의 사이가 어성버성해지군 하던 그것이 어디에 기인된것인지 선명해졌다. 허울이 벗겨진 그런 선희를 알게 되자 더는 마주하기 싫었다.

《동문 변했어. 어제날의 최선희가 아니란 말이야!》

철민은 격한 소리를 내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황황히 걸음을 옮겼다.

《철민동무!》

선희는 따라가서 철민의 팔을 붙잡았다.

돌격대제복을 입은 청년들 몇이 맞들이를 들고 급히 그들의 곁을 지나갔다. 그들중의 어느 맞들이 하나가 선희의 옷자락을 스치면서 감탕같은것을 약간 묻혀놓았다.

선희는 발끈해서 그들의 등에 대고 쏘아붙였다.

《눈 있으면 보구 다니라요!》

맞들이임자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한 청년이 점잖게 사과했다.

《미한합니다.》

《그 한마디면 다예요?》

선희는 철민에 대한 불만까지 겹쳤었다.

《뭐요?》

다른 청년이 주먹을 부르쥐고 다가왔다.

선희는 바삐 철민의 뒤에 몸을 숨겼다. 철민은 자연히 선희의 보호자가 되였다.

청년은 체격이 그쯘한 군인이 담벽처럼 막아서있자 두어발자국앞에서 굳어졌다. 맞갖잖게 눈을 흘기고 돌아서며 내뱉는것이였다.

《흥, 매미도 제멋에 산다더니, 무엇이 부끄러운것인지를 모르는군.》

철민은 모욕감에 낯이 불붙는듯 하였다.

한동안 얼이 나간듯 까딱않고 서있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팔소매를 흔들며 속삭였다.

《철민동무, 들어가자요.》

철민은 머리를 흔들며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처음에는 그자신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야외등을 켜놓고 벅적 끓는 강안석축공사장에 당도해서야 맞들이를 든 그 돌격대원들을 따라왔다는것을 알았다. 거기에서는 여름장마전으로 강기슭의 감탕을 파내고 무너진 돌제방을 다시 쌓는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감탕판에서 땀흘리고있는 돌격대원들과 야간지원자들을 보니 며칠동안 무위도식으로 시간을 보낸 자신을 용서할수 없었다.

다음날부터 철민은 보통강석축공사장에 나갔다. 표창휴가가 끝날 때까지 지원자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돌격대원들과 꼭같이 일했다. …

× ×

《…전 그날 철민동무를 조금 따라가다가 말았습니다. 며칠후에야 영성동무를 통해서 철민동무가 매일 보통강석축공사장에 나간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저는 무엇인가 가책되는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철민동무를 만나기가 두렵더군요.

우린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헤여진것이 마지막 리별이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최선희는 눈굽을 찍으며 손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냈다.

《이건 철민동무가… 그때 부대에 돌아가서 저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들었다.

놀라왔다. 10년이 지났을 오늘까지 편지를 보관하고있은것이나 편지의 겉봉이며 속지가 엊그제 온것인듯 조금도 색이 바래지 않은것이 놀라왔다.

나는 외등밑에 가서 편지를 펼쳐들었다.

…

선희, 그때 내가 동무에게 하고싶었던 소리를 편지로라도 해야겠어.

난 동무가 나에게 베푼 호의는 조금도 탓하고싶지 않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 동무가슴에 상처를 남기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훌 떠나온 나의 옹졸함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속죄해야 할것 같애. 그러고보면 나도 사내답지 못하지…

하지만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행동할수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리해해주길 바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

련화중학교에 전학와서 처음으로 치른 외국어학과경연에서 내가 3점을 맞았을 때 초급단체위원장이였던 동문 나에게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자극을 주었지. 난 그때 참기 힘들었어. 그러나 그때 동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선생님과 동무들의 따뜻한 방조가 없었더라면 난 분발하지 못했을거야. 학교 전기간 외국어 3점생으로 남아있었을거야.

난 부모님들을 따라 평양에 오기 전까진 자기 결함을 잘 몰랐어. 룡흥중학교에서 떠받들리기만 하다가 왔으니 저만이 똑 제일인체 하는 독선적인 관념의 지배를 받았거던. 학급장이 되여서도 그것이 이따금 드러나군 했는데 군대에 나와서 군무생활에서까지 표현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 그때문에 난 처벌근무도 서봤어. 그 괴로운 나날에 내가 무슨 생각부터 했는지 알아? 선희동무를 비롯한 중학교동창생들이야.

동문 초소에 선 나에게 제일 많이 편지를 보낸 동창생이야. 내가 동무의 그 편지마다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군 했는지 알아?

난 동무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다녔어. 후에는 소중한 동무의 그 마음이 어느 누구의 비난거리가 될가봐 조용히 없애치우고 마음속에만 간직했어.

동문 이번에 나를 만나서 회답을 한번도 하지 않은데 대해 계산하겠다고 했었지. 물론 반은 롱담이였겠지. 하지만 난 쓸것이 없어서 회답하지 못했어. 동무의 그 순결한 마음과 기대에 무엇인가 떳떳한 군공으로 대답할수 없는 그 허전함때문이였다고 하는것이 정확할것 같애.

입대한지 2년만에 군공메달을 수여받고 표창휴가까지 가게 되였을 때 나의 머리속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동무의 얼굴이 떠올랐어. …

그렇게 만난 동무였어.

그런데 동문 내가 알고있던 그 최선희가 아니였어. 너무나 몰라보게 변했단 말이야.

선희, 우린 어려운 나날에 학창시절을 보냈지. 하지만 우린 눈물은 모르고 자랐어. 눈물이라면 집에서는 죽물로 끼니를 에우고 나왔어도 학교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따끈따끈한 콩우유, 그 사랑을 마시며 흘리는 눈물이였지.

그렇게 자란 동무가, 그렇게 자란 우리가 시련을 겪는 조국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게 무슨 이 나라의 아들, 딸이겠어.

난 동무에게서 그런 불효한 점을 보게 된것이 가슴아팠어. 용서할수 없었단 말이야.

선희, 내 말이 리해되지?

난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동창생이기 전에 동지적관계가 되기를 바래. 어머니조국과 언제나 운명을 같이하고 조국이 부른다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참된 동지로 삶을 빛내이자는것을 약속하고싶어.

다음번엔 우리 서로 꼭 그런 동지가 되여 만나자!

…



제 4 장. 영원한 병사

추석전날 밤에 나는 리철민영웅의 아버지 리응석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웬일인지 그는 흥분되여있었다.

《작가선생, 래일 만나게 될줄 알면서도 그대로는 잠들수 없어 전화합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철민이에 대해서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나는 송수화기를 귀에 꽉 눌러댔다.

《예, 방금 전달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이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새 세기 육탄영웅들을 하나하나 꼽으시며 싸움의 날도 아닌 평화시기에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댄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우리 혁명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우리 맏아들, 철민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는 동지애가 특별히 높은 병사였다고, 그가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자기 한몸을 내댈수 있었던것은 평시에 집단과 동지들에 대한 사랑이 체질화되여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시였습니다. …》

영웅의 아버지와 전화가 끝난 다음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피눈물의 12월의 언덕너머 우리 혁명이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곧바로 전진하고있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힘에 의해서이다. 그 일심단결의 기초에는 혁명적동지애

가 놓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 초에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리철민의 삶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의하여 세월과 더불어 빛을 뿌리게 될것이 아닌가.

나는 하루빨리 영웅의 그후의 이야기를 듣고싶었다.

다음날 나는 영웅의 부대로 가는 뻐스에 올랐다. 뻐스에는 영웅의 가족들과 리철민고급중학교 교장, 학교청년동맹 책임지도원, 류옥련담임교원, 학생청년동맹비서가 탔다.

그것은 해마다 추석이면 진행되는 년례적인것이라고 한다.

가을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우리를 태운 뻐스는 벼이삭이 무겁게 머리를 숙인 들과 단풍든 숲을 꿰지르며 두어시간나마 달렸다.

리철민영웅중대에서는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거기에서 이미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된 영웅의 옛 소대장인 김충국소좌를 만났다. ㅎ협동농장 작업반장 박호진도 약속대로 와있었다.

영웅중대의 소대장이라고 하면서 깍듯이 자기를 소개하는 젊은 지휘관이 있었다. 박호진작업반장이 영웅이 희생되던 당시 함께 근무를 나갔던 백은성동무라고 소개하였다.

김충국소좌가 처음 온 나를 위하여 영웅의 군복이 보관된 중대병실로 안내하였다. 영웅의 무기였던 기관총도 보여주었다.

병실에는 아직도 영웅의 명찰표가 그대로 붙어있었다.

이　　름 : 리철민
소　　속 : 1소대 1분대 기관총수

영웅은 지금도 자기의 중대에서 군사복무를 계속하고있다는것을 그 명찰표가 말해주고있었다.

소나무숲이 우거진 양지바른 산기슭에 영웅의 묘소가 있었다.

나는 묘소에서 김충국소좌의 안해 오현순도 만났다. 아직

젊음이 사라지지 않은 30대말의 단아한 녀성이였다. 그는 내가 리철민영웅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온 작가라는것을 알자 내결에 붙어서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더 이야기해주지 못해 안달아했다.

구분대의 군인들은 모두 영웅의 부모를 자기의 친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대했다. 하긴 내가 취재를 하면서 구분대의 군인들에게서 영웅의 집에 온 편지들을 보니 그 부름말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로 되여있었다. 거기에서는 조그마한 가식도 풍기지 않았다. 그러니 영웅의 부모는 수많은 아들, 딸들을 가진 자식부자인셈이였다.

묘소에서 내려온 다음 중대교양실에서는 우리 일행과 리철민영웅중대 군인들과의 련환모임이 있었다.

먼저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이 진행되였다.

백은성소대장이 한발 앞에 나서서 리철민영웅이 사랑하던 노래라고 하면서 선창을 뗐다.

사랑은 그 사랑은 정깊은 눈빛인가
요람을 흔들던 자장가소리인가
그늘진 가슴에도 해빛 준 그 사랑은
장군님 가꿔오신 인정의 세계라네
…

1. 구대원과 신대원 (2)

신입병사 백은성이 철민의 분대에 배속되여온것은 한달전이였다.

지난해에도 중대에 신입대원은 왔었다. 그런데 철민의 1분대에는 배속시켜주지 않았다. 박호진의 말은 소대에는 전전해에 철민을 비롯해서 두명의 신입대원이 보충되였기때문이라고 했다.

철민은 은근히 분대에, 정확히는 자기 잠복조에 신입대원

이 오기를 바랐다. 한줄은 달았지만 아래대원이 없는탓에 아직 구대원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신입대원들이 오면 사관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어느 대원이 자기 분대 혹은 자기 잠복조에 오게 될것인가를 가늠해보는 눈빛이였다. 날랜 축들은 점찍어놓은 대상을 사전료해하고 중대장이나 정치지도원에게 청을 들이대기도 한다. 떼가 사촌보다 낫다고 그것이 효과를 보는 때가 더러 있었다.

잠복조장이였던 분대장은 부소대장이 되고 박호진이가 금방 잠복조장으로 임명된 때였다. 그는 하사이지만 상대적으로 복무년한이 오래고 갓 입당까지 했었다.

박호진은 때를 놓치지 않고 체격이 좋고 성근해보이는 대원 한명을 골라잡고 중대장더러 신입잠복조장에게 특혜를 베풀어달라는 식으로 선통을 했다. 리철민이같이 멋진 신입대원이 다시 제발로 굴러들어오리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랬건만 박호진은 신입대원들의 배속을 발표하는 날 소태씹은 상이 되고말았다. 어느 사관이나 윈눈으로 보았던 연약하고 우울해보이는 신입대원이 그의 잠복조에 배속되였던것이다. 그가 백은성이였다.

기다리던 대원이 왔건만 철민이도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그가 그려보았던 자기밑의 대원은 동생 철준이같이 몸이 든든하고 묵중한 그런 형이였다.

박호진이 자기를 흘겨보며 《내가 중대장동지한테 볼부은 소릴 하러 갔댔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철민동무가 땅땅여문 구대원이기때문에 그렇게 했다는거야. 에 에— 참.》하고 일이 뜻대로 안된 원인을 자기한테 몰아붙이자 철민은 더 기분이 없었다. 한편 중대장의 말에 어떤 믿음이 담겨있는듯해서 어깨가 무거웠다.

백은성은 생긴 그대로 형편없는 약골이였다. 첫 잠복근무에 나가서 가을비를 조금 맞았는데 며칠을 감기로 앓으면서 입맛까지 잃었다.

운반식사를 가지고 병실을 들락날락하던 어느날 철민은 반도 축내지 못한 은성의 밥그릇을 보며 상심해하다가 좋은 생

각이 떠올랐다. 룡흥에서 학교에 다닐 때 학급동무가 독감으로 몸져누웠다는것을 알고 몇몇 동무를 휘동하여 늪에 나가 반두질하던 생각이 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늦가을이였다. 물이 조금씩 고인 줄풀밑에 붕어가 얼마나 많았던지 손더듬으로도 잡았었다. 독감에 걸린 동무가 철민이네가 끓여가지고 간 붕어탕을 맛나게 먹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철민은 근무휴식시간에 마을에 가서 반두를 얻어가지고 늪으로 나갔다. 구분대주변에는 크고작은 늪이 많았다.

철민은 두어시간동안이나 속옷까지 적시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며 반두질을 했으나 붕어라고는 구경조차 할수 없었다. 손가락마디만 한 고기와 새우 몇마리씩 반두그물에 묻어나올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털어버리고는 한숨을 내쉬였다. 그래도 포기할수 없었다. 물에 푹 젖어 무거운 반두를 질질 끌며 또 다른 늪으로 옮겨갔다.

줄풀이 무성한 맞은편 늪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아있던 로인이 엉거주춤 일어서며 물었다.

《여보게, 군대총각, 게서 뭘하나?》

《붕어를 잡으려고 합니다.》

로인은 혀를 차며 머리를 흔들었다.

《물이 많아서 반두질론 안되네. 어서 나오라구. 그러다 감기들겠네.》

《여기 붕어가 있긴 있습니까?》

《있어두 많지. 허지만 그런 방법으론 안된다니.》

철민은 늪을 에돌아 로인에게로 갔다. 로인이 잡아놓은 붕어그물을 들어보며 군침을 삼켰다.

《히야! 많이두 잡았군요.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열마리가 넘누만요.》

로인은 담배를 붙여문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게군, 이런 때 물에 들어가서 역사질하는걸 보니.》

《예, 동무가 앓아서…》

《그래?! 그러문 진작 말할게지, 아까부터 날 띄여봤겠는

데.》하고 로인은 그물의 고기를 통채로 비닐주머니에 쏟아서 철민에게 안겨주는것이였다.
철민은 사양하며 황급히 달아나려 했으나 로인에게 팔을 붙들렸다.
《그러지 말라구. 군대가 앓는다는데 물고기 몇마리가 뭔가. 그리구 난 시간을 보내느라구 낚시질을 한다네. 자, 어서!》
철민은 로인의 성의를 거절할수 없었다.
돌아오는 걸음은 가벼웠다.
점심시간이 거의 되여서야 잠에서 깬 박호진은 기지개를 켜며 병실에서 나오다가 마당을 가로 질러오는 철민과 맞다들렸다. 그제야 그는 철민의 잠자리가 비여있었다는것을 상기했다.
《철민동무, 어디 갔댔어?》
그는 물에 젖은 철민의 바지가랭이며 퍼렇게 언 입술을 이상한 눈길로 여겨보았다.
《이걸 좀 구하느라구…》
철민은 손에 든 비닐구럭을 들어보였다.
《그게 뭔데?》
《붕업니다. 은성동무가 이걸 먹으면 입맛이 돌아설가 해서…》
《뭐요? 허 참, 난 왜 깨우지 않았소?》
《잠간이면 될줄 알구…》
《그걸 묻는게 아니요. 왜 상급에게 보고하지 않구 자의대루 행동했는가 하는거요.》
철민은 입을 벌릴수 없었다.
박호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꿔채듯 철민에게서 고기구럭을 앗아들었다.
《이건 나한테 맡기고 빨리 들어가서 몸을 녹이오.》
박호진은 철민을 병실로 떠밀고 그길로 식당에 가서 붕어탕을 끓였다.
얼마후 박호진은 얼벌벌한 풋고추양념을 넣은 붕어탕을 끓여가지고 병실로 돌아왔다.

철민이가 은성의 머리맡에 앉아 찬물찜질을 해주고있었다.

《자, 이걸 먹고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구.》

박호진은 따끈한 붕어국을 숟가락으로 떠서 은성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미안… 고맙습니다, 부분대장동지. …》

은성은 눈물이 글썽해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했다.

박호진이 철민을 눈짓했다.

《인사는 이 철민동무한테 하라구. 철민동무가 붕어를 잡아오느라구 반나절이나 떨면서 늪에 들어가있었다네.》

은성의 눈길이 이번에는 철민에게로 옮겨졌다.

《자, 멍청히 보지만 말구 입을 벌리라구. 처음엔 다 그런거야. 이제 한 삼년쯤 군대밥을 먹느라면 쇠소리나는 구대원이 돼.》

박호진의 우선우선한 말에 은성은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가 하는듯 철민과 호진을 번갈아보았다.

《부분대장동지, 주십시오.》하고 철민이 호진에게서 숟가락을 넘겨받았다.

박호진은 은성이 밥과 국을 반쯤 축내는것을 보고야 병실밖으로 나갔다.

조용한 병실에 둘이 남게 되자 은성이 철민에게 물었다.

《철민동지, 나도 정말 될수 있을가요?》

철민은 빙긋 웃으며 격려했다.

《은성동무, 모든건 다 마음먹기탓이야.》

은성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저도 다 들어서 압니다. 철민동지도 신입병사시절을 거쳤지만 지금 나하군 대비할바 없이 잘했다는걸.

솔직히 부분대장동지가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속으로 저를 두고 퍽 실망할겁니다.》

철민은 자꾸 나른한 소리만 하는 은성의 말을 듣기 싫었다. 생각같아서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날카로운 말을 해주고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은성동문 원래 이렇게 체질이 약했어?》

《예, 본래 좀 약한데다 군대에 나오기 전에 기관지염으로 되게 앓았습니다.》
《치료 받지 않았어? 기관지염은 집에서 고려약으로도 얼마든지 떨굴수 있는 병인데.》
《그럴 형편이…》
은성은 뒤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것두 아닙니다. 참, 철민동진 평양이 집이라지요?》
은성은 황황히 말머리를 돌렸다.
철민은 더 캐묻고싶은것을 참았다.

×

병실에서 나온 박호진의 낯빛은 어두워졌다. 중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잠복조로 평가받던 자기네의 위신이 백은성이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질것만 같았다. 하필이면 자기가 잠복조장으로 된 때 저런 오망부리가 굴러들어왔을가싶었다. 이제 백은성이로 하여 벌어지게 될 가지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상하니 벌써부터 속이 께름해진다.
물론 타고난 병사는 없다. 하지만 군인은 조국과 인민앞에 자기 의무, 병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육체적능력과 강한 의지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군인은 때로는 가장 불리한 환경과 가장 극악한 정황속에서 그 의무를 리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며칠후 잠복근무에 나가기 위한 근무상번시간이였다.
소대장이 각 잠복조장들의 복장상태와 무기장구류상태를 깐깐히 검열하고나서 대렬앞에 나섰다.
《잠복조장동무들은 자기 조원들의 준비상태를 검열하시오!》

《알았습니다.》
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박호진은 정보로 한걸음 나가 철민의 앞에서 멈추어섰다.
《조원 리철민!》
철민은 어둠속에서도 가슴을 쭉 펴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박호진은 말없이 바싹 조여맨 그의 탄창주머니며 그에 곁달린 수류탄주머니를 매만져보고는 옆으로 한걸음 옮겨 은성이앞에 다가섰다.
박호진은 저도 모르게 낯을 찡그렸다.
한옆으로 볼성사납게 처져내린 탄창주머니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던것이다.
박호진은 데룽거리는 탄창주머니를 힘껏 잡아챘다
은성의 몸이 비칠하는것과 함께 탄창주머니가 시계추마냥 흔들거렸다.
《병사 백은성, 그 자리에서 높이뛰기!》
박호진이 날카롭게 명령했다.
영문을 알길 없는 은성은 그 자리에서 뜀뛰기를 했다.
덜거덕덜거덕 무기장구류 부딪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렸다.
《동문 이걸 조여맬 힘도 없어? 다시 하시오!》
은성은 허둥거리며 결함을 퇴치하느라 끙끙댔다.
전투근무에 나가는 군인은 언제나 복장과 무기장구류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기 몸에 딱 붙게 휴대하여야 한다. 일단 정황이 조성되여 적들과 조우할 때 데룽거리는 탄창주머니로 탄창이 빠져나가거나 나무가지에 걸리는 경우 그 후과는 상상하기조차 무서운것이기때문이였다.
모두의 눈길이 쏠린 가운데 은성의 결함이 퇴치된 후에야 박호진은 소대장을 향해 돌아섰다.
《제3잠복조는 근무준비를 끝냈습니다.》
소대장이 잠복조장들에게 근무수행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강조한 후 병사들은 잠복조단위로 은밀히 제정된 장소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마른 갈대가 와스스 설레이는 오솔길을 따라 조원들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걸어가던 박호진은 뒤쪽에서 불시에 터져나오는 기침소리에 흠칫 걸음을 멈추며 자세를 낮추었다. 어둠속에서 기침을 참느라 애쓰는 은성과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당황해하는 철민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박호진은 또다시 낯을 찡그렸다. …

다음날 오후 박호진은 중대위생지도원을 찾아갔다.

《위생지도원동무, 기관지염에 쓰는 약이 좀 없소?》

《백은성동무때문에 그럽니까?》

《?》

《왜 놀랍니까? 나야 위생지도원이 아닙니까.》

그래도 박호진이 아리숭해하자 위생지도원은 사연을 설명했다.

《사실은 아침에 철민동무가 먼저 나를 찾아왔댔습니다.》

박호진은 왜서인지 속이 편안치 않았다. 무엇인가 생각이 모자라는 자신에 대한 불만같기도 하고 무슨 일에서나 구대원인 자기를 앞지르려고 하는 철민의 지나친 열성에 대한 노여움같기도 했다. 며칠전 혼자서 물고기를 잡으러 늪에 갔다오는 철민을 봤을 때도 그 비슷한 감정에 빠졌었다.

하지만 무엇이나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박호진은 두가지를 다 애써 부정해버렸다.

《아까 철민동무한테도 말했는데 나에겐 지금 기관지염에 쓰는 약이 없습니다. 인차 구해오겠습니다.》

위생지도원이 미안스러워했다.

《그럼 부탁합시다.》

돌아서나오던 박호진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위생지도원을 불렀다.

《위생지도원동무… 백은성동무를 군의소에 보내서 집중치료를 받도록 제기해보지 않겠소?… 사실 치료라는거야 응당 환경과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라야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게 아니겠소.》

박호진의 그 말에 위생지도원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부분대장동지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래일쯤 중대장동지에게 제기해보겠습니다.》

박호진은 위생지도원을 외면한채 황황히 돌아서버렸다. 의향을 내비치고보니 자기가 진심으로 백은성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것일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것이다.

병실에 오니 근무상번시간이 다가오는데 철민이가 근무준비는 하지 않고 손바느질로 무슨 주머니같은것을 만들고있었다.

《그건 뭐요?》

《은성동무에게 줄 소금주머니입니다.》

《소금주머니?》

《예. 잠복근무를 서다가 기침이 나올 때 이 소금을 조금씩 입에 넣으면 나아질것 같아서…》

《철민동무, 그렇게 해서 은성동무의 병이 뚝 떨어질것 같애?》

《예?》

《그 동문 육체보다도 이 마음에 병이 들었단 말이야. 쓸데없는데 시간을 랑비하지 말구 빨리 근무준비나 하라구.》

그 일이 있은 며칠후 어느날 철민은 보자기에 정히 싼 단지를 안고 나타났다.

《그건 또 뭐요?》

박호진은 시답지 않게 물었다.

《약입니다.》

《…》

《은행열매에 들깨와 기름을 섞어 만든건데 기관지염에 특효랍니다.》

박호진은 철민의 열성에 감심은 되였다.

《철민동무, 은성동무에겐 힘에 부친 초소보다도 후방구분대같은데 가서 군무생활을 하는것이 유리할것 같은데 동무생각은 어때?》

《부분대장동지, 은성동문 꼭 여기서 군사복무를 하고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욕망 하나만으로 될 일이요? 이제 두고보오. 은성일 그대로 두면 우리 잠복조가, 우리 분대가 근무나 훈련총화때마다 구실 못하는 대원 한사람때문에 늘 추궁을 받게 될거란 말이요.》

철민의 낯빛이 심중해졌다.

《난 전번에 부분대장동지가 은성동무한테 힘이 되는 소릴 하기에 그것이 진심인줄 알았습니다.》

박호진의 낯빛이 약간 이지러졌다.

《글쎄 앞에서야 어떻게 야박한 소릴 하겠소.》

《부분대장동지, 저도 아직 구대원이라고 하기에는 많은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관동지들이나 사관동지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심중히 들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복무년한이 오랜 부분대장동지가 대원앞에서 한 소리와 속생각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박호진은 참을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뭐요? 이 동무가 보자보자하니까 점점… 누굴 훈시하려는건가?》

철민은 더 말하지 않았다.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침묵했다.

그것으로 해서 박호진과 철민이사이는 어성버성해졌다.

그날 근무에 나갔다와서부터 철민은 영문모르게 몸이 가렵고 얼굴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김충국소대장이 철민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다가 이마를 짚어보았다. 열도 있었다.

《이거 큰일났군. 위생지도원을 부르오.》

위생지도원이 달려와서 철민을 눕히고 진찰을 했으나 원인을 알수 없다며 머리를 흔들었다.

《철민동무, 혹시 별다른 음식을 먹은 일이 없소?》

곁에 있던 박호진이 버럭 화를 냈다.

《이 친구가 혼자서 무얼 먹고 들어올 사람같소?》

위생지도원은 그냥 머리를 기웃거렸다.

《알레르기현상같은데… 곰곰히 생각해보오. 혹시 이 며칠

어간 싫어하는 음식이나 평시에 만지지 않던 물건을 보거나 가까이한적이 없는가.》

위생지도원은 몹시 안타까와했다. 입대전에 의학전문학교를 나온 위생지도원은 해박한 의학지식과 일정한 림상경험도 가지고있었다.

자리에 누워 앓다가 며칠전부터 구분대 내부근무를 서던 백은성이 철민의 부은 얼굴이며 긁은 자리를 더듬어보고는 말했다.

《철민동지 은행독이 오른것 같습니다.》

《은행독? 그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병명이요?》

김충국소대장이 백은성에게 눈을 흘기며 따져물었다.

《은행열매의 겉살을 만지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누이동생이 은행열매를 따서 구워먹다가 이렇게 되여 혼난적이 있었습니다. 철민동지 제 기관지염을 고쳐주려고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은성은 목이 메여 더 말을 하지 못했다.

은성의 말을 심중히 듣고있던 위생지도원이 무릎을 쳤다.

《알만 합니다. 은행나무열매에 의한 알레르기반응입니다. 대체로 피부가 연한 사람들속에서 드문히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고향에도 은행나무가 많은데…》

김충국소대장이 위생지도원의 말허리를 잘랐다.

《사설은 그만하고 치료대책을 말하오.》

《이제부터 은행나무열매는 절대로 가까이하지 말며 소독제를 바르면서 좀 안정해야 합니다.》

김충국소대장이 박호진을 병실 한켠으로 불렀다.

《아무래도 철민동무대신 다른 동무를 잠복근무에 내보내야 할것 같소.》

《현재 나머지 인원은 신대원들밖에 없습니다.》

누워있던 철민이 두사람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소대장동지, 전 일없습니다.》

철민의 곁에 꼭 붙어있던 백은성이 별안간 격한 소리로

《안됩니다!》하며 김충국소대장앞으로 어푸러질듯 달려왔다.

《잠복근무에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전 철민동지같은 구대원동지가 곁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일없을것 같습니다. 소대장동지, 절 믿어주십시오. 이겨내겠습니다.》

김충국소대장은 왜서인지 찌프린 인상이였다. 군화발로 병실바닥을 몇번 쿵쿵 구르더니 박호진의 팔소매를 잡아챘다.

박호진은 소대장에게 끌려 소대부로 들어갔다.

《내 언제부터 호진동무 따로 불러 말을 좀 하려댔는데 지금 하기요. 동문 뜨겁지 못하오. 이자도 봤지? 신대원인 백은성이가 누구를 진정으로 따르는가.》

박호진은 머리를 떨구었다.

《하긴 그럴수밖에. 동문 자기 대원의 병을 고쳐줄 생각대신 짐이 된다고 따돌리려 했으니까. 위생지도원을 통해 중대장동지한테 제기가 들어온걸 내가 막았소. 난 박호진이가 그렇게 차거운 인간인줄 몰랐소.》

《…》

《…은성이에겐 부모가 없소. 탄부였던 아버지는 갱에서 순직하고 어머닌 어려운 속에서 자식많은 대가정을 돌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그는 군대에 나오기 전까지 누이네 집에서 살았소.

그의 가슴속엔 적에 대한 몸서리치는 증오가 있소. 비렬한 고립압살책동으로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인민에게 갖은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는 원쑤들에 대한 증오가 말이요. 동문 그걸 알고있었소? 몰랐을거요. 왜 몰랐겠는가. 그건 동무한테 대원들의 가슴을 들여다보는 눈이 없기때문이요.

철민동물 보오. 그는 동무에 비해서 입대년한이 훨씬 아래인 신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요. 그런데 진짜로 구대원구실을 하는건 누구인가? 동무가 스스로 대답해보오. …》

박호진은 아무런 대답도, 그 어떤 변명도 할수 없었다.

2. 손 불 돌

이해의 겨울은 류달리도 빨리 찾아왔다. 례년에 없는 추위가 강산을 꽁꽁 얼구어버릴듯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아담한 군인사택마을의 어느 한 지붕밑에서는 갓난아이를 업은 젊은 녀인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음식준비에 여념이 없다.

김충국의 안해 오현순이다. 그는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 병사들을 위한 날에 소대에 가지고갈 음식들을 준비하는중이였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도라지채며 고사리나물, 찰떡, 수수지짐, 입맛을 잃은 남편을 위해 따로 담그어놓았던 참조개젓…

그래도 무언가 부족한듯 하여 현순은 고개를 갸웃하고 곁에 놓은 빨간 수첩을 자주 번지며 글줄을 따라읽는다.

《1분대 전사 백은성, 네발가진 육고기를 먹지 못한다. 특식이나 생일을 차려줄 때 꼭 오리나 닭을 잊지 말것…

2분대 엄태일, 바다물고기는 좋아하나 민물고기는 낯을 찡그린다. 식성이 매우 까다롭다. …

3분대 오춘삼, 떡보이다. 두그릇은 게눈감추듯, 세그릇까지 가볍게 제낀다. …》

현순은 방긋 웃었다.

이제는 너무 뒤져보아서 보풀이 인 수첩이지만 현순은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았다. 거기에는 자기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남편의 세계가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는 무뚝뚝하고 거친데가 있어서 야속하고 불만스러울 때가 있는 남편이다. 하지만 병사들을 위한 이 수첩에서는 현순이 소중히 여기는 섬세하고 구체적인 측면을 엿볼수가 있는것이다. 수첩에는 식성뿐이 아니라 병사들의 입대년도며 생년월일, 성격, 취미, 가정환경까지 병사들과 관련된것이라면 없는것이 없었다.

군복은 벗었으나 군인의 체취를 늘 몸에 지니고있는 현순

은 군인의 미덕가운데서 첫째가는 징표는 자기 대원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남편 김충국은 그것이 체질화되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었다. 한부대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장점을 잘 알고있었기에 그의 고백을 선뜻 받아들이고 일생을 의탁하였는지 모른다.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온다. 이어 문이 열리면서 《이 집에서 오늘 잔치상을 차리는가?》 하는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밤근무에 나갔던 남편이 들어선다.

《아이, 수고하셨어요!》

현순은 일손을 놓고 다가가 남편의 허벅다리부위부터 만져보았다. 지난해 적들과의 싸움에서 입은 총상이 날이 추워지면 말썽을 일으키군 했던것이다.

《아, 아, 일없소.》

남편은 현순의 등에 업힌 아이한테 쩝 소리가 나게 입을 맞추고는 등디목에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끼지 않은 솜장갑을 들어보였다.

《내 당신한테 뭘 보여줄게 있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불룩했다.

《뭔데요?》

남편은 장갑안에서 감자알만 한 차돌을 꺼내서 현순에게 내밀었다.

현순은 그것을 받아들면서 탄성을 질렀다.

《아이, 따끈해!》

그것을 줌안에서 굴리다가 남편의 퍼르스름한 볼에 가져다대고 까르르 웃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보고도 모르겠소? 돌이지.》

《무슨 돌인가 말예요?》

《글쎄 내 그걸 알수 없어 당신한테 가지고 들어온거요. 밤에 순찰을 하면서 병실화구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이런게 수두룩이 묻혀있더란 말이요.》

《어느 장난꾸러기가 한짓일거예요. 어서 들어가 식사나

하세요, 시장하실텐데.》
현순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남편을 방안으로 떠밀었다.
인차 밥상을 차려들고 올라갔다.
숟가락을 들던 남편이 문득 생각난듯 말했다.
《참, 철민이가 요사이 꺼칠해지는것 같은데 좀 관심을 돌려야겠소.》
《철민이야 제가 동생으로 삼았는데 그런 걱정은 마세요. 그런데 철민인 그저 남밖에 몰라요. 자기 몸은 아예 생각지 않으니 그럴수밖에요.》
《남동생이 없는 당신이 의남매는 잘 맺은것 같소. 나한테는 처남이 하나 생긴셈이구.》
《전번날에는 글쎄 은행열매를 가뜩 따가지고 와서 들깨와 기름을 섞어 약을 만들어달라는게 아니겠어요. 기관지염치료를 하겠다고 말이예요. 은행열매는 얼마, 들깨는 몇그람, 기름은 또 얼마 하고 수첩에까지 또박또박 적어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달라기에 〈철민이, 너 기관지염을 앓니?〉 하고 물었지요. 시물시물 웃으며 그렇다고 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약을 지어 보냈지요. 후에 알고보니 그 약이 백은성전사에게 갔더군요.》
《음, 거기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
리철민은 확실히 남다른데가 있었다.
어제밤의 일이 돌이켜졌다. 취침시간이 썩 지난 뒤에 운동기재가 있는 앞마당에서 말소리가 나기에 김충국은 그리로 가보았다.
《자, 배에다 힘을 주면서 다시!…》
어슴푸레한 달빛아래에서 한 구대원이 신입병사에게 철봉훈련을 시키고있는 모양이 보였다. 구대원은 리철민이였고 신대원은 백은성이였다.
《옳지, 그렇게… 인젠 괜찮아졌어. … 좀 쉬구 할가.》
두 병사가 철봉대밑에 마주앉아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언제부터 물어보려댔는데… 은성동문 부모가 안계신다지?》

《…》

《내가 묻지 말아야 할걸 물은게로군. 그럼 대답 안해도 돼.》

《아닙니다. 철민동지한테야 뭘 숨기겠습니까.

우리 아버진 탄부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우리 살림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진 밥을 못 싸가지고 출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출근을 번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라도 쉬라고 하면 아버진 우리 장군님 계시는 평양의 불빛이 꺼진다고 하면서 전보다 더 애를 쓰며 탄을 캤습니다. …

내가 열다섯살이 되던 해 아버진 붕락된 갱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날 아침 아버지가 집을 나서며 하시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은성아, 너도 앞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탄부가 되여라. 그런데 그보다 먼저 총쥔 군인이 되거라.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차지하고있는 원쑤들이 있는 한 우린 한시도 편안히 살수 없다.〉

그후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아버지와 꼭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철민동지, 그래서 난 기어코 총을 잡고 최전연초소로 나왔습니다.》

《은성이, 내가 동무에 대해서 좀 더 일찌기 알았어야 하는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뜻을 잊지 말고 땅땅 쇠소리나는 병사로 준비하자구. 장군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겠는가 아니면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살겠는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일당백의 병사가 되여야 해.》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해보자구.》

《철민동지, 이젠 들어가십시오. 오늘 밤은 제 혼자 무조건 완성하겠습니다.》

《챠, 이 동무가 정말… 〈병사의 의무〉 다섯번째 알지? 한번 대답해봐.》

《알았습니다. 상급인 병사는 하급인 병사를 교육교양함에 있어서 분대장을 도와야 한다.》

《잘 알면서도 그러누만. 래일 동무가 이 동작을 원만히 수행하는걸 보면 소대장동지나 분대장동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나.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신입대원에게 기울이는 리철민의 정과 노력에 의해서 일부 사관들이 《구실하기 힘든》 병사로 락인했던 백은성은 나날이 달라지고있었다. …

화구안에 묻어놓은 차돌의 비밀은 그날 저녁에 밝혀졌다.

대대참모부에서 열린 지휘관들의 모임에 참가하고 중대에 들어서던 김충국은 교양실에서 울리는 떠들썩한 노래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정다운 고향땅 뒤에 두고 우리는 총을 잡았네
화목한 중대를 집 삼고 병사의 우정 맺었네
아 나에겐 귀중한 동지의 사랑이 있네

즐거운 저녁오락회시간인것이다.

김충국은 노래를 잘 부를줄 모른다. 하지만 감상하기는 무척 좋아한다. 가수들의 노래보다도 병사들이 오락회에서 부르는 수수한 노래소리를 특별히 더 좋아한다.

김충국은 노래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교양실주변을 거닐었다. 자기가 들어서서 흥겨운 분위기를 깨고싶지 않았다.

교양실과 잇닿은 병실모퉁이에서 사람그림자가 얼씬거렸다. 급히 그리로 가보았다.

누구인가 병실뒤에 있는 화구칸으로 들어가는것이 보였다. 오락회에 끼우기 싫어하는 못난이 아니면 자유주의분자일것이다.
김충국은 붙잡아서 단단히 신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안에서 무슨 장난을 치는지 보려고 소리없이 다가갔다.
장작불이 너울거리는 화구앞에 쭈그리고앉아있는 병사는 뜻밖에 리철민이였다. 그가 불밑에 무엇인가 부지런히 쑤셔넣고있었다.
(차돌?!)
김충국은 철민의 손에서 묻어나오는 감자알같은 그 돌을 똑똑히 보았다.
김충국은 기척을 내며 화구칸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뭘하오?》
철민은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김충국은 철민을 밀어내고 불밑에 묻어놓은 돌 하나를 끄집어냈다.
《흥, 혼자서 몰래 감자를 굽고있었나?》
김충국은 굴러나온 돌을 집어들고 꼿꼿이 서있는 철민을 올려다보았다.
다소 긴장이 풀린 철민이 히죽 웃으며 롱으로 받아넘겼다.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이게 익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할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먹는 감자가 아니니까. …》
《그럼 뭐요?》
철민은 말하기 딱해했다.
《어서 말하오.》
《근무서는 동지들의 손을 덥혀주려고…》
《?》
지금까지 발을 덥히는 불돌은 봤어도 손을 덥히는 불돌은 처음이다.
《이걸 어떻게 한다는거요?》

《제가 근무를 서면서 체험해보니 발은 어떻게 하나 시리지 않게 건사할수 있었는데 정황에 대처할수 있게 내놓고있어야 하는 손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솜장갑안에 쏙 들어갈수 있는 이 불돌이였습니다.》

김충국은 생각깊은 눈길로 줌안에 있는 돌을 여겨보았다. 오늘 아침 이 돌을 솜장갑안에 넣어가지고 가서 안해의 손에 쥐여줄 때부터 불필요한 막돌은 아닐것이라고 추측했었다.

《그럼 이 돌에 이름을 붙여야겠구만.》

《이름 말입니까?》

《음, 철민동무가 지어보오, 동무의 발명품이니까.》

《저야 뭐, 소대장동지가 지으십시오.》

《손불돌이라고 하는게 어때?》

철민의 눈빛이 빛났다.

《좋습니다!》

《자, 이젠 이것들이 충분히 익었을테니 담아가지고 근무장소들에 가서 하나씩 쥐여주고 오자구.》

《예!》

김충국은 철민과 함께 손불돌을 하나하나 천으로 감싸서 배낭안에 넣었다.

묵직한 배낭을 둘이서 맞들고 근무성원들을 찾아 떠났다.

찬바람이 불어왔다.

등뒤에서는 교양실에서 부르는 병사들의 열기띤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힘겨운 행군길 달릴 때면 배낭을 서로 메주고
쉴참엔 고향의 편지도 우리는 함께 본다네
아 부모도 못 주는 동지의 사랑이 있네

…

3. 기관총번호 401093

또다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 봄에 철민은 한등급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받고 구분대 청년동맹조직의 추천에 의하여 청년동맹일군강습에 가게 되였다.

청년동맹일군강습기간은 철민의 사상정신적키를 한계단 더 높이 자래웠다.

남행렬차가 평양역을 통과할 때 철민은 승강대에 나와있었다. 집에다 학습장을 구해가지고 역으로 나와달라는 련락을 띄웠던것이다. 돌아가서 구분대군인청년동맹원들에게 기념으로 한권씩 나누어주기 위해서였다.

렬차가 역에 들어서자마자 철민은 무작정 승강대에서 뛰여내렸다. 홈에 내리면 대번에 가족들의 얼굴을 볼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한동안 붐비는 사람들속을 헤집던 철민은 조급증이 났다. 다시 승강대에 올라 목을 빼들었다.

철민은 인차 지하건늠길입구에서 허둥거리는 안경낀 녀인을 발견하였다.

《어머니!》

철민은 소리쳐부르며 달려갔다.

어머니는 미처 거수경례를 할 사이없이 철민을 부둥켜안았다.

《철민아!》

표창휴가를 받고 집에 갔다온지 벌써 2년이 되였다.

그사이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졌다.

《안경을 왜 끼셨어요? 시력이 나빠졌나요?》

철민은 근심스레 물었다.

《음, 아니… 그저 멋으로 꼈다. … 보기 좋지 않니?》

《보기 좋을게 뭐예요. 벗으라요, 늙어보여요.》

《원, 자식두… 일없다. 어머니는 늙는게 정상이란다.》
어머니는 젖은 눈으로 철민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아버진 출장가신 모양이군요.》
《응, 어제 이 많은 학습장을 다 구해놓으시구 오늘 아침 지방으로 떠나셨다. 아버지가 네 얼굴을 못 보고 가시는걸 얼마나 아쉬워하셨는지 모른다.》
《그래요, 철순인요?》
《과외활동이 끝나면 곧장 역으로 오겠다고 했는데 아마 생각대로 안되는게지. 이제 내가 집에 가면 큰오빨 못 봤다고 왕왕 울게다.》
철민은 그러는 누이동생의 얼굴을 그려보며 웃었다.
《객지에서 또 다른 객지에 나가 생활하느라 배가 고팠지?》
《아니요. 보라요, 내가 얼마나 튼튼해졌나.》하고 철민은 팔을 한껏 벌리고 배를 불쑥 내밀어보였다.
어머니는 손을 들어 어쩐지 꺼칠해보이는 아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젖은 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서 하루밤만이라도 네가 자는걸 지켜보았으면 좋겠구나.》
《참, 어머니두. 나야 군인이 아닙니까.》
발차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조급해졌다.
《이쪽짐엔 도중식사하구 간식을 넣었다. 가면서 동무들과 나누어먹어라. 그리구 이건 부대에 가서 소대장아주머니한테 주어라. 널 그렇게 친동생처럼 돌봐준다는데. 그리구 여기엔… 아이구, 생각나지 않는구나. 가서 펴보아라. …》
《알겠어요. 자, 이젠 헤여지자요.》
어머니는 승강대에 매달려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
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안경을 벗고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아들을 시

야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것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이였다. …

부대로 돌아온 철민은 인차 구분대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당시) 사업을 인계받게 되였다.

철민은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로서의 첫 사업으로 벽보를 새로운 형식으로 발간하였다. 거기에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동글을 써넣었다.

사랑과 증오

…조국과 인민, 집단과 동지,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이자 원쑤에 대한 증오이다.

총쥔 병사의 가슴에 원쑤에 대한 증오가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그 모든것을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울수 있겠는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이 순간이나마 흐려진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것을 잃게 된다. … 계급을 떠난 동지관계, 증오를 떠난 사랑이란 있을수 없다.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것을 다 합쳐 원쑤를 끝없이 증오하고 또 증오하라!

사랑과 증오의 심장을 지닌 불덩이같은 인간— 병사가 간직한 사랑의 크기를 재야 한다면 마음속에 다져넣은 증오의 그 밑바탕부터 재야 하리라. 증오가 얼마나 몸서리치는가를 알자면 조국수호를 위해, 동지들을 위해 바친 그 사랑을 다 합쳐야만 하리라. …

여름철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구분대에서는 일부 대렬조동이 있었다.

철민의 분대에서도 대렬구성이 달라졌다. 올해초에 박호진은 분대장이 되였다. 그대신 분대에서는 기관총수와 또 한명의 구대원이 사관으로 제발되여 다른 분대로 조동되여갔다.

군대에서는 흔히 끌끌한 구대원 한명과 신대원 열명을 바

꾸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구대원 한사람이 싸움준비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다는것을 말해준다.

분대장이 된 박호진은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제는 분대의 모든 짐이 그한테 얹혀지게 되였던것이다.

기관총수를 선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분대의 기관총수는 육체적준비가 특별히 좋아야 하고 군사규률과 훈련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기관총수가 차지하는 역할은 사관인 분대장이나 부분대장보다 더 무겁다고도 볼수 있다.

김충국소대장은 1분대의 기관총수로 리철민을 찍었다.

박호진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철민동무처럼 군사복무년한도 얼마 안되는 병사가 벌써 기관총수로 된 례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 나이에 구분대청년동맹 초급단체비서가 된 례는 더욱 드무오.》

《그렇기때문에 부담도 더 클게 아닙니까.》

《철민동무와 토론해보오.》

《알았습니다.》

박호진은 철민을 만나 사연을 이야기했다.

철민은 심중하게 듣고난 후 물었다.

《분대장동진 단지 나한테 지워지는 부담때문에 반신반의했습니까?》

《그렇소.》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가봐 걱정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걱정을 전혀 안한건 아니요. 그러나 난 동무가 마음먹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내리라고 믿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나하구 소대장동지한테 갑시다.》

김충국소대장을 찾아간 철민은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 초급단체비서이기때문에 제가 꼭 기관총수가 되여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초급단체비서가 가벼운 짐을 홀가분하

게 지고 훈시만 한다면 군인청년들은 그런 청년일군을 따르지 않을것이며 그의 말은 공허한 울림으로 끝나고말것입니다. …

전 기관총을 메고 앞장에서 달리며 초급단체비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며칠후 기관총수임명식이 있었다.

김충국소대장이 기관총을 탁우에 올려놓고 대렬을 둘러보았다.

《1분대 대원 리철민!》

《옛!》

철민은 대렬앞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갔다.

김충국소대장은 철민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철민동무, 이 기관총에는 우리 부대가 낳은 수많은 영웅들과 전세대군인들의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소.

우린 동무가 위대한 장군님을 총대로 받드는 길에서 이 기관총의 훌륭한 길동무, 동지가 되기를 바라오.》

《알았습니다!》

김충국소대장이 기관총을 내밀었다.

《기관총번호 401093.》

철민은 기관총을 넘겨받으며 힘차게 복창했다.

《기관총번호 401093!》

…

×

여름철훈련기간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를 위한 판정이 진행되였다.

한밤중에 《중대 폭풍!》하는 비상소집구령이 내렸다.

온 중대가 발칵 뒤집혔다. 무기장구류를 휴대하고 마당에 정렬하였다.

강평원이 나서서 전투임무를 주었다.

중대는 날밝기 전까지 100여리를 행군하여 련대가 지정한 공격출발위치인 ㅂ지점에 당도하여야 한다. 행군도중에 강행도하를 비롯한 각이한 정황이 조성되면 소대 또는 분대단위로 극복해야 한다.

대렬이 출발하였다.

30리를 행군하였는데 강이 앞을 막아나섰다. 본래 깊지 않은 강인데 장마철이여서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셌다.

분대별로 늘어서서 서로 어깨를 겯고 물에 들어섰다.

철민의 곁에는 항상 백은성이가 붙어다녔다. 예상외로 은성은 잘 견디여냈다. 강을 도하할 때는 오히려 철민을 걱정했다.

《철민동지, 난 강가에서 자라서 이런건 식은죽먹기입니다. 그 기관총을 나한테 주십시오.》

철민은 은성의 철갑모쓴 머리를 지르며 퉁을 놓았다.

《난 물안에서 자랐어.》

은성이 걱정할만도 했다.

기관총은 자동보총보다 세배이상 무겁다. 게다가 철민은 오른쪽어깨에 휴대용메가폰까지 멨다.

시간이 감에 따라 대원들속에서 숨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철민은 대렬밖으로 나서며 메가폰을 입에 가져다댔다. 그는 분대의 기관총수이기 전에 중대초급단체비서였다.

《동지들! 힘을 냅시다. 지금의 행군길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남해기슭으로 달려가는 싸움길입니다. 장군님의 병사답게 이 길에서 승리자가 됩시다!》

여기저기서 호응했다.

《승리자가 되자!》

《달리자!》

그 기세로 극한점을 이겨나갔다.

마지막지점을 가까이하면서 하나 둘 대렬에서 떨어지는 대

원이 나타났다. 신입대원들의 일부 장구류가 구대원들의 어깨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철민은 은성이가 걱정스러웠다.

《은성이, 힘내라!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 둘…》

그러나 은성은 이미 맥이 진한듯 했다. 거의 철민에게 매여달려 걷고있었다.

철민은 은성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기려 했다.

《안됩니다!》

은성은 배낭끈을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다. 그만한 고집이면 아직 잠재력을 믿을수 있었다.

얼마동안 가던 은성이가 하소연했다.

《철민동지, 난 더… 날 떨구고…》

《무슨 소릴 하는거야?》

철민은 거칠게 소리쳤다.

《너와 나, 우린 서로 한몸이야. 가도 함께 가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해. … 알겠어?》

철민은 막무가내로 은성의 배낭을 벗겼다.

은성은 더 뻗댈 힘이 없는 모양이였다.

철민의 배낭우에 은성이 배낭이 덧놓아졌다. 어지간히 힘이 진했던 철민은 갑절이나 되는 배낭의 무게에 비칠거렸다. 그라고 무쇠로 빚은 몸이 아닌것이다.

《은성이… 이겨내야 해! 아버지, 어머니의 당부… 잊지 않았지?…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겠는가, 아니면 노예로 살겠는가. …》

이것은 은성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자기자신을 채찍질하는 소리였다.

마지막 10리를 남겨둔 지점에서 강평원이 철민의 분대에 나타나 비상정황을 주었다.

《1소대 1분대는 30분내로 앞고지의 〈적〉을 소멸하고 중대의 행군로를 열어놓을것. 현재 앞고지는 한개 소대가량

의 〈적〉이 차지하고있음. 분대는 전투에서 분대장 전사! 부분대장 후송!… 기관총수, 분대를 지휘하시오!》

《알았습니다!》

철민의 자신있는 대답소리를 들었으나 분대장 박호진의 낯은 컴컴해졌다.

결국 분대에는 전사 백은성을 포함하여 4명의 대원이 남았다. 모두 청년동맹원들이였다.

박호진은 철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꽉 틀어잡았다.

《철민이, 난 동물 믿어!》

《분대장동지, 념려마십시오!》

중대전원이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철민이 남은 분대원들을 향해 휙 돌아섰다.

《분대 전투준비! 백은성동무와 나는 정면으로, 나머지동무들은 량익측에서, 분대 돌격앞으로!》

《만세!―》

거의모두가 신입대원이고 지친 몸들이였다. 나이가 제일 어린 백은성은 더는 걷지 못하겠다고 주저앉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기관총을 휘두르며 앞장에서 달리는 철민을 따라 육탄이 되여 돌격했다.

분대는 강평원이 지정해준 시간내에 앞고지의 《적》을 소멸하고 중대와 합세하였다.

날이 밝아오고있었다. …

그날 오전에는 마감으로 현지에서 사격판정이 있었다.

중대별로 가장 우수한 기관총수가 나가게 되여있었다.

중대장은 김충국소대장과 토론하고 철민을 내보냈다.

사격좌지에 엎드린 철민은 속이 울렁거렸다. 기관총수가 된지 불과 한달이 되나마나했다. 그동안 이를 악물고 사격훈련을 했으나 도저히 자신을 믿을수 없었다. 분대의 명예, 소대의 명예, 중대의 명예가 자기한테 달려있었다. 내가 꽤 해낼수 있을가? 초급단체비서인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김충국소대장이 다가와 심장쪽의 어깨를 지그시 내리누르며 말했다.

《철민이, 허튼생각을 하면 총알이 빗나가. 눈엔 목표가 아니라 적이 보여야 해! 알겠어?》

철민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쩌면 소대장이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 말을 한것 같았다.

차츰 마음이 진정되였다. 싸늘한 랭기가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더니 눈앞의 목표가 적으로 확대되였다.

입술을 사려물었다.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울렸다.

100m목표, 300m목표, 이동목표…

드디여 사격을 끝낸 철민은 좌지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눈길들이 신호수의 빨간 기발에 집중되였다.

철민은 그 기발을 애써 보지 않았다. 고집스럽게 눈을 내리깔고 과연 빗나간 탄알이 없겠는가를 따져보았다.

등뒤에서 와아 하는 함성이 일어났다.

철민은 그 소리때문에 화력지휘관이 모든 목표에 걸쳐 《우》라고 한 말을 가려듣지 못했다.

잠시후 전우들이 달려와 자기를 에워싸서야 모든것을 깨달았다.

철민은 기관총을 쓸어만졌다.

이제는 자다가 일어나서도 거침없이 외울 기관총번호를 다시금 입속으로 불러보았다.

《401093.》

철민은 그것을 그저 수자로만 생각지 않았다.

앞으로 자기가 쓸어눕혀야 할 적의 수자로 여겼다.

4. 영원한 메아리

철민은 교양실에서 새 벽보발간준비를 하고있었다.

양력설을 맞으며 발간하였던 벽보를 급히 새로운 내용으로 일신시켜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벽두에 눈보라를 헤치시고 최전연에 위치한 이웃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다. 야전차도 갈수 없는 구분대의 산중초소에까지 가시여 병사들의 군무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료해하시였다. 병사들의 식생활정형을 알아보시다가 양력설음식차림표에 찰떡이 빠졌었다는것을 아시고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최전연부대들에 찹쌀을 보내주도록 하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찹쌀이 철민의 구분대에도 도착하여 바로 어제 아침 철민이자신도 찰떡을 먹었다. 찰떡이 푸짐하게 담긴 그릇들을 마주하고 모두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었다. 눈물과 함께 찰떡을 먹으면서 장군님을 생각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였던 그 걸음을 돌려 북방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 수천리 행군길에 오르셨다는 소식을 텔레비죤에서 알게 된 철민은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지금도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야전복을 벗지 못하시고 강행군길에 계신다. 청년군인들을 장군님의 뜻과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동성있게 해야 한다. 거기에서 벽보는 중요한 교양공간으로 된다.

그래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초급위원들을 모여놓고 벽보에 실게 될 글을 쓰도록 분공조직을 했었다. 지금 그것을 받아서 검토하고 수정가필하는중이였다.

조금 있으면 잠복근무에 나갈 시간이다. 그전까지 마무리 해야 래일중으로 새 벽보를 걸어놓을수 있다.

문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고 출입문을 바라보는데 문소리는 거기에서가 아니라 창문에서 난다. 누구인가 창유리를 두드리며 안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철민은 어스름이 비낀 창가로 다가갔다. 밖이 얼마나 추운지 벌써 성에가 내불리기 시작한다. 손바닥으로 성에를 녹이고 내다보았다.

명식이가 손짓으로 들어가도 일없겠는가 묻고있다. 별스러웠다.

출입문을 열어주고 들어서는 명식을 이상하게 여겨보았다.

《왜 그래? 언젠 뭐 물어보고 들어왔어?》

명식은 두손을 맞비비며 어색스럽게 웃었다.

《아무리 옛적 동무래두 초급단체비서인데 어렵게 대해야지…》

《룡홍중학교에서 내가 학급장할 때두 어려워했던가?…》

《그때야 철부지시절이였으니까 그랬지.》

하긴 명식은 철민이가 사업하는 이 방에 한담이나 하자고 드나든적은 없었다. 아무리 그랬어도 지금의 표정이나 태도는 이상했다.

《왜 왔나?》

《저…》

머밋거리는것을 보니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은 말이야… 이달에 나한테 준 분공… 그걸 좀 고려해주었으면 해서…》

철민은 보던 원고를 밀어놓았다.

명식에게 계급교양주제의 해설담화자료를 준비해서 중대군인들앞에 출연할데 대한 분공을 주었었다. 이달에 계획한 사

상사업내용중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모임의 출연자로 명식을 택한것은 의도가 있어서였다. 명식은 근면한 측면은 있으나 아무 일에서나 적극성이 부족했다. 훈련이나 군무생활에서 그것이 표현되여 지휘관들의 말밥에 오르는 때가 드문했다. 그리고 발표능력이 부족하다나니 모임같은데 나서기를 두려워했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찾아까지 와서 고려해달라고 하는것이다.

《자료는 준비됐겠지?》

철민이 물었다.

명식이 어물어물하며 원고를 내놓았다.

《이것저것 보면서 대충 만드느라구 했는데…》

《대충이라구?》

철민은 그 말투부터 귀에 거슬렸다.

글을 읽고난 철민은 실망을 금할수 없었다. 말그대로 대충 뭉그린 자료였다.

철민은 심중한 기색으로 명식을 마주보았다.

《명식이, 좀 묻자구.》

《?》

《동문 이 자료를 왜 준비했나?》

철민은 대답을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분공이니 할수 없어서였나 아니면 친구인 내 낯을 봐서였나?》

명식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내 판단이 정확치 못하다면 반박을 하라구.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건 단순히 분공이나 친구의 체면문제가 아니라 동무의 머리속에 들어가있는 계급적자각에 관한 문제라구.》

《…》

《난 동무가 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에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보다 더 준비된 군인이 되길 바랬어. 그리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청년군인들속에서 적에 대한 증오심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했어. …

이렇게 열이 없고 피가 뛰지 않는 글을 보니 동무의 군무생활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적인 측면의 원인을 알겠어.

내 말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명식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엇인가 자책하는 낯빛이였다.

그런 그를 대하자 철민은 한결 마음이 놓였다.

《명식이, 새삼스러운 말같지만 너와 나는 어제날 학창시절의 동무이기 전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이고 한전호에 엎드린 전우야. 난 명식이가 이걸 명심하길 바래.》

한동안 묵묵히 듣고있던 명식이 불쑥 일어섰다.

《철민이, 난 가겠어.》하고 말릴 사이가 없이 문을 열고 나가는것이였다.

《명식이!》

철민은 따라가 붙잡으려다말았다. 쓴약을 먹은셈이니 쉽게 소화될리 만무했다. 래일 근무에 나갔다와서 다시 만나리라 생각했다.

근무상번시간이 거의 되였다.

철민은 책상을 정리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명식이가 다시 들어서는것이였다. 손에 무엇인가 들었는데 히죽히죽 웃는 얼굴이다.

《?》

《철민이, 날이 굉장히 추워. 이 배띠를 띠고 잠복근무에 나가라구.》

철민은 명식이 내미는것을 받아들며 그의 어깨박죽을 주먹으로 쿡 질렀다.

《난 또 분풀이를 하려고 다시 온줄 알았지.》

명식은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널 몰라서… 근무에 나가서 손발을 잘 건사하라구. 그걸 띠면 배는 한결 일없을거야. 난 가겠네.》

《가만!》

철민은 나가려는 명식을 돌려세웠다. 주머니에서 원주필을 꺼내 명식의 손에 쥐여주며 말했다.

《이걸로 해설자료를 완성하라구. 그리구 내가 근무에 나갔다와서 도와주겠어.》

《고맙다.》

《난 네가 더 고마운데.》

둘은 뜨거운 눈길로 서로 마주보았다. …

병실에 오니 근무상번준비를 하던 백은성이가 철민을 한켠으로 끌고가 소곤거렸다.

《철민동지, 큰일났습니다. 분대장동지의 허벅다리가 누렇게 곪아서 땡땡 부었습니다.》

《뭐?》

얼마전부터 박호진이 훈련도중 무엇에 다리를 찔려서 약간씩 절군 했었다. 그것이 세나서 종처가 된 모양이였다. 날이 추운 때 그런것을 방임하면 화단이 될수 있었다.

박호진은 근무준비를 갖추고 병실구석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었다.

철민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분대장동지, 다리 좀 봅시다.》

박호진은 대뜸 눈을 부라리며 손가락을 세워 입에 가져갔다.

《뭘 그래? 별치않을걸 가지구.》

그의 심정이 헤아려졌다.

전연초소의 병사들은 요즈음과 같은 날씨에 앓아눕는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자기 아니면 누구든 대신 근무에 나가 추위와 싸워야 하는것이다. 더우기 박호진은 분대장이며 잠복조장이다.

철민은 시물시물 웃으며 그의 약한 고리를 건드렸다.

《보여주지 않으면 소대장동지한테 제기하겠습니다, 분

대장동진 환자가 되여 잠복근무에 나갈수 없다고 말입니다.》

박호진은 급해했다.

《철민이, 제발 조용해달라구.》

《그러게 내 말 들으십시오. 나한테 종처를 순간에 아물게 하는 비방이 있습니다.》

《정말이요?》

박호진은 귀가 솔깃해졌다.

《그럼요.》

《위생지도원 그 친구 돌팔이의원같애. 뭘 잔뜩 줘발라주긴 하는데 어디 차도가 있어야지. 철민동무 말은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을수 있지. 자, 그럼 좀 봐주게. 제꺽이야.》

박호진은 서둘러 허리띠를 풀었다.

드러난 종처를 보니 화농이 될대로 됐다.

《이쪽은 보지 마십시오.》

철민은 은성에게 비상함에서 약솜을 가져오라고 했다. 솜으로 종처를 닦고 더께를 약간 뜯어냈다. 그리고 거기에 입을 가져다댔다.

박호진은 얼마후에야 철민이가 입으로 종처의 고름을 빨아내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당장 뛰쳐일어나 제지시키고싶었으나 가슴을 치는 자책감에 눈을 감아버렸다. 신입병사시절에는 조숙한 그가 미울 때도 있었다. 구대원이 되였을 때에는 백은성이같은 신대원들이 그한테만 쏠리는것이 아니꼬왔었다. 지금은… 위압감을 느끼고있다. 아니, 그보다도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자신의 허물을 날날이 드러내보이는 거울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그는 요즈음 래년쯤이면 제대되게 될 자신의 앞날에 대해 생각해보군 한다. 대학으로, 고향에서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미더운 호주로… 제나름의 꿈과 리상이 가지를 치고쳤다. 그런데 철민이와 마주하면 그러루한 생각이며 계획이 흐트러진다. 그는

얼마전에야 철민의 아버지가 당일군이라는것을 알았다. 부러워서 제대후의 일을 조금도 걱정 안해도 되겠다고 하자 철민은 어떻게 말했던가.

《…분대장동지의 말뜻을 다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다만 사회와 집단의 요구앞에 자기 개인의 욕망을 앞세우면 안된다는 생각뿐입니다. 이건 저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철민의 그 말을 곱씹어보면 자기자신의 진면모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진다.

박호진은 한숨을 내쉬였다. 못난이! 어쨌든 난 그의 발꿈치에도 못 간다, 못 가!…

박호진은 철민이가 처치를 끝내고 입안을 소독하려고 나갔을 때까지도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까딱 안했다.

백은성이가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며 이상스러워했다.

《분대장동진 철민동지가 입으로 고름을 빨아낸걸 몰랐습니까?》

《응.》

《정말 몰랐습니까?》

박호진은 신경질을 부렸다.

《몰랐다지 않아.》

《?…》

몸을 일으킨 박호진은 어딘가 못마땅한 눈길로 자기를 보고있는 은성을 끌어당겼다.

《은성이, 날 본받지 말구 꼭 철민동물 닮으라구. 그러면 가장 훌륭한 병사가 되구 동지가 돼! 알겠어?》 하고 말하려다가 주먹으로 그의 어깨박죽을 탁 쳐서 밀쳐버리고 그만두었다.

병실에 다시 들어선 철민이가 아무말없이 은성을 끌고 저편구석으로 갔다.

백은성이 의아해했다.

《왜 그럽니까?》
《상의를 올리라구.》
백은성은 조였던 혁띠를 풀었다.
철민은 명식에게서 받은 배띠를 백은성의 배에다 붙이고 졸라매주었다.
백은성은 배에 붙은 두툼한것을 만져보고서야 그것이 무엇인줄 알았다. 떼놓으려고 했으나 철민의 강박을 물리칠수 없었다. 싱갱이질할 사이도 없었다. 볼이 부어서 투덜거렸다.
《철민동진 왜 자기 생각은 꼬물만큼도 안합니까?》
철민은 말했다.
《은성동무, 먼저는 동지야. 그다음에 자기지.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니라 너와 나라고 하는거야.
동무가 입대하기 전 언제인가 우리 잠복초로 적들이 기여든 적이 있었어. 난 그때 불의의 정황속에서 잠복초에 홀로 남게 되였는데 여러놈의 적들이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다가들고있었어. 난 죽음을 각오하고 잠복호에서 뛰쳐일어났는데 누구인가 〈철민이! 엎디라!〉 하면서 내 몸을 덮는게 아니겠어. 격전이 지나간 뒤 나는 아무 일 없었지만 나한테로 날아오는 적탄을 막아나선 그는 중상을 입었어. 그가 바로 우리 소대장동지야. 내 귀가에는 지금도 〈철민이! 엎디라!〉 하던 소대장동지의 그 웨침이 쟁쟁해!…》
철민은 더 말할수 없었다.
《잠복조 모엿!》하는 중대직일관의 목소리가 울렸던것이다.
잠복조원들이 마당에 정렬하였다.
김충국소대장은 조장들에게서 대렬보고를 받고 곧바로 박호진에게로 다가왔다.
《잠복조장 중사 박호진!》
《다린 좀 어떻소?》
《다 나았습니다.》

김충국은 그럴수 없겠는데 하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어딘가 침울해보이는 박호진의 인상이 더 의심을 자아냈다.

박호진은 잠자코 있으면 소대장이 혁띠를 풀어내리라고 명령할것 같아 낯색을 고치며 말했다.

《철민동무가 기막힌 비방을 알구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적용했습니다.》

김충국은 철민에게로 옮겨갔다.

《조원 리철민!》

《철민동무가 림상에도 밝은가, 어떤 비방이요?》

철민은 머밋거렸다.

《하긴 비방이라는거야 아무데서나 망탕 공개하는게 아니지. 잠복나갔다와서 나한테만 알려주겠소?》

철민은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안됩니다. 소대장동지에게 그런 종처가 생기면 치료는 해드리겠습니다.》

《하, 이거 꽤 비싸게 구는데.》

곁에 서있던 백은성이가 말하지 못해 안달아하는것을 철민이가 옆구리를 찔러 입을 벌리지 못하게 했다.

대렬앞에 나간 김충국은 주의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처럼 추운 날에는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일기예보를 들어보니 래일 새벽에는 령하 20℃이하로 떨어질것으로 보고있다. 병실을 뜨끈뜨끈하게 달구어놓았다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을 특별히 잘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자정이 넘어서자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것이 알렸다.

시퍼런 얼음칼이 날을 세우고 옷을 한겹한겹 베며 살로 접근하는것 같다. 오싹오싹 소름이 돋는다. 철갑모밑에 조금 드러낸 얼굴은 이미 감각을 잃었다. 먼저 자동보총을 틀어잡은 손이 시려든다. 그래도 손은 장갑안에서 옴지락거리며 마찰을 일으켜 어느 정도 열을 일으킬수 있다. 발이 문제이다.

잠복호밀에 놓인 발은 꼼짝할수 없다. 참을수 없이 얼어들어도 어쩌는 수없다.

박호진은 이따금 허벅다리에서 오는 동통에 낯을 찌프렸다. 몸이 얼어들면서 더하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만한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수 있다. 이만한 추위도 겪을대로 겪었다. 속이 편안치 않은것이 문제였다. 자기와 약간 사선으로 등을 돌려댄 철민을 자꾸 곁눈질하게 된다. 철민은 조각상처럼 굳어져서 앞만 주시하고있다. 조금전에 귀속말로 《분대장동지, 종처가 동상을 입으면 더 야단입니다. 장갑낀 손으로라도 꼭 대고있으십시오.》했었다. 호진은 아무런 대꾸도 안했다. 아니, 아예 못 들은척 했다. 철민이가 자기 장갑이라도 벗어서 덧놓아줄가봐 겁이 난다.

당치않은 걱정이 아니였다. 얼마후 철민의 솜장갑이 정말로 그한테로 넘어왔다.

《이것까지 겹쳐서 대십시오. 한결 나을겁니다.》

호진은 눈을 부라리며 그것을 밀어던졌다.

《철민이, 날 뭘루 아는거야.》

꾸짖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철민이자신도 무엇인가 자기 분대장의 심리를 감촉한 모양이였다. 더 권고하지 않고 장갑을 자기 손에 다시 끼는것이였다.

그다음부터 철민의 몸은 백은성이쪽으로 기울어졌다.

백은성은 몸이 얼어들어 움직일수도 없는 형편이였다.

《은성동무, 가만있으면 안돼. 조금씩이라도 손발을 움직여야 해.》하고 주의를 주고난 철민은 별안간 솜옷앞섶을 헤치더니 은성의 발을 신발채로 들어서 품안에 넣는것이였다.

백은성이가 버드럭거리며 발을 빼려 했다.

그러나 철민은 은성의 발을 더 깊숙이 끌어당겨안고 자기 체온으로 덥혀주기 시작했다.

호진은 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광경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

날이 밝아올무렵 잠복근무를 마친 그들은 중대병실 앞마당에 당도하였다.

방금 기상을 한 중대군인들이 아침일과를 집행하느라고 마당을 분주히 오가는 때였다.

그들은 근무정형을 보고하려고 병실계단을 오르고있었다.

앞에는 잠복조장인 박호진, 그다음은 리철민, 맨 뒤에 신입병사인 백은성이 섰다.

더운물주전자를 든 김충국소대장이 잠복조를 맞이하려고 급히 그들앞으로 다가오고있었다.

허벅다리의 동통으로 다리를 몹시 절던 박호진이 마감계단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끌어올리지 못한 다리가 계단턱에 부딪쳤던것이다. 그 바람에 박호진의 허리춤에서 수류탄들이 떨어져내렸다. 그중 한발의 수류탄에서 격침이 뢰관을 때리는 《딱.》소리가 났다.

박호진은 몸서리치는 전률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다. 은성은 그저 굴러내려오는 수류탄을 보고만 있을뿐이였다.

위기일발의 그 순간 가운데 섰던 철민이가 《비키라!》, 《엎디라!》하는 고함소리와 함께 은성을 계단아래로 떠밀면서 몸을 날려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덮는것을 호진은 똑똑히 보았다.

박호진은 《꽝!》하는 폭발소리를 거의 환각상태에서 들었다. 일과집행을 하던 중대군인들이 철민에게로 달려가 에워쌀 때까지도 호진은 굳어진채로 움직일념을 못했다.

잠시후에야 계단을 굴러내려가며 소리쳐불렀다.

《철민이!—》

은성은 발앞으로 굴러내려오는 수류탄을 얼핏 보고난 후에는 아무것도 알수 없었다. 철민에게 힘껏 떠밀리워 계단옆

의 눈무지에 구겨박혀 폭음을 들었을 때에야 사태의 엄중성을 깨달았다.

그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불과 4～5m안팎의 계단밑에 수류탄을 덮고 쓰러져있는 철민을 보는 순간 눈앞이 새까매지면서 하늘땅이 빙그르르 도는것 같았다.

《철민동지!—》하고 목이 터지게 불렀으나 목소리는 입밖으로 튀여나가지 못했다. 다만 동지의 그 피타는 마지막웨침만이 커다랗게 공명되여 귀전을 울렸다.

《비키라!—》, 《엎디라!—》

…

× ×

나는 지금 《리철민고급중학교》로 명명된 어제날의 평양시 중구역 련화중학교에 와있다. 영웅이 심은 감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봄이다.

기관총을 틀어쥔 영웅의 반신상앞에서는 지금 이해에 새로 군대에 입대하는 졸업생들의 탄원모임이 벌어지고있다. 학교에서는 해마다 졸업생들의 탄원모임을 영웅의 반신상앞에서 가진다고 한다.

열기띤 토론들이 진행된 후 학생취주악대의 힘찬 선률에 맞추어 이제 군복을 입게 될 새 세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가고있다.

불타는 청춘 피끓는 심장
주체의 새 세계를 세워가네
우리는 영예론 혁명의 계승자
우리는 조선의 새 세대
…

영웅이 우리곁을 떠난지 10여년세월이 흘렀으나 모교로 돌아온 영웅은 영원한 병사, 기관총수의 모습으로 후배들 앞에 서있다. 하여 이 땅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수많은 리철민이들이 자라고자라 백두에서 시작된 동지애의 력사를 변함없이 써나가고있다.

중편소설　　너와 나

저　　자　리 준 호
편　　집　김 광 성
장정, 삽화　함 준 혁
편　　성　김 정 심
교　　정　김 승 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6(2017)년 3월 10일
발　　행　주체106(2017)년 3월 23일

ㄱ─6637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7
D P R Korea
ISBN 978—9946—22—722—1